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7권 제3호 (통권 92호) / 2022. 9

신앙과 학문

제27권 제3호 (통권 92호), 2022년 9월호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황혜원 (청주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 인식: Q분류(Qsorting)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 정희정 / 서우경
Perception of the Christian Professor's Calling and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Coaching: Focusing on Qsorting Interview Data | Hee Jung Chung / Woo Kyung Suh
- 031 초대 기독교인의 전염병 대처와 그 원동력: 키프리아누스 역병을 중심으로 | 최혜영
The First Churches' Response to the Cyprian Plague and its Driving Forces | Hae-Young Choi
- 049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 김주경 / 손병덕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Ministry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North Korean Refugees | Jookyung Kim / Byoungduk Sohn
- 085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희진 / 이원준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Intention of
Christians and Atheists to Engage in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 Hee-Jin Lee / Won-June Lee
- 117 목회자가 경험한 찬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이미아 / 조희연 / 문소영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raise Which Pastors
Have Experienced | Mia Lee / Huiyeon Jo / Soyoung Moon
- 147 기독교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
벤 매넨(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 | 박병애
A Qualitative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of Christia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y Study Method | ByungAe Park
- 187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관한 고찰 | 최용준
A Research on the Socio-Ethical Implications of
Abraham Kuyper's Thought on Sphere Sovereignty | Yong Joon (John) Choi
- 207 영성훈련으로서의 영성일기 경험 연구-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 천연금 / 김석선 / 길민지 / 김다운
Experiences about Writing a Spiritual Diary as a Spiritual Disciplines
-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 Yeon Kum Cheon / Suk-Sun Kim / Minji Gil / Daeun Kim
- 233 잠언에 나타난 공동체 교육의 다양한 형태들 | 김희석
Forms of Community Education in the Book of Proverbs | Hee Suk Kim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 인식: Q분류(Qsorting)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Perception of the Christian Professor's Calling and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Coaching: Focusing on Qsorting Interview Data

정희정 (Hee Jung Chung)**

서우경 (Woo Kyung Suh)(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Qsorting interview data on the Christian Professor's calling and the role recognition of Christian Professors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and coaching.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how they expressed their religious calling among the Qsorting interview data of 36 Christian professors conducted during the subjectivity research on the calling of Christian professors.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and the perception of role performance as a Christian professor. Christian professors recognized their calling as the Grace of God to become a Christian professor. Christian professors always viewed their career as God-given profession, and expressed and recognized that they were called by God to evangelize the campu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statements coexist with the integrated concept of counseling and coaching regarding the Christian professor's calling, role and role recogni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esenting basic data for various research and practice related to Christian professors in the future,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necessary for Christian professor's calling, role performance and developing an integrated program of counseling and coaching.

Key words: Christianity, counseling coaching, Christian professor, calling and role, role recognition

* 2022년 5월 17일 접수, 8월 11일 최종수정, 9월 1일 게재확정

**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Baekseok Culture University-Department of Social Welfare)부교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화로1 지혜관 1017호, hjchung@bscu.ac.kr.

*** 연세대학교 학부연계전공(Yonsei University-Undergraduate related major) 겸임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리더십센터 백양관 S101호, swk@yonsei.ac.kr.

I. 서론

오늘날 대학에서 기독교 교수는 세속화된 학문 공동체인 대학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며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조용훈, 2008: 197 ; 2009: 149-150).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의 관점에서 ‘소명(calling)’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필요가 있다.

국회전자도서관(<https://dl.nanet.go.kr/index.do>)에 실린 ‘소명’ 관련 2,076개의 연구 중 대학교수의 소명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논문은 2022년 현재 전무한 상황이며, 학술지에 실린 연구도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대부분이다(김영완, 2012: 12-13 ; 김진이, 2011 ; 장유정 외, 2021: 266-299 ; 조용훈, 2008: 197-220).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기독교 교수에 대한 역할, 소명, 책임, 정체성 등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졌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와 같이 과학기술이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영성과 교육을 이끄는 기독교 교수의 역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오성주, 2018: 197-246). 다시 말하면, 기존의 교수 역할로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교육 환경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수는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교수 자신의 전문가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교수법도 단순한 티칭(teaching)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갈 수 있는 코칭(coaching) 교수법을 익히는 게 필요하며, 미래 진로와 관련해서는 진로와 관련된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상담(counseling)의 영역까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넘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크리스천 코칭의 영역까지 다룰 수 있는 탁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교수는 학생들의 정서와 고통,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상담사(counselor)의 역할과 학생들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지고 잠재력을 이끌어 미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코치(coach)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상담이 과거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문제해결과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코칭은 현재 변화와 성장의 내재적 동기가 있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상담과 코칭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게리 콜린스(Gary Collins) 박사는 “상담은 내담자의 과거에 받았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코칭은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상담가는 내담자가 과거에 받았던

정서적, 영적 고통을 회복시켜 주도록 돕지만, 코치는 사람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서우경 재인용, 2009a: 36)이라며, “크리스천 코칭은 개인 또는 집단을 도와 그들이 현재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기술이자 실천이다”(Gary, 양형주·이규창 역, 2011: 39)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로 개인 한 명의 내담자를 두고 상담과 코칭의 통합적 적용에 대한 중요성이 임상 사례 연구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상담 코칭 관련 기관과 대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소희, 2009: 7-12 ; 서우경, 2009a: 33-60 ; 정희정, 2021: 149-169 ; Barg et al., 2012: 167-172 ; Kampa & Anderson, 2001: 205-228 ; Patrick & Deborah, 2007 ; 2021). 이러한 상담 코칭 학계의 동향으로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교수법으로는 미래 경쟁력의 대안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므로 기독교 교수로서 학생들의 영혼과 생명(장종현, 2021)을 살리는 소명과 역할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해졌다(장유정 외, 2021: 270).

일반적으로 역할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활동들의 패턴이다. 사회적 환경의 지위와 기대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정의하며, 개인마다 역할에 대한 신념과 선호도가 다르다(Biddle, 1986 ; Kielhofner, 2008). 또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역할에 의해 개인의 작업(의미 있는 활동)들이 패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은 작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환경 안에서 참여할 수 있다(공명자, 2020). 이런 역할과 역할 수행의 의미에서 “기독교 교수가 학자이면서 하나님의 제자인 기독교 신자로 연구하는 일과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강영안, 2002: 11-45)라면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새로운 기독교 교수 상에 걸맞는 전문가적 역량과 식견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독교 교수가 통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직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정봉현, 2014),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미래가 예측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들을 돕는 시대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기독교 교수의 소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으므로, 그분의 부르심과 은혜에 응답하여 모든 존재와 행위 및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어야 한다 (Guinness, 2006). 그동안 종교적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소명이 최근에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로 확장되어 보다 폭넓은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윤은아, 2021 ; Dik & Duffy, 2009: 424-450). 특히 기독교에서의 직업관은 직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아 ‘소명(calling)’으로 이해해야 한다(김영완, 2012: 12-13). 이와 같이 소명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명 완수라는 자세로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이해할 때, 학문연구와 강의 외 학생지

도 활동에서 진로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교수 직분에 대해 청지기 의식을 갖고 대학의 코치형 리더로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을 심어주고 이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성장시키며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학생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서우경, 2010: 39).

따라서 기독교 교수는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선교적 사명 완수를 위한 전도자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수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교수의 정체성은 진리탐구를 위한 학자로서 일반 교수들과는 다른 연구동기와 연구목적을 분명하게 지녀야 한다(조용훈, 2008: 197).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 교수가 학생을 바라볼 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¹⁾(로마 12:2)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먼저 교수 자신이 깊은 자기 성찰과 탐색을 통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재발견하고 그것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할 때 기독교 교수의 역할도 분명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기독교 교수의 소명은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내재적 특성이므로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에 관한 인식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명은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사는 것이다(Duffy, et al., 2013: 42-52). 기독교 교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학생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단계로 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변화추진자(transformer)’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서우경, 2013: 77). 그것이 바로 코치형 리더 즉, 기독교 교수로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수는 학생들을 도와 소명을 명확하게 하고,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하여 스스로 할 일을 설정하고 자신의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Gary, 양형주·이규창 역, 2011: 38-39). 기독교 교수가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학생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독교 교수가 조력자(helper)로서 학생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며(Patrick and Deborah, 2007: 48), 또한 지지자(supporter)로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aurie, 배웅준 역, 2004: 118-121). 이로써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에 대한 질적 연구의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교수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심리적 깊이를 다루는 질적 연구나 심층 인터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 연구의 한계를 넘어 인간 심리의 주관적 가치를 연구할 수 있는 Q

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 12:2)”

방법론을 통해(길병옥 외, 2020: 2 ; 장유정 외, 2021: 271 ; 정희정·김경미, 2020: 31 ; 정희정 외, 2020: 60) Qsorting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기독교 상담 코칭의 시각에서 기독교 교수가 종교적 소명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 교수의 역할과 역할 수행에 대한 태도, 신념, 확신, 가치 등과 같은 주관적인 인식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I. 연구문제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 인식을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기독교 교수의 역할과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Q방법론은 ‘개인 내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의 가정에 근거를 두고 개인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Mckweon & Thomas, 2013).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한 주관성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시한 Qsorting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고 기독교 상담 코칭의 시각에서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Figure 1은 Qsorting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 연구 절차도이다.

단 계	연구절차
Q모집단 구성 및 표본 선정	- 문헌연구 및 FGI를 통한 Q모집단 220개 추출 - 3차례의 내용타당도 검토 후 Q표본 33개 선정
P표본선정	- 기독교 교수 36명
심층 인터뷰	- Q표본 분류시 강한 동의로 분류한 진술문(21개)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실시
자료종합 및 분석	- 2명 이상 강한 동의 진술문(15개)에 대한 인터뷰 내용 종합 및 주제별 특성 분석

Figure 1. Research procedure using Qsorting interview data

1. Q표본 및 P표본 선정

본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 연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기독교 교수의 소명 관련 진술문 220개를 추출한 후 문항별 정리 및 검토를 통하여 진술문이 유사하거나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3개의 진술문인 Q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서울 천안, 원주, 대전에 위치한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독교 교수 36명을 임의로 표집하여 2021년 7월~8월까지 메일, 카카오톡 등의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Q분류(Qsorting)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P표본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P sample status

NO	성별	교회직분	교수경력(년)	전공	NO	성별	교회직분	교수경력(년)	전공
p01	여	집사	12	보건행정	p19	여	없음	11	교양영어
p02	남	없음	15	경찰	p20	여	집사	17	언어청각학
p03	여	집사	11	아동복지	p21	여	권사	21	자유교양
p04	여	집사	15	간호학	p22	남	서리집사	10	방사선학
p05	여	집사	7	사회복지	p23	여	사모	6	기독교교육
p06	여	집사	7	항공서비스	p24	남	집사	13	사회복지
p07	여	서리집사	17	아동복지	p25	여	집사	12	치위생학
p08	여	서리집사	10	치위생학	p26	남	협동목사	10	기독교교육
p09	여	집사	9	안경광학	p27	여	협동목사	14.5	인테리어
p10	남	집사	18	한문학	p28	남	목사	18	신학
p11	여	없음	15	정치외교	p29	남	집사	2	기독교교육
p12	여	집사	15	언어청각학	p30	남	협동목사	18	작업치료
p13	남	없음	19	소프트웨어	p31	남	목사	8	신학
p14	여	권사	33	융합	p32	남	협동목사	10	기독교교육
p15	남	장로	30	금융재무	p33	남	집사	16	사회복지
p16	여	없음	15	교직	p34	여	집사	6.5	응용통계
p17	남	집사	13	중국학	p35	여	집사	10	영어영문
p18	여	없음	17	언론정보	p36	여	집사	11.6	간호학

2. 심층 인터뷰

대학에 재직 중인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한 표현과 역할 및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방식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해석이 수집 가능한 구체적인 유형의 대화로 나타나면서,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관점과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정 연구 주제나 사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다

(Wimmer & Dominick, 1994). 심층 인터뷰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은 상담과 코칭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심층 후속 인터뷰를 통하여 새롭게 추출된 21개 진술문 중 2인 이상이 강한 동의를 한 15개 진술문에 대하여 교수들이 강한 동의를 한 이유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기독교 교수의 소명, 역할 및 역할 수행의 3가지 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질적인 연구는 주로 참여 관찰과 심층 인터뷰로 수행되며, 이때 심층 인터뷰는 주요 연구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인터뷰 대상자의 태도, 느낌, 행동, 감정을 알아낼 수 있다(Haralambos & Holborn, 1995).

3. 자료분석

본 연구 중 Qsorting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주어진 진술문 속의 상황이나 주제에 대해 본인의 일관성 있는 의견이나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이러한 응답은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 혹은 주관성을 반영하고 있다(Chung, 1986). Qsorting 과정에서 33개의 진술문 중에서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 21개 중 2인 이상이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 15개를 정리한 자료는 Table 2와 같다. 강한 동의를 한 15개 진술문과 그 진술문에 강한 동의를 한 이유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Table 2. Strongly Agreed P-Samples and Statements in Qsorting

강한 동의한 P표본	강한 동의 진술문	주제구분
P6, P8, P9, P12, P14, P19, P21, P22, P26, P28, P29,	1. 기독교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소명 (3)
P3, P4, P9, P20, P25, P26, P31	2. 기독교 교수는 단순히 직업이기에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P5, P7, P25	3. 기독교 교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P10, P29	1.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인도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수 역할(5)
P7, P24, P30, P32	2.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P15, P23	3. 기독교 교수는 교육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P1, P17, P16, P24, P34, P35	4. 학생들이 지성, 덕성, 영성을 갖추도록 돕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P13, P14	5.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P30, P32	1. 기독교 교수가 대학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 소명, 역할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요구된다.	기독교 교수 역할 수행 (7)
P5, P20	2.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	
P2, P35	3. 수업시간에 기독교인으로서 소신 있게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P4, P12, P17, P16	4.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P21, P31	5.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진행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P1, P3, P11, P13, P15, P19, P27, P33, P34, P36	6. 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P6, P10, P28, P22	7.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IV. 연구결과

1. 결과분석

Qsorting을 위한 33개의 Q표본 중 2명 이상이 강한 동의를 한 15개 진술문과 그 진술문에 강한 동의를 한 이유를 기독교 교수의 소명, 역할 및 역할 수행을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기독교 교수의 종교적 소명에 대한 표현

기독교 교수는 소명 의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강용원, 2008),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 교육 및 행정업무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적 원리와 실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김진이, 2011). 특히, 기독교 교수가 대학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성, 소명, 역할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요구된다(정봉현, 2014). 장유정·정희정·이제니스(2021)의 연구에서는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한 인식은 ‘삶으로 전해지는 긍정적 영향력 강조’,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전공학문 연구 강조’, ‘기독교 신앙 강조’, ‘부르심과 사명 강조’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기독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한 표현은 개인마다 다르며 주관적이므로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 교수의 주관적 관점에서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한 표현과 인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진술문을 통해 상담 코칭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찾아가는 과정이

다(P9)”라는 것은 크리스천 코칭의 목표(goal)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독교 교수님들을 만나 함께 동역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자들과도 함께 동역하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시고...(P19)”라는 진술에서도 기독교 교수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피어 코칭(peer coaching)’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자들과도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코치(coach)와 코치이(coachee)의 파트너십 관계 코칭이 성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코칭이 아닌 상담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부분이며 억압이나 억제와 같은 심리적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 교수의 소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의 진술문을 보면 상담과 코칭의 통합적 개념이 함께 공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명에 관련하여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은 “기독교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수는 단순히 직업이기에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기독교 교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나타났으며, 기독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내적 특성인 소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 ① 나의 힘으로는 교수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교수가 되리라는 생각도 못해 봤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다.(P6)
- ② 기독교 교수로서 부르심을 받고 본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P8)
- ③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가는 과정이다.(P9)
- ④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과 교수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P12)
- ⑤ 부족한 사람에게 교수직분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P14)
- ⑥ 내가 기독교 교수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교수가 될 자질이나 자격이 부족했음에도 교수가 되었고 이 일을 통해 많은 기독교 교수님들을 만나 함께 동역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자들과도 함께 동역하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교육함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제공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P19)

- ⑦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P21)
- ⑧ 교수라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 중 하나이기에 그분이 이 직업을 허락하신 이유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22)
- ⑨ 기독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 외에 본인이 교수가 될 만한 학문적인 자질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본인의 생애에 두신 그 분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 왔다. 학교에서 지난 세월 동안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이 확신이 더 강해진다.(p28)

(2) 기독 교수는 단순히 직업이기에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① 기독 교수는 단순히 직업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독 교수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P3)
- ② 교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직업임을 항상 생각한다.(P4)
- ③ 기독 교수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 소명이라고 생각한다.(P9)
- ④ 기독 교수는 캠퍼스 복음화와 교육 등에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으로 소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20)
- ⑤ 기독교인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기독 교수가 된 것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P26)
- 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함이 대전제이며 교수로서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현재 진행이다.(P31)

(3) 기독 교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 ①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학교에 오는 수많은 아이들이 신앙이 없이 입학해도 학업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학교는 그 장소를 제공하고 교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P5)
- ② 기독 교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교수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7)
- ③ 기독 교수로 부르신 것은 복음화를 위한 것이며 특히, 캠퍼스 사역을 위해 보내셨다고 생각하기에 기독 교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견에 가장 동의한다.(P25)

이와 같이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해 “(1) 기독교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의 진술문에서는 기독교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으로 여겼으며 “(2) 기독교 교수는 단순히 직업이기에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에서는 교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직업임을 항상 생각하고 기독교 교수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 소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3) 기독교 교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에서는 기독교 교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를 염두하고 교수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독교 교수의 역할에 대한 인식

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은 보통 인재양성 활동인 교육, 지식생산 활동인 연구, 그리고 지식응용 활동인 봉사의 세 가지로 나뉜다(박남기, 2006).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기독교 교수는 대학에서 건강한 기독교 신앙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존재로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준거에 비추어서 지각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수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다르며 주관적이므로 기독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내적 특성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수의 역할에 관련하여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인도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기독교 교수는 교육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지성, 덕성, 영성을 갖추도록 돕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및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기독교 교수가 전문 상담사와 코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미 크리스천 코치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리스천 코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며 그가 시작한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코치이를 잘 인도해야 한다. 그런데, 아래 연구 결과는 기독교 교수가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전인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바로 크리스천 코치의 주요 역할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크리스천 코치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던 ‘제자 삼으라’는 명확하고 최종적인 명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리 콜린스(Gary Collins) 박사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재조명 될 수 있다(Gary, 양형주·이규창 역, 2011, 40).

기독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내적 특성인 기독교 교수의 역할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인도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 ① 기독교 교수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수라고 할 수도 없으며 기독교 교수라면 지식인으로서 마땅히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 사회변화를 인도하는 선구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10)
- ② 기독교 교수로서 받은 소명을 나열하는 것이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장시키는 것이 기독교 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결국 교회도 사회라는 테두리와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틀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교수의 소명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런 변화의 기준은 기독교적 바른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P29)

(2)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 ①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P7)
- ②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기독교대학(신학대)의 궁극적인 교육이념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기독교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특히, 신학대는 이러한 특수성이 더 부각되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24)
- ③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P30)
- ④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며 이것은 나 스스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P32)

(3) 기독교 교수는 교육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①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15)
- ② 기독교 교수는 교육자로서 무너진 교육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보면 교육의 전 영역에서(가르침, 연구, 학생지도, 봉사, 행정 등) 왜곡된 부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수라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애통함을 가지고 교육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23)

(4) 학생들이 지성, 덕성, 영성을 갖추도록 돕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 ① 학교공동체의 목적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지성, 영성, 덕성을 갖추도록 돕는 전인교육이 중요하다

다고 생각한다.(P17)

- ② 교수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교수라면 더욱더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16)
- ③ 대학교육에서 지성만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덕성을 갖추도록 돕는 일, 즉, 윤리적인 판단능력과 실행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34)
- ④ 요즘같이 게임에 중독되고 비대면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지성, 덕성, 영성을 갖춘 전인교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다.(P35)

(5)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①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수의 핵심적인 자질이다.(P11)
- ②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 즉, 자신과 이웃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것은 교수라는 업의 본질이므로 매우 중요하다.(P13)
- ③ 능력을 주시고 쓰임 받게 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이다.(P14)

이와 같이 기독교 교수 역할에 대하여 “(1)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인도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 사회변화를 인도하는 선구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에서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수의 사명이라고 인식하였다. “(3) 기독교 교수는 교육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교육을 하는 것에 열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4) 학생들이 지성, 덕성, 영성을 갖추도록 돕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에서는 학생들이 지성, 덕성, 영성을 갖추도록 돕는 전인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5)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에서는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수의 핵심적인 자질이며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독교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선택하여 수행하며(공명자, 2020), 자신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역량에 맞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활동들

을 수행한다(Christiansen & Baum, 2005 ; Dunn et al., 1994). 특히, 기독교인 학자는 신앙과 전공 지식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 기독교인 교수의 사명이다(Hasker, 1992). 그러나 현재의 많은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정체성보다 학문적 수월성을 중시 여기고 기독교성을 잃고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으며(임신일, 2019), 이러한 분위기는 기독교인 교수들이 학문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교육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학문연구에 있어서 종교적 관점에 대해 침묵하거나 종교적 접근을 회피하도록 한다(Marsden, 조호연 역, 2000). 이러한 현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적 생각과 내적 특성인 기독교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은 “기독교 교수가 대학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명, 영성, 역할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요구된다.”,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기독교인으로서 소신 있게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진행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독교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기독교 상담사는 상담 현장에서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인식하고 내담자를 만난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코치도 코칭 현장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코칭 받는 코치이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 결국 기독교 교수의 역할 수행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완벽한 인생 코치인 예수를 닮은 삶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서우경, 2009b, 21). 기독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과 내적 특성인 역할 수행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교수가 대학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 소명, 역할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요구된다.

- ① 기독교 교수가 대학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 소명, 역할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요구된다. 기독교 교수로서의 학원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수 본인의 소명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성훈련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P30)
- ②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을 눈을 열어 알게 해 주셔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P32)

(2)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 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역량 안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5)
- ②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독교 교수는 영성, 소명, 역할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P20)

(3) 수업시간에 기독교인으로서 소신 있게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 ① 수업시간에 기독교인으로서 소신 있게 발언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첫째는 학생들과 라포(rapport) 형성이 된 이후에 개인상담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업시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둘째로는 수업시간의 목적이 전공/교양학문의 이해이므로 수업 내용과 관계가 없는 기독교에 대한 발언이 빈번할 경우,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 폰 녹화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P2)
- ② 사회의 분위기상 일반대학에서 대놓고 신앙에 대한 발언을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좀 더 우회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기도를 통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P35)

(4)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① 예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P4)
- ② 교육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12)
- ③ 학교 공동체의 목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 생각한다.(P17)
- ④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16)

(5)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진행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 ① 연구와 교육 등 직장에서의 모든 과정도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P21)
- ②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동의한다. 교수로서의 연구와 신앙이 분리가 된다면 결국 온전한 기독교 교수로서 자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했다.(P31)

(6) 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① 기독교적 품성을 가진 교육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P1)

- ② 기독교 교수는 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3)
- ③ 내가 교수이든 의사이든 나의 직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대학 교수로 부름 받은 만큼 제자들에게 신앙 선배로서 올바른 예수 제자도의 삶을 사는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교나 전도에 있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삶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살아내고 보여주어 왜 그 길이 옳은 길이고 함께 가고 싶은 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19)
- ④ 교수로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보기와 스승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신앙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P33)
- ⑤ 교수가 학생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모델이 된다면 더 없이 기쁜 일이라 생각한다. 교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독교인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이 없다고 생각한다.(P34)

(7)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① 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혜를 구할 때도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P6)
- ② 기독교 교수로서의 많은 역할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수는 항상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P10)
- ③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 교수의 모든 삶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추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며 본인의 경험으로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면 늘 무익하고 헛된 일들만 했었기 때문이다.(P28)
- ④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표현한 수식어라고만 생각한다.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움직이고 그분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P22)

이와 같이 기독교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해 “(1) 기독교 교수가 대학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 소명, 역할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요구된다.”, “(2)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에서는 교수 본인의 소명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성, 소명, 역할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3) 수업시간에 기독교인으로서 소신 있게 발언을 하는 것에 대

한 부담이 있다.”에서는 수업시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수업 내용과 관계가 없는 기독교에 대한 발언이 빈번할 경우에는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4)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5)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진행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에서는 교수로서의 연구와 신앙이 분리가 된다면 결국 온전한 기독교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모든 과정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6) 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에서는 교수를 통해서 신앙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교수로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보기와 스승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7)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에서는 기독교 교수로서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를 수가 없으므로 기독교 교수는 항상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Q분류(Qsorting)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관한 주관성 연구 중에 실시한 기독교 교수 36명의 Q분류(Qsorting) 인터뷰 자료 중 기독교 교수의 소명, 역할 및 역할 수행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다르며 주관적이므로 Q분류(Qsorting)을 위한 33개의 Q표본 중 개별적으로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 2개씩에 대하여 각각 동의한 이유에 대한 기술 및 후속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한 인식, 기독교 교수의 역할에 대한 인식, 기독교 교수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2명 이상이 동의한 15개 진술문과 그 진술문에 강한 동의를 한 이유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15개 진술문에 대하여 기독교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 역할, 역할 수행 등의 개인의 생각과 내적 특성인 주관적 구조를 이해하고 인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은 “기독교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수는 단순히 직업이기에 앞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기독교 교수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로 나타났다. 기

독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이 주신 직업임을 항상 생각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교수는 학자이자 기독교인으로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올바른 대학운영과 교육 연구 및 가르침뿐만 아니라 캠퍼스 선교에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수행한다는 정봉현(2014)의 견해와 기독교 교수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강용원(2008)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수의 소명 의식 고취와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상담 코칭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교수의 역할에 관련하여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인도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기독교 교수는 교육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지성, 덕성, 영성을 갖추도록 돕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및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로 나타났다. 기독교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도록 전인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신앙인으로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박상진(2006)의 견해와 일치한다. 또한 “한 개인을 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서우경 재인용, 2009a ; 36) 크리스천 코칭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하기 위해 기독교 교수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독교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 및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기초 교육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 교수의 역할 수행에 관련하여 강한 동의를 한 진술문은 “기독교 교수가 대학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 소명, 역할에 대한 자각과 훈련이 요구된다.”,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기독교인으로서 소신 있게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진행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로 나타났다.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며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보기와 스승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교수로서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항상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며 기독교 교수의 소

명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성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수업시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수업 내용과 관계가 없는 기독교에 대한 발언이 빈번할 경우에는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교수의 90%는 교수직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명 의식과 캠퍼스 선교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졌으나 기독교 교수가 교수 선교사로서 대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실제적인 선교사역의 동참에는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정봉현(2014)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기독교 교수의 소명 의식 고취와 기독교 세계관에 연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수 역량 향상 교육과정 및 상담 코칭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독교 교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독교 교수의 사명이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늘 함께 동역하는 퍼펙트 코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독교 교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들은 기독교 교수로서의 “사명²⁾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코칭의 시각이다(행 20:24). 이때 변화의 의지가 없거나 성장 동력이 없고 자존감이 없는 학생들은 상담의 시각에서 공감하고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기독교 교수의 역할 수행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완벽한 인생 코치인 예수를 닮은 삶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 및 역할 수행에 대한 Qsorting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에 대한 태도, 신념, 확신, 가치 등과 같은 주관적인 인식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 천안, 원주, 대전에 위치한 국내 대학에 재직중인 기독교 교수들만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국 기독교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기독교대학과 일반대학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상담 코칭 프로그램의 활용과 이해의 폭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기독교 교수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상담 코칭 시각에서 그들의 소명을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추후, 기독교 교수들의 소명과 역할 인식에 대해 상담 코칭의 이해와 적용을 활성화한다면 이에 대한 더욱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기독교 교수 관련 다양한 연구 및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기독교 교수의 소명 인식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상담과 코칭의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안 (2002). 기독교 교수는 누구인가?. 백석기독교학회, **백석저널**, 창간호, 12-13.
- [Kang, Y. A. (1994). Who is Christian professor?, Baekseok Christian Society. *Baekseok Christial Journal*, Spring, 11-45]
- 강용원 (2008). 기독교사: 교육적 소망의 촉진자. **김승수 교수 은퇴기념 논문집**.
- [Kang, Y. W. (2008). Christian Teachers: Facilitators of Educational Hope. *Prof. Seungsoo Kim's Retirement Commemorative Papers*]
- 공명자 (2020). **역할 수행 평가척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Kong, M. J. (2020). *Development of the Role Performance Measurement*, Doctori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길병옥·이소희·이송이·정희정 (202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Kil, B. Y., Lee, S. E., Lee, S. H. & Chung, H. J. (2020). *Theory and application of Q-methodology*.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Cultural Cente]
- 김경미·정희정 (2019). 코칭역량연구에서의 Q방법론적 접근. **코칭연구**, 12(1), 131-146.
- [Kim, K. M. & Jung H. J. (2019). Q methodological approach in coaching competence research. *Journal of Korean Coach Research*. 12(1), 131-146.]
- 김선희 (2003). 루터의 소명사상. **신학과 신앙**, 14, 7-45.
- [Kim, S. H. (2003). A Study on Martin Luther's Concept of Calling, *Theology and faith*, 14, 7-45.]
- 김영완 (2012). 통전적 선교명령과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 **대학과 선교**, 23, 175-205.
- [Kim Y. W. (2012). The Holistic Missional Mandate and Christian Professors' Callings and Roles. *University and mission*, 23, 175-205.]
- 김진이 (2011). 내가 이해한 기독교 세계관과 교수의 소명. 백석대학교 세미나자료.

- [Kim J. E. (2011). The Christian world view I understood and the professor's calling. BaekSeok University Seminar Paper.]
- 김홍규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Kim H. K. (2008). *Q Methodology: Philosophy of Science,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
- 백소영 (2019). 4차 산업혁명시대, '4세대 그리스도인'의 소명. **복음과 상황**, 347, 24-43.
- [Baek S. Y. (2019).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4th generation Christians' calling. *Gospel and Situation*, 347, 24-43.]
- 배응준 역. (2004). **인생코치, 예수**. Laurie, B. J. (2004). *JESUS, Life Coach*. 서울: 규장.
- [Bae, E. J. (2004). *JESUS, Life Coach*. Seoul: kyujang. Trans. Laurie, B. J. (2004). *Jesus, Life Coach*. Nashville: Thomas Nelson Inc.]
- 서우경 (2009a). 크리스천 코칭과 상담의 비교 및 통합적 적용에 대한 효과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33-60.
- [Suh, W. K. (2009a).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Christian Coaching and Counseling, and on the Effect of Integrative Appli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8, 33-60.]
- 서우경 (2009b).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코칭**. 서울: 자유로운 상상.
- [Suh, W. K. (2009b). *Happiness Coaching for Christians*, Seoul: Free Imagination.]
- 서우경 (2010). **기독교 여성리더십의 역할 모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Suh, W. K. (2010). *Role Models for Christian Women's Leadership*,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서우경 (2013). 코치로서의 목회자. **목회와 신학**, 7월호, 74-78.
- [Suh, W. K. (2013). Pastor as coach, *Ministry and Theology*, July, 74-78.]
- 양형주·이규창 역. (2011). **코칭바이블**. Gary, R. C. (2009). *Coaching Bible*. 서울: IVP.
- [Yang, H. J. & Lee, K. C. (2011). *Coaching Bible*. Seoul: IVP. Trans. Gary R. C. (2009). *Christian Coaching*. U.S.A.: NavPress.]
- 연세연합신학대학원 (2022). <http://ysugst.yonsei.ac.kr>.
-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2022). <http://ysugst.yonsei.ac.kr>.]
- 오성주 (2018). 오늘날 과학시대와 기독교교육의 역할과 과제. **신학과 세계**, 93, 197-246.
- [Oh, S. J. (2018). The Role and Task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Theology and the world*, 93, 197-246.]
- 오덕교 (2017). 청교도의 소명 사상: 소명으로서의 직업. **목회와 신학**, 334, 60-65.

- [Oh, D. K. (2017). Vocational Thought of Puritans: Profession as vocation, *Ministry and Theology*, 334, 60-65.]
- 우병훈 (2018). 루터의 소명론 및 직업윤리와 그 현대적 의의. **한국개혁신학회**, 57, 72-132.
- [Woo, B. H. (2018). The Vocational Ethics of Martin Luther and Its Implication for Modern Society, *Korea Reformed Theology*, Vol. 57, 72-132.]
- 유재천·김동규 역. (1995). **매스미디어 연구방법론**. Wimmer, R. D. & Dominick, J. R. (1994). *Mass media research*. 서울: 나남.
- [Yu, J. C. & Kim D. K. (1995). *Mass media research*, Seoul: Na Nam. Trans. Wimmer, R. D. & Dominick, J. R. (1994). *Mass media research*. CA: Wadsworth Pub. Co.]
- 윤은아 (2021). **선교사의 인성과 소명 의식에 대한 목회신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 [Youn, E. A. (2021). *The Pastoral Theological Study Missionary Personality and Vocation*. Doctori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이소희 (2009). 교육, 상담, 복지 영역에서 코칭의 활용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집**, 7-12.
- [Lee, S. H. (2009). A Study on the Use of Coaching in the Fields of Education, Counseling, and Welfare. *Korean Christian Counseling Psychotherapy Conference Proceedings*, 7-12.]
- 이은선 (1992). 루터, 칼빈, 그리고 청교도의 소명사상. **대신대학 論文集**, 12, 395-419.
- [Lee, E. S. (1992). Luther, Calvin, and Puritan's Vocacion Thought, *Daeshin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12, 395-419.]
- 임신일·김은영 (2019). 4차 산업혁명시대 기독교대학 역할에 대한 교수의 인식. **신앙과 학문**, 24(1). 95-121.
- [Lim, S. I. & Kim, E. Y. (2019). A Study of Perceptions of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s about the Role of Christian Universit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aith and Scholarship*, 24(1). 95-121.]
- 장유정·정희정·이제니스 (2021).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관한 주관성 연구. **생명과 말씀**, 제 31권, 266-299.
- [Jang, Y. J., Chung H. J. & Lee Janice (2021).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alling by Christian Professors. *Life and Word*, 31, 266-299.]
- 장종현 (2021).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서울: UCN 출판사.
- [Jang, J. H. (2021).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Seoul: UCN Publishing.]
- 정정길 (2021). 공직자의 소명과 행정학자의 소명. **한국행정포럼**, 172, 6-11.

- [Jung, J. G. (2012). The voc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voc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Korea Administration Forum*, 172, 6-11.]
- 정희정 (2021). 장애인 심리지원을 위한 코칭과 상담의 융합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 고찰 및 Q방법론 적용방안. *코칭연구*, 14(2), 149-169.
- [Chung, H. J. (2021). The Necessity for a Convergent Approach of Coaching and Counseling for Psychological Support for the Disabled: The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14(2), 149-169.]
- 정희정·김경미 (2020). Q방법론을 활용한 코칭역량에 관한 주관성연구. *코칭연구*, 13(1), 29-49.
- [Chung, H. J. & Kim K. (2020). Types of Coaching Competency Perception using Q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13(1), 29-49.]
- 정희정·전재홍·김휘경 (2020). 코칭기법을 적용한 캡스톤디자인 수업경험에 대한 주관성연구. *코칭연구*, 13(2), 53-71.
- [Chung, H. J., Chun, J. H. & Kim, H. K. (2020). A Subjectivity Study on Capstone Design Class Experience Applying a Coaching Skill.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13(2), 53-71.]
- 정봉현 (2014). **캠퍼스선교를 위한 기독교 교수의 역할증대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선교 신학대학원.
- [Jung, B. H. (2014). *A Study on the Role Expansion of Christian Professor for Campus Evangelization in Korea*,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ission and Theology, Jeonju University.]
- 조용훈 (2008). 기독교 교수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15, 197-220.
- [Jo, Y. H. (2008). A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Professor in the Christia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University and mission*, Vol.15, 197-220.]
- 조용훈 (2009). **기독교 대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Jo, Y. H. (2009).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n Presbyterian Church Publishing.]
- 조호연 역. (2000). **기독교적 학문연구@현대 학문세계**, Marsden, G. M. (1998).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서울: IVP.
- [Cho, H. Y. (2000). *Christian Academic Research@Modern University World*, Seoul: IVP. Trans. Marsden, G. M. (1998).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최주훈 (2017) 루터의 직업 소명론. **목회와 신학**, 334, 48-52.
- [Choi, J. H. (2017). Luther's vocational epistemology. *Ministry and Theology*, 334, 48-52.]

- 한국일 (2017). 루터의 소명론에 대한 선교적 해석과 적용. **장신논단**, 49(4), 309-336.
- [Han, K. I. (2017). Missiologic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the Luther's Vocat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 49 No. 4, 309-336.]
- Barg, F. K., Weiner, M. G., Joseph, S., Pandit, K. & Turner, B. J. (2012). Qualitative analysis of peer coaches' experiences with counseling African Americans about reducing heart disease risk. *Journal of General and Internal Medicine*, 27, 167-172.
- Biddle, B. J. (1986). Recent developments in rol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1), 67-92.
- Chung, T. C. (1986). *Media Credibility: A Q-methodology study of audience attitudes toward the news media*. A thesis of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Christiansen, C. H. & Baum, C. M. (2005). The complexity of human occupation. *Occupational therapy: Performance, Participation, and Well-being*, 3, 3-23.
- Dalton, J. C. (2001). Career and calling: Finding a place for the spirit in work and community.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95, 17-25.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 Dik, B. J. & Duffy, R. D. (2012). *Make your job a calling: How the psychology of vocation can change your life at work*. West Conshohocken, PA: Templeton Press.
- Dik, B. J. & Domene, J. F. (2015). The Psychology of Work as a Calling in Christian Context.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34(4), 291-293.
- Duffy, R. D., Allan, B. A., Autin, K. L. & Bott, E. M. (2013).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It's not about having it, it's about living i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 42-52.
- Dunn, W., Brown, C. & McGuigan, A. (1994). The ecology of human performance: A framework for considering the effect of context.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8(7), 595-607.
- Guinness, O. (2006).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Seoul: IVP, 21.
- Haralambos, M. & Holborn, M. (1995). *Sociology: themes and perspectives*. London: Collins Educational.
- Hasker, W. (1992). Faith-learning integration: An overview. *Christian Scholar's Review*, 21(3), 231-248.
- James, A. S. (2009). Faculty Sense of Religious Calling at a Christian University. *Journal of Research on Christian Education*, 18(3), 316-332.

- Kampa, K. S. & Anderson, M. Z. (2001). Executive coach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53(4), 205-228.
- Kielhofner, G. (2008). *Model of human occupation: Theory and application*, (4th ed.). Philadelphia, USA: Lippincott, Williams & Wilkin.
- Mckweon, B. & Thomas, D. (2013). *Q methodology. 2nd ed.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Michalec, P. (2002). A calling to teach: Faith and the spiritual dimensions of teaching, *Education for Meaning and Social Justice*, 15(4), 5-14.
- Richard, W. C. (1994). Calling and Career in Christian Ministr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5(3), 219-237.
- Patrick, W. & Deborah, C. D. (2007). *Therapist as life coach*. NY: W. W. Norton & Company, Inc.
- https://www.yonsei.ac.kr/en_sc/campus/univer_aff4.jsp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 인식: Q분류(Qsorting) 인터뷰자료를 중심으로

Perception of the Christian Professor's Calling and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Coaching: Focusing on Qsorting Interview Data

정 희 정 (백석문화대학교)
서 우 경 (연세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 코칭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독교 교수의 소명에 관한 주관성 연구 중에 실시한 기독교 교수 36명의 Q분류(Qsorting) 인터뷰 자료 중 기독교 교수의 소명, 역할 및 역할 수행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독교 교수는 소명에 대해 기독교 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항상 생각하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 교수는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독교 교수들과 함께 동역하는 '피어 코칭(peer coaching)'의 개념도 갖고 있었다. 또한 제자들과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지고 코치와 피코치의 관계 코칭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에서 연구참여자의 진술문을 보면 상담과 코칭의 통합적 개념이 함께 공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도록 전인적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기독교 교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며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보기와 스승으로서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교수로서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항상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며, 기독교 교수의 소명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성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국 기독교 교수의 역할 수행의 핵심은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인생 코치인 예수를 닮은 삶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 기독교 교수 관련 다양한 연구 및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기독교 교수의 소명 인식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상담과 코칭의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독교, 상담 코칭, 기독교 교수, 소명 및 역할, 역할 인식

초대 기독교인의 전염병 대처와 그 원동력: 키프리아누스 역병을 중심으로*

The First Churches' Response to the Cyprian Plague and its Driving Forces

최혜영 (Hae-Young Choi)**

ABSTRACT

A number of plagues occurred in ancient Rome. Among them, the most damaging epidemic was the Cyprian plague in the third century. The plague could have posed a great threat to Christians: just as Emperor Nero blamed the Great Fire of Rome on Christians, so the cause of the plague could be passed on to Christians. In fact, it was no coincidence that extreme persecution was caused by the emperor Decius when Cyprianus plague was prevalen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overall aspects that the epidemic caused to society, the Christians' response to it, and their attitudes toward death. In conclusion, these epidemic rather helped the spread of Christianity: the loving care and good deeds of Christians for the sick, especially cordial funeral ceremony for the dead, seemed to have moved people. And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for Christians to do loving care despite the risk of death was their view of death, in other words, the belief in the resurrection.

Key words: Roman empire, Christianity, Cyprian plague, loving care, resurrection

* 2022년 8월 12일 접수, 9월 1일 게재확정

** 전남대학교 사학과(Department of Histo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인문관 2호관. chhyy3@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고대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로는 pestilentia, lues, loimos(λοιμός), epidemos(ἐπίδημος) 등이 있었다. 치명적 병을 뜻하는 pestilentia는 페스트의 어원이 되기도 하였으며, ‘민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데모스가 들어간 epidemos 혹은 pandemos 등은 ‘모든 사람에게 유행하는’의 의미인 팬데믹 등의 용어로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여러 용어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고대 로마에는 여러 차례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파괴력이 심했던 것은 3세기 중엽 데키우스 황제 치세에 시작하여 상당 기간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전염병이었다. 이 전염병은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긴 당시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을 따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널리 불린다. 키프리아누스는 “구토 및 설사 증세가 계속하여 온 몸의 힘이 빠지며, 골수에서 비롯된 발열 증세로 온몸 곳곳의 상처는 계속 쏠아갔으며, 출혈 증세, 가끔은 발이나 다른 신체 사지가 떨어져 나가 걸을 수 없거나, 청력과 시력을 잃는다”고 기록하였다(Cyprianus, De Mortalitate, 14).

전염병 발생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병 자체의 위험성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전염병 발발 역시 기독교도 탓으로 전가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키프리아누스 전염병 유행 당시 데키우스 황제에 의한 전 제국적인 차원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에우세비오스의 교회사에는, ‘이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이 같이 여러 재난을 당한 가운데, 기독교도들은 이에 더하여 이교도들이 가한 위해와 재난까지 당해야 했다’라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있던 디오니시우스의 증언이 소개된다(Eusebius, 7.22).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의 유행은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큰 몫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3세기 중엽 로마 제국 시대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키프리아누스 역병을 중심으로,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이 야기한 사회 양상과 이에 대처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당시의 원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전 세계는 COVID-19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영향은 전 세계 문화 지형도를 바꿀 정도로 심대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COVID-19는 교회의 위상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 긍정적인 영향도 찾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이 더욱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이던 로마 제국 당시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팽배했던 사회적 혼돈 속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전염병과 죽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로마 시대의 전염병과 기독교를 다루는 연구는 없지 않지만¹⁾, 이 글은 키프리아누스 역병 및 기독교인의 대처 모습과 그 원동력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구별이 된다.

II. 데키우스 황제 치세기의 전염병과 기독교

1. 전염병 당시의 상황

3세기, 데키우스 황제 시대에 시작된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전염병 가운데서도 치사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당시의 전염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해서는 홍역, 천연두, 팬데믹 인플루엔자 등등 여러 견해가 있는 가운데(이상규, 2020: 42), 이 역병으로 특히 농촌인구가 받은 타격은 심했으며, 로마시의 인명 피해도 심각하여서 하루에 5천 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도 한다(McNeill, 2005: 138 ; Stark, 1996: 772). 『키프리아누스 일대기』를 쓴 폰티우스는 당시의 전염병 유행 상황에 대해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놀라운 파괴력이 각 집마다 파고들어 가서 각 집마다 한 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갑자기 죽어갔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도망하여 전염되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라 전하고 있다(Pontius Carthage, 9). 대체로 전염병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나 전쟁과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더욱 큰 위협이 되게 마련이었다. 데키우스 황제 당시에도 북방에서의 게르만족의 침입도 역병의 발생과 함께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되풀이되어 그다음 세기에 살았던 교회사가 에우세비오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전례 없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다. 또 전쟁에서 로마가 패하면서 재난은 가중되어,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죽어갔다, 한편으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 양식을 사기 위해 재산을 다 팔고도 부족해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거리에는 벌거벗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으며, 개에게 뜯기기도 하였다(Eusebius, 9.8).”

재난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로마 국가적 차원의 전통적인 노력 가운데 당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신들 달래기’ 의식인 ‘수플리카티오네스(supplicationes)’이었다. 이는 로마 역사에 기록된 많

1) 로마 시대의 전염병과 기독교를 다루는 선행 연구로는 이상규, 「로마시대 전염병과 기독교인의 대처」, 『종교문화학보』 제17권 2호(2020), 37-52 ; 이명석, 「초대 교회 공동체의 선교 신학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에 주는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53(2021), 37-168 ; 안희열, 「초대교회 시기의 전염병 창궐에 따른 기독교인의 대응에 관한 평가」, 『선교와 신학』 52(2020), 39-69 등이 있다.

은 전염병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역사가 리비우스는 공화정 기 전염병의 유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를 피하려는 모든 인간적 노력이 허사가 되자 원로원 의원들은 신에게 탄원하도록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모든 신전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전한다(eg. Livius, 3.7.6; 5.13).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별 소용없이 전염병이 이듬해까지 계속되자 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렉티스테르니움(lectisternium)’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렉티스테르니움은 모두가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 천을 두른 신들의 조각상을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음식을 차린 탁자를 대체로 일주일 정도 배설하는 의식으로 전쟁이나 기근 같은 국가의 위기 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플리카티오네스나 렉티스테르니움 등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계속되자 “사람도 신들도 이를 막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연극 공연’까지 도입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최고 국가 원수(딕타토르)를 새롭게 뽑아서 ‘못 박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전염병을 저지하려고도 하였다(Livius, 7.1~3).

즉 이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서 온갖 관습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신들을 달래는” 의식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cf. Livius, 22.10.8). 3세기 중엽,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데키우스 황제 및 그를 이어서 제위에 오른 발렌티우스 황제 역시 “신들을 달래는 방법”에 의존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 제국적인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데키우스 시대의 박해와 관련하여서 리브스(Rives)는 데키우스 칙령이 꼭 기독교도를 겨냥해서 내린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지만(Rives, 1999: 135-154), 황제 숭배가 유일신을 숭배하는 기독교도들에게 큰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였으며, 또 데키우스가 유일신을 믿던 유대교도들을 여러 신들의 숭배 의무에서 제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데키우스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이탈리아 등 로마 제국 전역으로 역병이 퍼져나가는 동시에 북쪽의 게르만족이나 오리엔트 쪽 변경 침입이 극성에 달하게 되자, 전통적 신들을 달래어 이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기독교도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Haas, 1983: 133-144).²⁾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전 로마 제국민들은 이교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였으며,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인 리벨루스(libellus)를 소지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칙령은 배교자나 순교

2) 데키우스가 혹독한 기독교 박해 정책을 펼쳤던 것에 대해서 교회사가 에우세비우스는 데키우스의 전임 황제 (또 데키우스가 죽었던) 필립푸스가 기독교에 온화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상당수 학자들은 이를 근거 없는 것으로 보지만, 당시의 관행을 생각해보면 꼭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위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의지하는 일종의 ‘수호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던 시기에는 이교신과 기독교의 갈등으로 드러나기 쉬웠는데, 312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의 일화가 그 예이다. 이는 이후의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갈등에서도 이어지는데, 리키니우스는 원래 기독교에 우호적이었지만, 콘스탄티누스와 싸우면서는 이교신 유피테르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독교도를 박해하기에 이른다. 특히 율리아누스 황제와 콘스탄티우스 2세의 갈등에서 이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콘스탄티우스 2세에 대항하여 이교신의 도움을 힘입어서 자신이 승리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4세기 말까지 이어졌다.

자를 양산하기 마련이었다(Potter, 2004: 241). 당시의 대표적인 순교자로서는 로마 주교 식스투스
와 여러 사제들, 아프리카의 주교 테오게네스, 아가피우스 세쿤디우스 등이 있었으며, 데키우스 황
제 때는 박해를 피했던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아누스도 다음 발렌티우스 황제 박해 때 순교하였다
(Cyprianus, Epistulae 76-81; Eusebius, 7.10-12).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혹은 향락주의에 빠지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데키우스 황제 당시의 전염병이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폰티우스는 사람들이 “죽게
될 사람을 내버리면 죽음 자체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친구들까지 매정하게 내쳤다. 도시에는 시체
가 즐비하였으며, 아무도 자신의 잔인한 이익 외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도 남이 자신에게 해주
었으면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다(Pontius Carthage, 9).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알렉
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의 증상이 시작된 사람들을
내쫓았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버렸다.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길에 내다버렸고 사체를 쓰
레기처럼 대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죽음을 피하려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 죽음의 전염병을 피하기
는 어려웠다”라고 증언하고 있다(Eusebius, 7.22).

이러한 상황은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 아테네에서 창궐하였던 전염병이 초래한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 바를 이렇게
증언한 바 있었다.

전염병이 유행하자 의사들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다른 기술도 소용이 없었다. 신
전이나 신탁에 호소도 하였으나 이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므로 속수무책으로 환난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말로 묘사하기 힘든 이 가혹한 전염병은 체력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두의 목숨
을 앗아갔다. 가장 큰 고통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곧 절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고 낙담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이 큰 파국을 초래했다. 겁이 나서 병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도
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고, 시체가 이곳저곳에 널려있었으며 성소에도 죽은 시신들로 가득 찼다.
그 결과 신성과 세속적 경건함이 다 무시당했다. 또 더 큰 다른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사람들
이 삶과 부가 다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즉흥적 환락, 순간의 쾌락을 좇고 유용한 것으로 여겼
다는 점이다(Thucydides, 2. 47 ff.).

2. 기독교인들의 대처

극심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친한

이들의 시신도 방치하든가 순간적 향락에 빠져들었다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전한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업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해서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즉 죽었다는 의미)(Eusebius, 7.22).

카르타고의 폰티우스 역시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병자는 친구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아무도 자신의 잔인한 이익 외에는 돌아보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기독교인들만큼은 사랑을 베풀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독려하면서 스스로 사랑을 베푸는 일에 뛰어들어, 자신을 박해한 자들까지도 사랑하면서 병자들은 물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까지 보살피고 죽게 되면 장례 의식까지 치러주었다는 것이다(Pontius Carthage, 9).

이러한 수고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키프리아누스보다 살짝 늦은 시기인 3세기 후반에 활동하였던 기독교 문필가 락탄티우스는 정의와 덕을 논하는 글에서, 고아와 과부 및 아픈 자들을 돕고 돌보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경건’은 바로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주검을 매장하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락탄티우스는 타인의 주검을 경건하게 마무리해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그들 나름의 정의와 덕을 부르짖던 로마 시대의 문필가나 철학자들, 예컨대 키케로 같은 이들이 전혀 손대지 못한 영역, 그들의 사상과 기독교 사이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 비교 설명하고 있다(Lactantius, 6.12). 실제로 전염병 유행기의 많은 비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은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리고 피하는 데 비해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자들을 돌보고 죽으면 정성껏 매장까지 해주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4세기에 다시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열심과 경건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히 드러났다. 오직 그들만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간성과 동정심을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종일 죽은 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체들이 무수했기 때

문이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굶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이 사람들만이 진정 경건한 사람이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Eusebius, 9.8).”라는 것이다. 기독교를 혐오하면서 그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던 4세기 황제 율리아누스로서도 기독교의 이런 선행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의 장례 의식을 낮에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칙령까지 내린 적 있다. 기독교인의 경건한 장례 의식,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렸던 조치였다. 또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교도 사제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즉 기독교도들)’은 인간애(φιλανθρωπία, 필란트로피아)를 실천하면서 자신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물론 이교도들 가운데 불쌍한 자들도 돕는다고 하면서,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도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본받아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eg. Fragmentum Epistolae. 305 B-C).

이러한 선행은 유대인들과도 달랐다. 유대인들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선이 주로 자신들 공동체 안에 머물렀던 데 비해서, 기독교인들의 선행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모르는 이웃에게까지 퍼져갔기 때문이었다. 이는 후기 문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호 집단들인 파라발라니(parabalani, 혹은 parabalaneis παραβαλανεῖς), 혹은 파라볼로이(παράβολοι), 필로킨디노이(philokindynoi, φιλοκίνδυνοι), 필로포노이(philoponoι, φιλόπονοι), 스푸다이오이(spoudaioi, σπουδαῖοι)라 불리는 사람들의 원형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파라발라니나 필로킨디노이 등은 문자 그대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며, 필로포노이는 ‘고된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스푸다이오이는 ‘열심인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모든 단어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거나 고된 일을 감내하거나, 그런 고난과 고통을 사랑하기까지 하며 성실과 열정을 다해서 돌보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파라발라니는 파라발로(παράβαλλω)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테오도시우스 법전 및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도 나오는 이 단어는 ‘병든 자를 돕는 이들’을 의미하였다(Theodosian Code, 16.2.43). 이들은 목욕장 시종인, 간호인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필립스본(A. Philipsborn)은 파라발라니가 오늘날 앰블런스 대원, 혹은 의료보조인과 가까웠을 것으로 보았다. 필로포노이에 대해서는 <세베루스의 생애>를 쓴 스가랴(Zacharias)가 언급하는데, 여기서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나온다. 소프로니우스(Sophronius)는 이들이 파라발라니처럼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친 이들이라 말하였다. 스푸다이오이(σπουδαῖοι)는

‘함께 하다’, ‘붙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이는 신약성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12:9)의 “선에 붙어있으라(κολλώμενοι τῷ ἀγαθῷ)고 할 때 쓰였던 콜로메노이(κολλώμενοι)라는 단어, 혹은 고린도 전서(6:17)의 “주께 붙어있으라(κολλώμενος τῷ Κυρίῳ)”와 통하는 단어로 보인다(Bowersock, 45-54).

이러한 수고의 전통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스타크(R. Stark)는 전염병에 대한 이러한 기독교인의 대처가 기독교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으며, 시게리스트(H. Sigerist)는 기독교는 아픈 이들을 향한 사회적 태도에 가장 혁명적이며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고찰한 바 있다(Ferngren, 2011: 재인용).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와 그의 사제들은 그들의 주교지에서 매일 200~3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정도였다(Cartwright & Biddis, 2004: 47). 그란트(R. M. Grant)는 2세기 말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를 6천만 명 정도, 로마시 인구를 7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7천 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후로 기독교인의 수는 10년마다 40%씩 증가해서 4세기 중엽에는 3천만 명 이상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Grant, 1977: 6 ; cf. Stark, 1996: 10, 74). 물론 이러한 수치는 정확한 것이 되지 못하며, 특히 4세기 중엽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는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종으로 인한 영향이 아주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3세기 이후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던 것은 사실인데, 이는 키프리아누스 역병 등과 같은 자신과 이웃의 고난에 대한 기독교인의 헌신적 대처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특기할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날 개념의 병원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스 로마의 대다수의 이교도들은 병들게 되면 당시 의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우스나 아폴론 신 등에게 의지하였고, 오늘날의 병원 비슷한 역할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등이 맡고 있었다. 병자들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머물면서 오늘날로 치면 음악치료, 연극치료, 특히 꿈에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이 나타나서 처방전을 알려주는 수면치료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전한다.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병이 나은 이들이 바친 많은 봉헌물이 오늘날까지 전한다. 그런데 이들 신전은 일시적 치료를 위한 시설에 가까웠고, 중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병자들을 정성껏 간호하다가 죽으면 그 시신까지 정성껏 매장해주는 과정에서 병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시설을 탄생, 발전시키게 되었다. 브라운(P. Brown)은 기독교인들의 가난한 자와 병자를 함께 돌보는 시설(poorhouse-cum-hospital)은 고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시설이었다고 평가하였다(Brown, 2002: 34). 즉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 크세노도케이아(Ksenodocheia. ξενοδοχεῖα, 나그네를 위한 집), 프톡케이아(Ptocheia. πτωχεῖα, 가난

한 자들을 위한 집), 노소코메이아(Nosokomeia. νοσοκομεία, 아픈 자들을 위한 집) 등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개념의 병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밀러(T. Miller)가 기독교가 (동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병원 시설을 창조하였다고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을 것이다(Miller, 1985: 50). 현재 그리스어로도 병원을 가르키는 말은 ‘노소코모스(νοσοκόμος)’이다.

III. 전염병에 대처한 기독교인들의 원동력

4세기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특히 세 가지 두려움, 즉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timor mortis)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Augustinus, Soliloquia, 1.16). 전염병은 이 모든 두려움이 수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일쑤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특히 전염병이라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시각, 즉 부활과 관련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1. 사랑과 기쁨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까지, 그리스 로마인들의 전통적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덕목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었다. 무엇보다도 이교적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물론 신들도 각자의 총애하는 인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 신이 좋아하던 인간을 버리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예를 들어서 『일리아스』에서 아폴론 신은 자신이 좋아하던 영웅 헥토르의 죽음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으며, 아프로디테 여신은 총애하던 파리스의 죽음을,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히폴리토스』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히폴리토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일종의 수호 정령 ‘게니우스’ 역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수호하던 사람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는 인간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으로 비추어지기 쉬웠다(Aristoteles, Magna Moralia 1208 B 30). 또한 로마 시대 지식인을 사로잡았던 스토아 철학의 최상 가치는 아파테이아, 즉 감정에서 초월하는 것이었다. 스토아 철학에서 동정이나 공허함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두려움과 욕망과 더불어 피해야 할 것, ‘영혼의 질병(morbos animi)’으로까지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과 공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인간 편으로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자 덕목이었던 것이다. 초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가”라는 말을 이웃에게 듣는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미움으로 가득한데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또 기독교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난 헌금을 하여 이를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아와 가난한 노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온갖 어려움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돕는 사람들’, 혹은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로 불리었다고 전한다(Tertullianus, De Patientia. 39).

교부 이그나티우스 역시 ‘기독교인의 시작은 믿음이고 그 끝은 사랑’이라고 하였으며(Ignatius, 3. 14),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은 영혼의 손’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하였다(Augustinus, Sermo, 125). 기독교 변증가 아리스티데스는 기독교인들은 하인들까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독교인이 될 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되면 형제라 부르고 서로 사랑하며, 나그네를 진정한 형제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데려다 돌보는데, 육신적 혈연의 형제가 아니라 영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가난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도 넉넉하지 않다면 이틀이나 사흘간 금식하여 음식을 마련하여 주는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인 것이다(Laistner, 1967: 26-27 ; Hengel, 1974: 42-43). 여기서 로마 제국, 초대 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에 관한 비슷한 예를 일일이 열거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큰 기쁨 가운데 행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초대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언급이 곳곳에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유행하던 당시의 디오니시우스 주교도 기독교인들은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전염병의 공격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수업’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2. 부활에 대한 믿음

이상에서 로마 제국 당시의 여타 종교에서나 철학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덕목이었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두드러졌던 사랑, 공휼, 기쁨 등의 덕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 임박한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당시 전통종교나 철학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도행전> 및 초대 순교자들 관련 문헌에서 두드러지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및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믿음이였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죽음보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특기할 사실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경험이 보다 일상적인 것으로서, 중요한 신앙의 토대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죽음에서의 부활 사상은 당시 로마의 보통 지성인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개념에 속하였다. 물론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분명 죽음 앞에 용맹스러웠던 이들도 있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들과 기독교인의 죽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de Civitate Dei 5.13~14). 로마의 영웅들이 ‘인간의 칭송에 대한 사랑(amor humanae laudis)’ 때문에 죽음을 택했다면, 기독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amor veritatis)’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죽음 너머의 부활에 대한 것은 비기독교인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기독교 반박문』을 썼던 이교 사상가 켈수스(Celsus)가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극도에 달한다고 비판하였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현재로 소문났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음은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에서 극에 달한다고 여겼다. 로마 최대의 문필가 키케로(Cicero)는 신들에 대한 경건함, 신앙의 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 자기의 딸 툴리아가 죽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토로하면서 보낸 편지(Cicero, 12)에서는 죽은 뒤의 삶에 대한 소망이나 종교적 신념 등은 찾을 수가 없다. 키케로는 로마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에서는 비슷하거나 열등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종교(religio)’, 즉 ‘신들에 대한 숭배(cultu deorum)’에 관한 한은 가장 우수하다면서, 로마 종교에 큰 자부심을 보이고 있지만(de Natura Deorum. 2.3; de Haruspicum Responso. 19), 그런 것은 공적인 외교적 발언에 가깝고 실제의 믿음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 “죽음에서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자 소망”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없앤다면 모든 기독교 교리는 흔들거릴 것”이며, “육체는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며, 흠, 부족함, 죽음 없이 새로 살아날 것”이라 하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Augustinus, Sermo, 361.2).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은 지상의 삶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사라져가는 현재의 삶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것이라면 멸망하지 않을 저곳의 삶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Augustinus, Sermo, 344.3-4).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선언한다(cf. Morgan-Wynne, 1984:

173). 2세기 리옹에서 순교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삶이란 죽음이며, 죽음은 승리이며, 영원한 삶을 의미하였다. 역시 순교로 삶을 마감했던 에베소의 주교 폴리카르포스는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찌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였다. 즉 이들은 죽음과 고통에 직면하였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만약 내가 고난당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속박 가운데 있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을 것을 배웁니다... 나는 찌어질 양식이나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구합니다. 그리고 찌지 아니하는 사랑의 음료인 그리스도의 피를 구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Ignatius, 4). 기원전 2세기 초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죽음을 선고받지만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리스티데스는 “믿는 누군가가 죽으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가 마치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의 주검을 뒤따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릴 때 죽으면 죄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껏 찬양한다.”라고 고백한다. 테르툴리아누스 역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부활이 있으므로 죽음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아무도 죽음으로 슬퍼해서는 안 되는데, 삶에는 고통과 위험이 있지만 죽음 안에서는 평화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미래의 약속된 보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변한 바 있었다(Tertullianus, De Patientia. 9.2-3).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당시 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온갖 불이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부활에 대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강한 믿음은 현대 기독교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까지 보인다.

3. 키프리아누스의 죽음과 부활관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여기서는 3세기 전염병의 유행과 박해의 한가운데 살았던 키프리아누스의 글 『죽음에 대해서』(De Mortalitate)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키프리아누스가 전염병 확산의 상황에서 쓴 이 글에서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이제 전염병이 있다. 전염병은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격하여 모두 죽어간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는 달라진다. 우리의 몸은 첫 번째 탄생으로 같은 육체를 가지므로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세상 사람들과 육체적으로 동등하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달라진다. 영혼에 있어서 갈라지기 때문인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멸망할 것이 불멸함을 입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Cyprianus, De Mortalitate 8).

키프리아누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권면한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신 바 있었고, 바울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살전 4:13).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요 11:25)”라고 말씀하였던 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덧, 육체의 죄와 악과 고통, 악마의 계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의 기쁨,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이다(Cyprianus, De Mortalitate, 7. 21).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영원한 삶에 들어가지 못한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처소에 자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신성한 것에 이미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이 세상의 폭풍이나 돌풍, 어떤 흔들림에도 떨지 말아야한다.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며,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셨다. 이 세상의 사라짐과 함께 삶의 보상, 영원한 구원의 기쁨, 잃어버린 낙원을 소유함 등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하늘의 일들, 위대한 것들, 영원한 것들이 지상, 작은 일, 없어질 것들을 대신하여 자리를 차지할 것이므로 걱정과 외로움이 있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Cyprianus, De Mortalitate, 2). 아기로 오셨던 구세주의 탄생을 보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시몬처럼, 우리도 죽고 난 다음 영생과 우리 집과 영원한 안전을 얻게 될 것이다(Cyprianus, De Mortalitate, 3).

그러면서 그는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사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명백하게 말한다. 소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후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들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둘째 죽음으로 옮겨질 사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원히 타는 불길로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은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한다(Cyprianus, De Mortalitate, 7, 15). 그는 오히려 빠른 죽음으로써 영원한 기쁨을 주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어서 빨리 가자. 모두가 기다리는 곳으로”라고 권면한다(Cyprianus, De Mortalitate, 20, 26). 실제로 키프리아누스는 그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을 ‘여행자’처럼, ‘항해자’처럼, ‘손님’처럼, ‘이방인’

처럼 살면서, 데키우스 황제 당시는 (이곳에서 박해를 하면 저곳으로 피하라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박해를 피해 피신하였다가,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로인 순교로 삶을 마쳤다.

IV. 나가는 말

고대 로마 당시에는 많은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가장 피해가 컸던 전염병은 3세기 중엽,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이른바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유행하였던 당시의 황제 데키우스에 의하여 전 제국적인 극도의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 글은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야기한 사회의 전반적 양상과 이에 대처한 기독교인들의 모습, 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과 특히 죽음에 대한 의연한 태도, 그 원동력 등을 당시의 원 사료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였다.

로마 제국 당시에 만연했던 전염병은 단기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의 수난을 가져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자들을 향한 보살핌과 선행, 특히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을 성의껏 매장해주는 행위 등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과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특히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 교회가 성장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4세기 전반까지도 지속되던 이러한 교회의 역동적 모습은 4세기 말 경이 되면 원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급속하게 변질되어 갔다. 가장 단적인 예로서는 앞에서 전염병 등의 상황에서 죽음을 무릎 쓰고 봉사했던 기독교도들을 지칭하던 ‘파라발라니(parabalani)’를 들 수 있다. 이들은 5세기 초에는 마치 광신적 폭도처럼 변하게 되어서 이교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변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즈음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오려 애쓰던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가 점차 거대한 이익 집단과 권력 집단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의 외형이 커지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온갖 비리가 난무

한다고 교회 안팎으로부터 비난 받는 요즘이기 때문이다.

나가면서, 전염병이 난무하던 상황에서의 초대 기독교인의 대처 모습이나 평판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는 큰 대조가 된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의 COVID-19의 유행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이 더욱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시점에서 초대 교회가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보여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부활에 대한 믿음 등은 다시 바르게 이해되고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초대 교회의 영성과 가치를 되살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덕목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고대 로마 제국, 초대 교회 당시의 사례를 교사로 삼아서 전염병의 위기를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인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훈 역. (2004). **질병의 역사**, Cartwright F. F. & Biddis, M. (1991). *Disease & History*. 서울: 가람기획.
- [Kim, H. (2004). *Disease & History*. Seoul: Garam Giheok. Trans. Cartwright F. F. & Biddis, M. (1991). *Disease & History*. NY: Dorset Press.]
- 김우영 역. (2005). **전염병의 세계사**. McNeill, W. H. (1976). *Plagues and Peoples*. 서울: 이산.
- [Kim, Y. Y. (2005). McNeill, W. H. (1976). *Plagues and Peoples*. Seoul: Isan. Trans. McNeill, W. H. (1976). *Plagues and Peoples*. NY: Anchor Press.]
- 이명석 (2021). 초대 교회 공동체의 선교 신학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에 주는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53, 37-168.
- [Lee, M. S. (2021). The Missional Theology of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s Missional Implication to the Korean Church in the Era of COVID-19, *Gospel and Evangelism*, 53, 37-168.]
- 이상규 (2020). 로마시대 전염병과 기독교인의 대처, **종교문화학보**, 17(2), 37-52.
- [Lee, S. G. (2020). Pandemic disease in the Roman Empire and Christian Response. *The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17(2), 37-52.]
- Brown, P. (2002). *Poverty and Leadership in the Later Roman Empire*. London: University

- Press of New England.
- Grant, R. M. (1977). *Early Christianity and Society*.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Haas, C. J. (1983). Imperial Religious Policy and Valerian's Persecution of the Church, AD 257-260. *Church History*, 52(3), 133-144.
- Laistner, M. L. (1967). *Christianity and Pagan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engel, M. (1974). *Property and Riches in the Early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Miller, T. S. (1985). *The Birth of the Hospital in the Byzantine Empir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rgan-Wynne, J. E. (1984).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Experience in Justin Martyr. *Vigiliae Christianae* 38, 172-177.
- Potter, D. S. (2004). *The Roman Empire at Bay AD 180-395*. London: Routledge.
- Rives, J. B. (1999). The Decree of Decius and the Religion of Empire,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89, 135-154.
- Stark, R. (1996). *The Rise of Christian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Aristoteles, *Magna Moralia*. https://archive.org/stream/magnamoralia00arisuoft/magnamoralia00arisuoft_djvu.txt. (검색일 2022. 08.05)
- Augustinus. *Sermo*.
<https://wesleyscholar.com/wp-content/uploads/2019/04/Augustine-Sermons-341-400.pdf>. (검색일 2022. 08.05)
- Augustinus. *Soliloquia*.
https://en.wikisource.org/wiki/Nicene_and_Post-Nicene_Fathers:_Series_I/Volume_VII/Two_Books_of_Soliloquies/Book_I. (검색일 2022. 08.05)
- Augustinus. *de Civitate Dei*.
https://la.wikisource.org/wiki/De_civitate_Dei/Liber_V. (검색일 2022. 08.05)
- Cicero, *Epistulae ad Atticum*.
<https://www.gutenberg.org/files/51403/51403-h/51403-h.htm>. (검색일 2022. 08.05)
- Cicero, *de Natura Deorum*.
<https://oll.libertyfund.org/title/cicero-on-the-nature-of-the-gods>. (검색일 2022. 08.05)
- Cicero, *de Haruspicum Responso*.
<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Cic.+Har.+19&fromdoc=Perseus%3Atext%3A1999.02.0020>. (검색일 2022. 08.05)

Cyprianus. *De Mortalitate*.

[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00-0258,_Cyprianus_Carthaginensis,_Liber_de_Mortalitate_\[Schaff\],_EN.pdf](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00-0258,_Cyprianus_Carthaginensis,_Liber_de_Mortalitate_[Schaff],_EN.pdf). (검색일 2022. 08.05)

Cyprianus. *Epistulae*.

[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00-0258,_Cyprianus_Carthaginensis,_Epistolae_\[Schaff\],_EN.pdf](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00-0258,_Cyprianus_Carthaginensis,_Epistolae_[Schaff],_EN.pdf). (검색일 2022. 08.05)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65-0339,_Eusebius_Caesariensis,_Historia_ecclesiastica_\[Schaff\],_EN.pdf](http://www.documentacatholicaomnia.eu/03d/0265-0339,_Eusebius_Caesariensis,_Historia_ecclesiastica_[Schaff],_EN.pdf). (검색일 2022. 08.05)

Ignatius. *Epistole pros tous Ephesious*.

<https://www.newadvent.org/fathers/0104.htm>. (검색일 2022. 08.05)

Julianus, *Fragmentum Epistolae*.

<https://www.gutenberg.org/files/48768/48768-h/48768-h.html#toc21>. (검색일 2022. 08.05)

Lactantius. *Institutiones Divinae*.

<https://www.newadvent.org/fathers/07016.htm>. (검색일 2022. 08.05)

Livius. *ab Urbe Condita*.

<https://www.gutenberg.org/files/19725/19725-h/19725-h.htm>. (검색일 2022. 08.05)

Pontius Carthage. *Vita et Passio Cypriani*.

<https://www.newadvent.org/fathers/0505.htm>. (검색일 2022. 08.05)

Tertullianus. *De Patientia*.

https://www.tertullian.org/anf/anf03/anf03-56.htm#P12312_3443182. (검색일 2022. 08.05)

Thucydides. *Historiai*.

<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3Atext%3A1999.01.0247%3Abook%3D2%3Achapter%3D47>. (검색일 2022. 08.05)

Bowersock, G. Parabalani: A Terrorist Charity in Late Antiquity, 45-54. <https://journals.openedition.org/anabases/1061>. (검색일 2022. 08.05)

Ferngren, G. B. (2011). A New Era in Roman Healthcare. *Christian History* 101. (<https://christianhistoryinstitute.org/magazine/article/new-era-in-roman-healthcare>). (검색일 2022. 08.05)

초대 기독교인의 전염병 대처와 그 원동력: 키프리아누스 역병을 중심으로*

The First Churches' Response to the Cyprian Plague and its Driving Forces

최혜영 (전남대학교)

논문초록

로마 제국 당시에는 많은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전염병은 3세기 중엽에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이른바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유행하였던 당시의 황제 데키우스에 의하여 전 제국적인 극도의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본고는 3세기 중엽 초대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야기한 전반적 양상과 이에 대처한 기독교인의 모습,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을 당시의 원 사료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은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자들을 향한 보살핌과 선행, 특히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을 성의껏 매장해주는 행위 등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 한 마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 교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날 Covid-19라는 전염병 위기를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로마 제국, 기독교, 키프리아누스 역병, 사랑의 돌봄, 부활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Ministry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North Korean Refugees

김주경 (Jookyung Kim)**

손병덕 (Byoungduk Sohn)***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ministry experiences of ministers practicing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proposed by Strauss & Corbin (1998).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16 ministers currently practicing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collection of research data was organized through 1:1 in-depth interviews, and analysis was performed in the order of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The ministry experience process of the study participants was changed into a ministry start stage, a stage of disappointment and exhaustion, a stage of re-illumination, a stage of recharging, and a stage of growth and sanctificatio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collective exclusion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s and ministers, the support of colleagues and communities, the financ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ministry, a support for the ministry, an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ere discussed, proposing a practical suggestion on Christian social welfare.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Christian social welfare, ministers, ministry experience, grounded theory study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7일 최종수정, 9월 7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저자의 2021년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신학과 기독교사회복지학전공 박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jookyung858@hanmail.net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bdsohn@csu.ac.kr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계속 증가해왔다. 통일부(2020)에 따르면,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3,670명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입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3,000명 가까이 되었으며, 2012년을 기점으로 입국자 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매년 1,000여명 이상이 꾸준히 입국해왔다. 2019년까지 그야말로 21세기 네오-엑소더스(Neo-Exodus)라 할 정도로(양민숙, 2018)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이 이어졌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가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제공, 취업 알선, 학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부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등과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주택을 알선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정부는「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롭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도 다양하다. 지역복지관이나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담, 교육, 주민교류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통일부, 2020).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28,652명 중 표본 3,000명을 대상으로 정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74.2%가 ‘남한생활에 만족함’이라고 답변을 했으나, 주요 정착지표는 일반 국민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재북 당시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70% 정도이고 직업은 무직·부양과 노동자가 88%를 차지하고 있으며(조영기 외, 2011), 남북 통합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6.2%이다(남북하나재단, 2019).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으며, 단순 노동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늘 고용불안이 있고 이직이 잦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시선은 ‘동포’, ‘한민족’, ‘북한 사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자’, ‘남한 사람과 다른 사람’, ‘친밀하지만 가족으로 맞이하기는 어려운 자’ 등 수많은 정체성으로 읽혀지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종종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만들기도 한다(전주람·신윤정, 201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언어의 이질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의 외래어 사용, 한자어의 상용화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그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일상용어에 영어가 섞여 있는 외래어에 대한 것이다(정인수, 2009). 이 외에도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치관의 혼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은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Bemark, et. al., 2003 ; Yeh, 2003 ; Nwadiora & McAdoo, 1996).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2016년 7.95%, 2017년 8.78%, 2018년 15.47%으로 치솟았다(통일부, 2019).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22)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적 정신건강 문제로서 진료가 필요한 집단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군이 56%에 달하고, 자살 고위험군도 25%에 이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자살하여 일반 국민 자살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험한 사회적 장정(양민숙, 2018)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요소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안석(2018)은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두고 온 부모 형제 때문에 항상 죄책감과 괴로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혜경(2015)은 북한에서 대체 종교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통해 형성된 북한이탈주민의 이념을 해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과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이빌립(2017)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담자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우리와 동등한 인격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남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공감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공감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을 흘렸다는 부분이 있는데(눅 19:41, 요 11:35, 히 5:7), 예수 그리스도는 아파하는 이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축복해 주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힘든 탈북과정을 통해 대부분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로 국내에 입국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는 일일 것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독교 사회복지¹⁾를 실천해 오고 있는 교회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몇몇 대형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사역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와 선교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점점 확산되었다. 이러한 교회와 단체에 속한 사역자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진정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자녀교육, 취업, 장학지원 등 다방면에서 그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예배, 제자훈련 등의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며 영적인 성장도 돕고 있다. 사역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함께 신앙교육을 병행하면서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이 있는 전인 구원(이재서, 2013)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폐쇄적이고 억압받는 북한 사회의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경험했던 고난으로 상처가 많아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며,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오고 있다. 북한이탈여성과 남성,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의 적응과 정착에 관한 연구들(백남설, 2018 ; 조민희, 2019 등)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들(최은석, 2018 ; 한명진, 2020 등)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취업과 직업에 관한 연구들(신문희, 2020 등)도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이상주, 2016),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안상훈, 2020)도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과 기독교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는 한국교회의 과제와 역할에 대한 연구(고재길, 2017), 한국교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이지성, 2019) 등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남한 사회 적응, 정착과 관련된 연구이며,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선교와 통일준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며 기

1) 기독교 사회복지란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원리와 정신에 따라 인간의 삶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영위되도록 도모하는 모든 노력이며 이는 기독교에 의해 전개되는 사랑실천, 사회봉사, 구제사업, 교회사회사업 등 모든 유사 개념들을 다 포함한 의미이다(이재서, 2013).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일자리 사역 등의 유형이 포함되었다.

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경의 가르침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사역경험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 치유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개선과 사회 인식 개선 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사역자에 대한 교회와 교계의 이해와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일반 성도도 포함된다(교회용어사전, 2013).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자란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북한선교 전문 간사, 북한선교 전문 목회자 사모로 일반 성도와 구분되는 사역자로 사역자의 범위를 한정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경험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경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자의 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Glaser & Strauss(1967)가 언급한대로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그 사회 구성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해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이론적 구조로 정리 및 제시하며, 이렇게 도출된 이론은 다시 삶의 현상을 이해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펼치는 사역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들여다봄으로써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경험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사역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근거이론 연구방법이 본 연구의 특성과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역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 위해 ‘비확률표본추출’(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 중 ‘유의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유의표본추출 방법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즉 대표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손병덕 외, 2010).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사역경험에 대한 연구로써 사역자의 범위가 넓고 광범위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첫째,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최소 3년 이상 북한이탈주민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한국 교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교회나 단체에 속한 목사, 전도사, 선교사, 북한선교 전문 간사, 북한선교 전문 목회자 사모로 일반 성도와는 구분되는 사역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사역의 형태(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의 종류를 포함한다. 또한 표집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 및 간사와 선교사로부터 17명의 사역자를 추천받았으며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1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60대가 4명, 50대가 3명, 40대가 5명, 30대가 4명으로 평균 연령이 50세이다. 대부분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사역을 한 기간은 3년부터 25년까지이다. 사역의 형태는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학사운영 사역, NGO 사역, 아동센터, 일자리 사역 등이다. 국내정착 사역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정부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주거, 취업,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아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이며, 돌봄 사역은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에 직접 찾아가거나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처럼 돌보거나 공공시설, 대중교통 이용 등 소소한 모든 일상을 도우며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학사운영 사역은 탈북청년과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사역을 말한다. NGO 사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연결하여 탈북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가지도록 돕거나, 병원과 연결하여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이나 질병 치료와 같은 의료지원을 돕는 등 재단이나 기관과 연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과 정착을 돕는 사역이다. 그 외 아동센터나 아동양육시설은 기존의 사회복지 아동센터 혹은 시설과 유사하며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차이점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는 일자리 사역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만)	직업	학력	사역 기간	사역 형태
연구 참여자 1	여	65세	선교사	대학원졸	20년	학사운영,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2	남	63세	선교사	대학원졸	11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3	남	50세	목사	대학원졸	15년	국내정착 사역, 아동센터, 푸드뱅크 사역
연구 참여자 4	여	57세	전도사	대학원졸	10년	학사운영,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5	남	49세	목사	대학원졸	15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6	남	49세	목사	대학원졸	25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7	여	66세	선교사	대학원졸	13년	구출 및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8	남	45세	목사	대학원졸	10년	구출 및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9	남	39세	목사	대학원졸	12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NGO 사역
연구 참여자 10	여	56세	간사	대학졸	8년	구출 및 국내정착 사역
연구 참여자 11	남	39세	목사	대학원졸	3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12	남	38세	목사	대학원졸	13년	일자리 사역, 성경 사역
연구 참여자 13	남	39세	목사	대학원졸	10년	국내정착 사역,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14	남	47세	선교사	대학원졸	4년	상담, 취업, 돌봄 사역
연구 참여자 15	여	61세	목회자 사모	대학졸	7년	국내정착 사역, 아동양육시설 운영
연구 참여자 16	남	47세	목사	대학원졸	10년	NGO 사역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한 자료수집이 7월부터 9월까지 있었다. 심층면담은 최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각 연구 참여자와 1회~3회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소요시간은 1회당 평균 90분~120분이었다. 심층면담 시 질문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여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게 된 동기부터 사역의 과정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주로 교회 내 소그룹방 등의 조용하고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이후 더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전화나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으며, 중요한 단어나 문장은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 간 새로운 속성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상태(Theoretical Satura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는 24시간 내에 축어록을 전사하였으며, 전사한 자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요 코드를 추출하고 구체화하였다.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순서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순서로 진행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성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다. 연구자는 Padgett(1998)이 제시한 대로 연구 참여자들과 일 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며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본 연구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사역현장에 수차례 방문을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억압 속에 살았고, 탈북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상처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무력감,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결핍이 많은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본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동료지지집단의 활용이다. 동료지지집단은 연구자의 편견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독단을 제어하는데 기여하는 것(Lincoln & Guba, 1985)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사회복지 박사과정 지도교수 1인과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박사 1인, 질적 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1인, 북한이탈주민 사역자 1인으로 동료지지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자료를 개념화,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동료지지집단의 자문을 받았다. 셋째,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 수행 시 애매모호하거나 기술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을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그들에게 확인을 하는 것(Padgett, 1998)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내용과 관련하여 공개의 정도 등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을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 사역 내용은 기술하였으나, 그 외 성명, 거주지 등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모두 익명으로

표기될 것이다. 둘째, 연구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사역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다. 셋째, 면담의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자료들은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파괴될 것이다.

III. 연구결과

1. 개방 코딩(open coding)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한 원자료(Raw Data)를 줄 단위 분석(line by line analyse)을 하여 개념을 도출하였고, 개념을 다시 공통성, 유사성, 인과성 차원에서 재결집하여 개념보다 좀 더 추상화된 언어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으며, 다시 공속성, 추상적 수준으로 통합하여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범주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현상(phenomen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action/reaction), 결과(consequence)의 패러다임에 따라 참여자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개방 코딩에서 구성된 개념, 하위범주, 범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The Results of Categorization of Data

패러다임	범 주	하위 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처절한 생존의 삶 옆에 서기	고난으로 물든 삶의 토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남한에서는 한 번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경험들로 인해 당황함 궁금한 것이 많지만 그들의 상처를 건드릴까봐 질문하는 것도 조심하게 됨
		부적응에 대한 구조적 차원의 이해	늘 서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는 공격성이 강함 소그룹모임을 하려고 하면 “각”하고 소리를 내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며 가만히 있지 못함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	어느 날 갑자기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이들로 인해 상처를 받음 친정엄마처럼 잘 해주었으나 어느 날 말도 없이 떠나는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낌
		느린 성장으로 인한 조바심	사역에 온 힘을 쏟지만 그 열매가 없어 삶 자체에 대한 의욕조차 떨어지는 경험을 함 이만큼 양육을 했으면 이렇게 봉사해야지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맥락적 조건	집단적 배제	남한 사회의 편견	그들을 빨갱이냐 하면서 이념적인 차원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들을 구제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음
		한국 교회의 선입견	끊임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사역임을 알기에 그들을 피하고 싶은 한국 교회들 북한 동포를 안고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교회들
	사역 퇴행의 원인들	롤러코스터같이 변하는 남북관계의 영향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불안한 그들을 달래야 함 정치적 문제로 사업 추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사회적 불안의 투자채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았다 안 좋았다 상황이 널뛰기를 하며 어려움 장애인 사역과 외국인 사역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이라고 느낌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분열	너무 다른 문화	이들의 문화가 화를 내는 문화이며, 친해지고 편해지면 화를 내는 사람들 시간개념이 없어 약속을 했으나 한 시간 후에 태연하게 나타남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동포	생각, 가치관, 표현방법들이 한국 사람과 너무 다름을 느낌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라고 느낌
현상	소진의 연속인 북한이탈주민 사역	고된 사역으로 인한 심신의 피폐	상처가 많은 이들을 돌보면서 건망증, 신경예민과 같은 병적인 증상이 생김 사역의 스트레스가 쌓여 피부의 껍질이 벗겨짐 고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	몇 개월 착실한 행동을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보증을 서달라고 찾아옴 그들을 만나면서 밥 사주고 필요한 것 사주게 되면서 계속 비용이 들어감 어려운 재정으로 퍼주기만 하는 사역이 어렵기만 함
중재적 조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 확인	소명감으로 감당하는 사역	한 명이라도 더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사역함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 때문에 사역을 지속함
		부어주시는 하나님 마음	서로 매일 싸우는 그들이 이상하게 예쁘게 보임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고 마냥 행복하여 실없는 농담도 하게 됨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끼는 사역	힘들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새 힘을 주심을 느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성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됨

중재적 조건	기다리는 사역 능력의 체득	사역보다 먼저 좋은 친구 되어 주기	같이 얘기 해주고 들어주며 친구가 되어줘야 함 좋은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함
		열심보다 '내려놓기'	실망이 될 때는 빨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려고 함 저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도 내려놓기 함
	사역자, 동역자, 공동체는 사역의 삼위일체	동역자의 위로와 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함'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원동력임 좋은 감시자와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는 동역자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음	공동체에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함 공동체 없이 개인이 이 사역을 한다면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역임
작용/ 상호작용	재도전을 위한 자기치유	말씀과 기도로 스트레스 풀기	'유모 같은 마음을 가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감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기도로 그 상황을 넘어감
		힘들 때 사람들과 '거리두기'	너무 힘들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들과 '거리두기'를 함 힘들 때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 엄청난 데미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멈춤'을 함
	주체적 사역 역량 강화훈련	회복프로그램을 통한 재충전	소진될 때 전문가들이 제공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함 목회자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재단에서 무료로 하는 탈북민 정착지원관리에 대한 교육과정에 참여함 사역 편당을 위한 교육이나 단체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여러 번 참여함
	사회적 자원의 동원	사업제안서는 현실적인 행운의 카드	올해 사업제안서를 통해 인건비로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 비용을 받음 프로포절을 내서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받음
		기부와 후원으로 풍성함을 누리	일주일에 한 번씩 식품이나 의류, 가전 같은 것들을 기부받음 학생들 장학기금 마련해 주는 후원단체들이 꽤 많음
결과	상처 입은 사역자로서의 성장	공감능력이 커진 사역자로 변화됨	회복이후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을 가슴으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됨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됨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짐	다 쏟아부어 사랑을 해 주고 소진까지 왔으나 보상보다 다시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짐 회복 이후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달라짐
	북한 이탈주민은 통일 동역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투자가 곧 통일 준비	북한에서 온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통일 준비임 남북통일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다고 생각함
		복음으로만 남북이 하나 됨	북한과 같은 사회는 제도나 법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됨 남북은 서로 불신하므로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됨

(1) 인과적 조건

① 처절한 생존의 삶 옆에 서기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에서는 듣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할 때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힘겹고 눈물 나는 사연이 많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때로 그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예요. 자기 부모가 죽어서 나가고, 굶어 죽고, 보위부에 끌려가서 생이별하고, 뭐 그런 얘기들 들으면 나는 속이 막 뭐랄까 나이가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듣다보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연구 참여자 12)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에는 당황이 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동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사역에도 더욱 진지하게 임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아픈 삶을 공감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므로 ‘처절한 생존의 삶 옆에 서기’로 범주화하였다.

②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돕는다. 자신의 가족처럼 그들을 돌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한 집에서 가족으로 지내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가족과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사소한 사건이나 오해로 한순간에 돌아서거나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며 소진을 경험한다. 또한 교회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 공동체가 물심양면으로 돕지만 너무도 느린 성장으로 인해 공동체가 지치고 소진될 때가 많다.

그 집에는 친정엄마처럼 집을 다 꾸며주고 했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떠나 버렸어요. 캐나다로... 그러면서 사역자는 너무 소진이 되는 거야 그런 배신감 때문에...(연구 참여자 10)

한국사람 같으면 뭐 한 1년이면 될 걸 북한 사람들은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러나. 왜 그대로인가?”라고 하죠. 힘든 거죠(연구 참여자 12)

정성을 다해 가족처럼 보살펴 주었으나 사소한 사건으로 떠나는 이들로 인해 사역자들은 상처를 받게 되며, 남한 성도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반면 북한 성도의 성장은 너무도 느린 점 등 사역자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에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이라고 범주화하였다.

(2) 맥락적 조건

① 집단적 배제

남한 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가난하고 못사는 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 대한 정치적인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 교회 중에도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인 시각과 구제대상으로만 보는 교회들이 있다. ‘연구 참여자 4’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탈북민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차별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그 분들에게 참 뭐랄까 위축되잖아요... <중략> 그 분들도 역시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자격 없는 나라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 분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막 아니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연구 참여자 4)

대다수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돕는 주체로만 생각을 해요. 같은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돕고 있잖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6)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것은 무시하는 시선과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는 시선 등 여전히 부정적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해와 포용보다는 일반 국민에게서 느끼는 부정적인 시각을 동일하게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와 한국 교회라는 집단 내에서 소외감과 배제를 느끼는 것이므로 ‘집단적 배제’라고 범주화 하였다.

② 사역 퇴행의 원인들

북한 사역은 수시로 변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역이다.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다가도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사역이 북한 사역이다. 사역자들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마다 불안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담해 주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념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혼란을 겪는 그들에게 단순한 상담기술로는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북한사역은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연구 참여자 16)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 사역과 다문화 사역보다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남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 많다. 남북관계가 좋지 않거나,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이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리기가 아주 어려운 사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을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치도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하잖아요? 뭐 세금을 그 탄데 써?(연구 참여자 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역은 남북관계의 영향에 따라 좋아졌다가도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이념과 관련하여 보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불안의 투사체로 몰아가려는 경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역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되었던 요소들이라고 보고 ‘사역퇴행의 원인들’이라고 범주화하였다.

③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분열

‘연구 참여자 7’은 처음에 북한이탈 청년을 만났을 때 남한 청년들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너무 다른 그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 경험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언어가 같지만 생각하는 것과 행동들은 많이 다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을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주민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고,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선교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고 한다.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표현하는 방법 음... 또 어떤 일들에 대해 프로세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말만 똑같은 뿐이지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접근하기 편해요.(연구 참여자 7)

아 이걸 ‘선교’구나... 이들을 이주민의 관점에서 봐야지 안 그러면 이건 서로가 망하겠구나 생각했죠.(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약속을 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주 태연하게 “무슨 일이냐”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히려 어리둥절하기도 했다고 연구 참여자는 말한다. 이러한 일은 서로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공공장소에 시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으며 핸드폰도 없는 사람이 많다. 남한 사회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생활의 기본예절로 알고 있으나 북한 사회는 그렇지 않다. 시간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남북의 다른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한 분들이 북한 분들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아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떤 분들은 탈북민들이 시간 안 지켰다 이런 말을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안 지키는게 아니라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잘 지키세요.(연구 참여자 4)

북한이탈주민은 언어만 우리와 같을 뿐이지 생각과 표현방법 등 모든 것이 다르며 외국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같은 동포이지만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분열’이라고 범주화하였다.

(3) 현상

① 소진의 연속인 북한이탈주민 사역

연구 참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열악한 사역 환경으로 인해 신

체적인 질병이 생겨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건망증과 신경과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연구 참여자도 있고, 사역의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에 걸린다거나 우울증과 공황장애, 병명을 알 수 없는 병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연구 참여자도 있다. 이러한 병은 사역의 스트레스로 인해 온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사역의 현상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사역임을 알 수가 있다.

고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우울증과 함께 공황장애가 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연구 참여자 9)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어려운 부분 중 또 하나는 재정문제이다. 그것은 들어오는 재정보다 나가는 재정이 더 많기 때문인데, 북한이탈주민이 잘 정착하여 직장도 자리 잡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될 때까지 사역자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어려운 점은 ‘쉽이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다. 어린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누군가가 자녀를 돌봐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사역자들은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볼 때가 부지기수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부모가 일터로 나갈 때는 그 자녀들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긴급한 재정적 필요가 많아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돕거나 가족들을 데려오는 비용이랄지, 같은 북한민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암 수술을 받아야 한다든지 긴급한 재정적 필요를 그때 그때마다 섬기는 것에 한계가 많습니다.(연구 참여자 3)

여기에 와서 주중에는 밤에 부모들 퇴근할 때까지 밤에는 야간돌봄이 선생님들이 계셔서 채용을 해서 이제 야간까지 돌보고, 주말에도 공휴일이면 쉬어야 하는데 사실 일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맡기고 가셔서 어떨 때는 공휴일에도 애들을 몇 명씩 봐야 돼요.(연구 참여자 9)

열악한 사역환경과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이 없이 사역을 해야 하는 쉽이 없는 사역으로 인해 사역자들은 계속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소진의 연속인 북한이탈주민 사역’이라고 범주화하였다.

(4) 중재적 조건

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확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처가 많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지치기도 하며 소진되는 경험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감 때문이라고 한다.

오직 그 분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사명감이죠. 계속 부여주시는 사명감...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역을 계속 못했을 거예요... 그 정말 샘물 같은 응원의 힘... 굉장히 강력한 힘 그 힘이 그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14)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역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확인’으로 범주화하였다.

② 기다리는 사역 능력의 체득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는 한국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열심히 섬기지만, 몇몇 교회는 하나의 엑스트라 사역으로 장식처럼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그저 여러 사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온 힘을 쏟지 않는 것이다. 사역자들도 북한이탈주민을 대할 때 적당한 시간과 거리를 두며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과 함께 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사역이다. ‘연구 참여자 11’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시간을 투자하며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밥 먹고 오면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 병원 같은데 갈 때 같이 따라가서 수술 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 때 같이 해주는 것이죠.(연구 참여자 11)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면 여지없이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소진이 오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2’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시로 내려놓기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내려놔야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수시로 내려놓음이에요.(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친구가 되어 주는 것’과 내 힘과 열심을 수시로 ‘내려놓기’하며 기다려 주는 사역이라는 것을 점점 배우게 된다. 따라서 ‘기다리는 사역 능력의 체득’이라고 범주화하였다.

③ 사역자, 동역자, 공동체는 사역의 삼위일체

사역자들은 사역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가서 따지거나 하소연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사역자들이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사역을 하는 동역자와 공동체가 있는 곳이다. 사역자들은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역자나 공동체에서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와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때 우선은 동역자간에 교제를 해야 해요. 혼자서는 안돼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 죽을 맛인 거죠.(연구 참여자 11)

제가 힘들면 공동체가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역자는 어쨌든 외로운 포지션인데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맞지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그때 다시 깨닫게 된 거죠.(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들은 모든 사역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며 동역자와 공동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라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동역자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므로 ‘사역자, 동역자, 공동체는 사역의 삼위일체’로 범주화하였다.

(5) 작용/상호작용

① 재도전을 위한 자기치유

사역의 스트레스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온다.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야 하고, 또 상황마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사역자들은 수시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우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말씀과 기도로 풀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된다고 고백한다.

일반적으로 내가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해볼 수 있는 방향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는 박탈감과 공허함,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었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사역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겠죠.(연구 참여자 5)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사역자들은 종종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하기도 한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말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힘들 때일수록 말을 삼가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한다. ‘연구 참여자 2’는 사역하면서 힘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내버려 두면서 ‘잠시 멈춤’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힘들 때에 내가 잘못 말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게 엄청난 데미지 효과가 나오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내가 잠시 멈추는 거죠.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왜 문제가 있는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한동안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좀 안정이 되면 그 때 가서 만나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사역 가운데 소진을 경험했다고 했다. 소진이 올 때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쉬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치유되기도 했으며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재도전을 위한 자기치유’라고 범주화하였다.

② 주체적 사역 역량 강화 훈련

소진이 올 때 잘 쉬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소진이 온다고 해서 또 마냥 쉬 수 없는 것이 사역자들의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역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이 올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쉬어야 재충전이 되고 소진에서 회복되는지에 대해 아는 것도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전문가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제공한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이 분들은 전문가잖아요?...제가 참여했었는데 프로그램 중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10년 동안 각자의 영역이 틀린 곳에 살다가 만난 건데...그냥 다른 시간 안 만들어줘도 저녁에 저녁 먹고 티타임하고 그 안에서 너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서로 너무 좋은 피드백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들은 공공기관이나 몇몇 재단에서 진행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사역에 유익한 도움을 얻는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거나 자신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므로 ‘주체적 사역 역량 강화 훈련’이라고 범주화하였다.

③ 사회적 자원의 동원

사역자들에게는 사업제안서를 쓰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사업제안서를 낸다고 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업제안서를 통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사역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제안서를 낼 곳을 살피고 부지런히 제안서를 쓰게 된다.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받는 기부와 후원은 사역자에게 큰 힘이 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부와 후원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또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때로 기부와 후원으로 누리는 풍성함이 있다고 말한다.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저희가 프로포절을 내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프로포절을 내서 받았어요...(연구 참여자 15)

사업제안서를 통한 지원이나 기부와 후원 등과 같은 자원은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동원’이라고 범주화하였다.

(6) 결과

① 상처입은 사역자로서의 성장

연구 참여자들은 소진에서 회복된 후 북한이탈주민의 아픔을 더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살피게 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도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오면 물질로 다 퍼주고 이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욕하거든요. 우리는 받은 게 없다고...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의 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헤아려 주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만큼 했잖아? 우리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 오라는데 안 와? 막 이러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되지만, 회복 이후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느끼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 14’는 회복 이후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놓지 않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축적되었다고 봐요. 넓이는 줄어들었지만 깊이는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욱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14)

소진을 경험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공감하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역의 노하우가 생기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고 고백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상처받는 경험도 많이 하였지만, 그러한 사역의 과정이 결국 사역자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역자로서의 성장’으로 범주화하였다.

②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동역자

남한 사회는 이제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통일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어울려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한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도와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남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북한에 그대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앞으로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남과 북은 사고하는 것이 다르고 차이가 있으므로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 5는 남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복음통일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갈등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우리가 백신처럼 처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연구 참여자 6)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이념보다 더 상위가치가 필요해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공통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복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복음’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며, 특별히 복음으로 무장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원수(國家元首)를 우상으로 섬기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오류에 대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할 남북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동역자로서 우리와 함께 통일을 준비한다는 내용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동역자’라고 범주화하였다.

2. 축 코딩(axial coding)

(1) 패러다임 모형

개방 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를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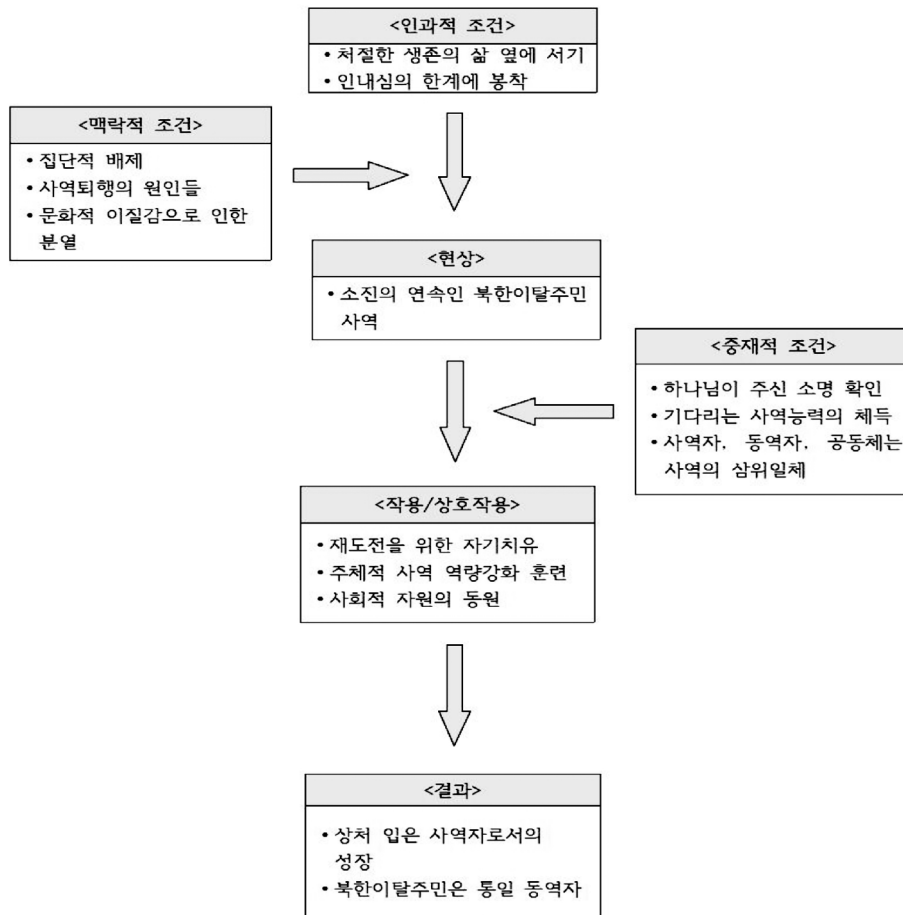


Figure 1. A Paradigm Model on the Ministry Experience of Research Participants

(2) 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큰 비전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소진의 과정에서 소명을 다시 확인하며 사역을 재조명하는 시간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 사역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단단하게 아물게 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자로 성화되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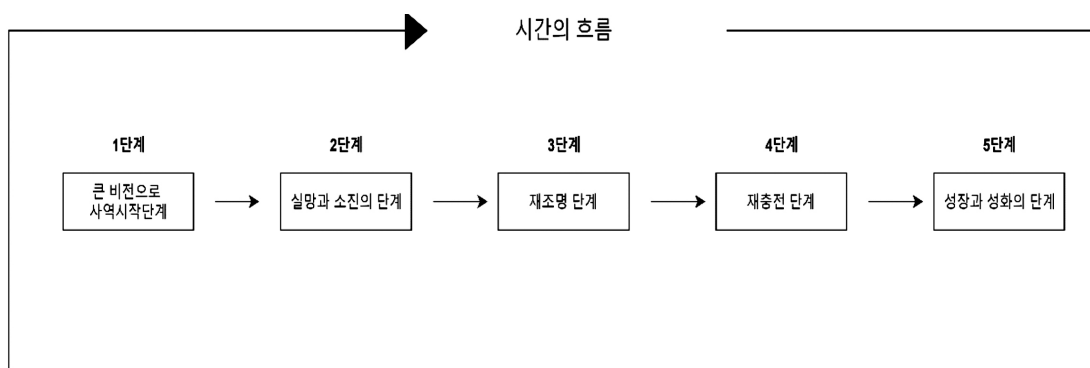


Figure 2. Diagram Describing the Ministry Experience Process of Research Participants

① 큰 비전으로 사역 시작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게 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던 중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북한 동포와 통일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비전으로 사역 시작 단계에 들어선다.

② 실망과 소진의 단계

분명한 비전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 헌신과 수고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망과 소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상처가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다. 거짓말을 일삼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연구 참여자들을 배신하기도 한다. 사랑으로 섬기며 가르치지만 성장이 너무도 느려 사역자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성장할 때쯤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문제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에는 끊임없는 재정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들은 반듯한 직장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재정적인 독립이 어려운 형편으로 여러 가지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편견으로 가득하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역이지만, 장애인 사역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약한 것을 보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이 흐르지만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점점 실망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③ 재조명 단계

실망과 소진의 단계 다음은 재조명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처음 소명을 다시 확인하며 사역을 재조명해 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사역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본다. 그러한 점검의 시간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먼저 이 사역은 ‘관계 맺기’가 우선인 사역이며 열매를 기대하기보다는 매 순간 ‘내려놓기’가 요구되는 사역임을 체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동역자,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기도 한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에서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들이 동역자이며,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④ 재충전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소명을 확인하고 사역을 재조명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재충전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소진을 방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며 자기치유의 시간을 통해 재도전을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또한 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소진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또 한 가지는 회복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사역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그들의 느리지만 작은 변화에 보람을 느끼며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초창기 가졌던 사역에 대한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⑤ 성장과 성화의 단계

연구 참여자들의 사역 경험 과정 마지막 단계는 성장과 성화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사역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받은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사역의 상황도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의 그 상처들이 단단하게 아물게 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 자신이 더욱 ‘성장’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성장’이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사역에서도 노하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 밑바닥에 남아 있었던 어떤 권위의식을 모두 버리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성장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3.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핵심범주(core category)와 이야기 윤곽(story line)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의 사역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구성된 핵심범주는 ‘소진의 연속인 사역의 과정에서 재조명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면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타났다.

‘돌봄’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 이 ‘돌봄’에 대해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아무런 대가없이 헌신적으로 돌봐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며 너희도 이 사람처럼 행하라고 말씀한다(눅 10:25-37).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돌보는 연구 참여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 대한 공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북한이탈주민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헌신적으로 돌보며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나 사역의 시간이 흐를수록 초창기 가졌던 사역에 대한 비전은 희미해지고 연구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치게 된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재정적인 부담, 사회적 공감대의 미비 등의 원인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탈북하여 중국이나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된다. 중국과 제 3국에서 그들은 신분증이 없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한다. 그들 중에는 또 다시 잡혀 북송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병들게 된다. 무사히 한국으로 오지만 북한과 너무 다른 사회체제와 문화 등으로 또 한 번의 큰 혼란을 겪게 된다. 고난과 상처가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을 헌신적으로 돕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를 믿지 못하고 배신하기도 하며 어려움을 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지치게 되며 정신적, 육체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 중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병명이 없는 병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전쟁과 같은 소진의 시간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통해 처음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

면서 자신의 시각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힘들어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보다는 그들에게 성장을 요구하기만 했던 자신을 깨닫게 된다. 공지영(2004)은 『봉순이 언니』에서 “진짜 사랑한다는 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작 북한이탈주민들의 필요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수고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힘들어 했던 것을 뉘우치게 되며,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기다리는 사역’, ‘인내의 사역’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 또한 동역자와 공동체에 대한 시각도 점점 변화된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혼자서 결코 할 수 없는 사역이며 동역자와 공동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재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연구 참여자들은 소진을 예방하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도 적절하게 잘 대처하게 된다. 예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상처를 줄까 행동을 조심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고 편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변화가 사역의 환경이 좋아졌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사실 사역의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적인 문제는 늘 사역자 앞에 놓여 있고, 남북관계도 좋았다 좋지 않았다 널뛰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받았던 상처를 안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북한이탈주민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 대가없이 헌신적으로 돌보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당부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계속적으로 소진되는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아무 대가없이 헌신적으로 약자들을 돌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된다. 이러한 사역자들의 돌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남한 사회에 점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함께 통일을 준비해 가는 동역자가 된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들의 사역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탈북을 한 후 중국이나 제 3국에서 몇 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언제 다시 잡혀서 북송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한 공포의 시간 이후 한국으로 왔을 때에는 ‘내 나라, 내 동포가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너무 다른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염려와 불안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통일부(2020)에서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 만족할 단계가 아니라고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고 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이 있는 전인 구원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 점점 정착하게 되고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 함께 통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동역자로 변화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사역자가 경험하는 집단적 배제에 대한 논의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같은 동포로 보기보다 ‘빨갱이’라고 하며 이념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그저 우리가 도와야 하는 구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시각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성경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통일의 의미를 찾아 이 사역이 보편적인 사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겠다.

둘째, 동역자와 공동체의 지지에 대한 논의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역자들에게 동역자와 공동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사역자들은 그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역의 과정에서 계속되는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자신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동역자와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도 한다. 동역자와 공동체는 사역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역자는 동역자와 공동체와의 네트워크가 언제든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사역의 재정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재정문제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한다거나 재투자를 하기 보다는 수입이 생기면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의 계속되는 재정적인 요청으로 사역자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정문제는 곧 사역자의 재정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문제의 해결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기정착지원금에는 정착금, 주거지원금, 취업 장려금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금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제개념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은 지원금을 악성 브로커에게 속아 빼앗기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하거나 도박 등으로 소비하게 된다. 초기정착지원금이 현금인 아닌 현물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역자 지원 부분에 대한 논의이다. 사역자를 위한 지원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비해 사역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사역자들은 지속적인 소진을 경험한다.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소진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역 과정에서 건강 문제에 맞닥뜨리는 사역자가 허다하므로 지역의 병원과 연결하여 정기적으로 심리상담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년에 한 번 정도 공공기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사역자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사역의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남과 북이 하나로 화합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에 대해 하충엽(2020)은 그동안 분단의 긴 세월로 인해 남과 북에 형성된 서로 다른 정체성 때문이라고 했다. 다르게 형성된 정체성의 문제를 남과 북은 서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이러한 이유이며, 북한이탈주민을 일선에서 돕고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되는 소진을 경험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은 이러한 다른 정체성의 문제를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배제하려는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의 하나 됨이 그저 멀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Volf(1996)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용서, 포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가해자 인간에 대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이으신 것처럼, 기독교는 가해자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용서하며 끊임없이 포용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원리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이 대립하고 갈등을 부추긴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맞서는 것은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닐 것이다. 끊임없는 용서와 포용만

이 관계의 지속성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복음만이 남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과 사역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사회복지의 사역 역량 향상을 위한 영성의 강화이다.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영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Derezotes(2006)는 영성적 사회복지실천은 신체·마음·정신·영이 연결되어 전인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이현아(2003)는 환경 속의 인간이 가지는 패러다임 안에서 문제를 사정하고 신념을 포함하는 영성이 역량을 강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역자들에게는 개인의 영성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계 차원에서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사회복지에 관한 강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혹은 신학교의 학과과정에 포함시켜 배우게 함으로써 사역자들의 영성이 실천적 영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독교 사회복지단체나 기관 그리고 복지 대상자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선교를 위해 중점적으로 해 왔던 사역은 기도와 방송 선교였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로 이주해 오면서 남한 사회가 북한선교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한국 교회가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북한선교가 확장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자의 소진 예방 및 회복 지원의 확대이다. 사역자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시 등 몇 개의 도시와 몇몇 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과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 지속적인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진에서 다시 회복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역자들을 위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과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모든 사역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넷째, 사역자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성화이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정보와 자원들의 공급은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와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역자 간의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관기관 및 정부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다. 민간단체 중에는 기독교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는 종교성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 배제되기도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2019년 7월 서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교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있

다면 그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역 교회의 사역자들과 공공기관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면 그들의 남한 사회적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회의 종교성을 이해하고 대화의 문을 더욱 활짝 열 수 있어야 하겠으며, 교회는 종교성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이웃사랑 측면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등 종교성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와 좋은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 사역은 돌봄 사역대로, 일자리 사역은 일자리 사역대로, 그 외 다른 사역도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재길 (2017). 남북한의 문화통합과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神學과 宣敎**, 51, 159-193.
- [Koh, J. G. (2017). Cultur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task of the Korean church.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stitute of Christian Theology, *Theology and Mission*, 51, 159-193.]
- 공지영 (2004). **봉순이 언니**. 푸른숲.
- [Gong, J. Y. (2004). *Older sister Bongsoon*. Blue forest.]
- 가스펠서브 (2013). **교회용어사전**. 생명의 말씀사.
- [Gospel Serve (2013). *Church Terminology Glossary*. The Word of Life.]
-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South-North Hana Foundation (2019). *A survey on settlement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 백남설 (2018).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착지원요인과 삶의 질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 [Paik, N. S. (201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ttlement in Korea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Settlement Support Factors and Quality of Life Factors*. Doctral Dissertation. Sunmoon University, Cheonan, Korea.]
- 손병덕·신연희·양혜원·이상무·장신재 (2010).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이해와 실천**. 서울: 학지사.
- [Son, B. D., Shin, Y. H., Yang, H. W., Lee, S. M. & Jang, S. J. (2010). *Social Welfare Survey Methodology : Understanding and Practice*. Seoul: Hakjisa.]
- 신문희 (2020).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 영향 요인: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Shin, M. H. (2020). *Factors affecting long-term tenure of highly educated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안상훈 (202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복지태도 차이에 관한 다집단경로분석 연구. **한국사회정책 학회지**, 27(1), 65-87.
- [Ahn, S. H. (2020). A Multi-Group Path Analysis Study on the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Social Policy*, 27(1), 65-87.]

- 양민숙 (2018). **북한이탈여성의 중년기 이후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Mandelbaum의 분석 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Yang, M. S. (2018). *A study on the life history of North Korean refugee women'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after middle age: Application of Mandelbaum's analysis methodology*. Doct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윤혜경 (2015). 다문화사회속의 북한이탈주민과 교회역할 모색. **인천: 개혁주의 생명신학선교회지**, 1, 175-194.
- [Yoon, H. K. (2015).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role of the church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cheon: *Journal of Reformed Life Theology and Missions*, 1, 175-194.]
- 이빌립 (2017). 해외 탈북자 접근성. **온누리 통일위원회 제3차 통일 세미나집**, 19-30.
- [Lee, B. R. (2017). Acce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Overseas. *Onnuri Unification Committee 3rd Unification Seminar Collection*, 19-30.]
- 이상주 (2016).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연구 역사적제도론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인간 복지실천학회지**, 16, 237-254.
- [Lee, S. J. (2016). A Study on North Korean Refugees Policy Focusing on Historical Institutional Theory. *Korean Journal of Welfare Practice among Koreans*, 16, 237-254.]
- 이지성 (2019). 한국교회의 북한이탈주민 인식전환에 대한 모색 '공감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사회윤리학회지**, 45, 95-122.
- [Lee, J. S. (2019). A search for a change in the Korean church's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Empathetic Imagin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45, 95-122.]
- 이재서 (2013). **기독교 사회복지의 근원-복지신학으로 가는 길**. 도서출판: 세계밀알.
- [Lee, J. S. (2013). *The Origins of Christian Social Welfare - The Path to Welfare Theology*. Book Publishing: World Milal.]
- 이현아 (2003). 영성과 종교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실천. **교회 사회사업 창간호**, 183-204.
- [Lee, H. A. (2003). Social welfare practice that ncompasses spirituality and religion. *The first issue of Church Social Work*, 183-204.]
- 정인수 (2009). **남·북한 사회통합과 그 과제에 관한 연구: 독일의 사회통합과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Jung, I. S. (2009).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its tasks: Focusing on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and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조민희 (2019).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방안 연구: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Jo, M. H. (2019). *A Study o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Plans in Korean Society: Focusing 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Resocialization*. Doct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조영기·이용환·최창현 (2011). 사회갈등 및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11), 423-446.
- [Jo, Y. G., Lee, Y. H. & Choi, C. H. (2011). A study on social conflict and integration. *Korean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2011(11), 423-446.]
- 최은석 (201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 변천과 사회적응교육의 개선 방향. 북한법연구회, **북한법 연구**, 18, 387-425.
- [Choi, E. S. (2018). Changes i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North Korean Law Research Society, *North Korean Law Research*, 18, 387-425.]
-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North Korean Refugees Entry Status*.]
- 통일부 (2019). **탈북민 사망 현황 및 연도별 자살률**. 국회보고자료.
-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North Korean defector deaths and suicide rates by year*. Parliamentary report.]
- 하충엽 (2020). 남남갈등과 남북분단의 관계이름 신학: 미로슬라브 볼프(Miroslov Volf) 신학을 중심으로. **기독교통일포럼**, 93-105.
- [Ha, C. Y. (2020). The Theology of Relational Names of South-South Conflict and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Focusing on the Theology of Miroslov Volf. *Christian Unification Forum*, 93-105.]
- 한명진 (202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정책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公法學研究**, 21(1), 3-31.
- [Han, M. J. (2020). A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Act on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Public Law Study,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Society*, 21(1), 3-31.]
- 한안석 (2018). **한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Han, A. S. (2018). *A study on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ople*. Doct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 Bemak, F., Chung, R. & Pedersen, P. (2003). *Counseling Refugees: A Psychosocial Approach to Innovative Multicultural Interventions*.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Derezotes, D. S. (2006). *Spiritually Oriented Social Work Practice*. Boston: Pearson Education.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75, CA: Sage.
- Nwadiora, E. & McAdoo, H.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ic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 480-484.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Volf, M. (1996). *Exclusion & Embrace*. Abingdon Press.
- Yeh, C. (2003).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9(1), 34-48.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검색일 2021.12.27.)
- [Press rele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2021.12.27.)]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0.04.08.)
- [Ministry of Legislation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2020.04.0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A4B210B7890>(검색일 2020.04.08.)
- [Act on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1A4B210B7890>(2020.04.08.)]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Ministry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for North Korean Refugees

김주경 (총신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역자의 사역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역자 16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자료의 수집은 1:1 심층면담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사역경험 과정은 큰 비전으로 사역시작 단계, 실망과 소진의 단계, 재조명단계, 재충전단계, 성장과 성화의 단계로 변화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사역자가 경험하는 집단적 배제, 동역자와 공동체의 지지, 북한이탈주민 사역의 재정, 사역을 위한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기독교 사회복지, 사역자, 사역경험, 근거이론 연구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Intention of
Christians and Atheists to Engage in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이희진 (Hee-Jin Lee)**

이원준 (Won-June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rough empirical research how the direct effect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intention to practice extramarital sex of married men and wome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s controlled by their religious backgroun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found that men are less critical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more receptive to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re willing to engage in extramarital sex than women. It has been proven that Christians are more critical of extramarital relations than atheists according to religious background. In the case of Christians, their perception of Internet pornography does not directly affect their intention to practice extramarital sex. However, depending on how they perceive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can indirectly affect their intentions to practice extramarital sex. Considering the strong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raising a critical awareness of internet pornography for both atheists and Christians will be an important practice task to prevent and cope with extramarital sexual behavior.

Key words: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extramarital sex,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Christians, atheists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7일 최종 수정, 9월 7일 게재 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hjlee@handong.edu

*** 창신대학교(Cha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교수, wjlee@cs.ac.kr

I. 서론

혼인은 두 배우자가 스스로 남편과 아내로 살겠다는 약속이며, 부부가 일생동안 계속되는 행위 속에서 헌신(committment)하는 행위이다(Finnis, 2011: 353 ; 오민용, 2018: 106).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를 도입한 사회에서 혼외성행위는 혼인 가치를 훼손하는 사회적 일탈 행위이다. 배우자 이외의 어떤 대상과도 성관계가 금지되는 ‘성적 독점적 관계’(sexual exclusivity)는 부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성 윤리이다. 혼외성관계(extra-marital sex)는 간통 혹은 간음(adultery)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간음은 혼인 약속인 정결을 깨는 것이며,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약의 표징인 혼인 유대를 손상시켜 혼인 제도를 해침으로써, 인류의 유익(benefit)을 위태롭게 한다”(이동호, 2008: 313 ; 권혁남, 2015: 234). 우리나라는 간통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를 폐지한 다른 국가들(예: 프랑스 1791년, 덴마크 1930년, 일본 1947년, 독일 1969년)에 비해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존속시켰던 나라이다(박찬걸, 2010: 47). 간통죄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여론이 크게 대립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선고(2015.2)하면서, 7년 전에 간통죄는 폐지되었다(권혁남, 2015: 223). 간통죄 폐지가 혼외성행위를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간통죄 폐지의 주요 논지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sexual self-determination)의 침해한다는 것이었다(권혁남, 2015).

간통죄의 폐지는 간통 행위자들에 대한 형법상의 구속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부부관계를 훼손하고 결혼 안정을 해치는 혼외성행위를 사회가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혼외성행위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통죄 폐지의 핵심 논지이었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독점관계’라는 부부의 성윤리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은 ‘갈등을 야기하는 이슈’(conflict-provoking issue)임에 틀림없다. 피니스(Finnis, 2011)는 개인의 성적 선택과 활동은 ‘탈부부 관계화’(de-maritalizing)가 되는 개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하였다(Finnis, 2011: 353). 이 주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전통적인 부부관계를 위협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독교의 십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이다. 성서 및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혼외 성(sex)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장형·안수강, 2014: 227 ; 권혁남, 2015: 224). 성적 자기결정권의 논리는 “결혼 및 성관계에 관한 성서적 관점과 교회의 가르침과는 전면적으로 대비”된다(이장형·안수강, 2014 ; 권혁남, 2015: 234 재인용).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혼외관계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기혼자의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제7계명(간음하지 말라)을 범했다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다. 종교적 신념은 “지각의 틀”이다(Walsh & Middleton, 1984). 종교적 신념은 사

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의지적 차원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Wolters, 1992 ; 김성수·장성수, 2010: 34 ; 이희진·이원준, 2019 : 196). 그렇다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기독교인들은 무교인들 보다 혼외성에 대해 실제적으로 더 엄격하고 비판적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를 시도하게 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성(性)에 대한 인식과 성 규범에 영향을 주는 ‘성적 사회화’(sexual socialization)는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지속되는 과정’(ongoing process)이다(Gagnon, 1998 ; Longmore, 1998). 의미 있는 타자들(가족, 친구, 또래 등)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성적 사회화의 에이전트”가 되고 있다(Luster & Small, 1994 ; Harries et al., 1997 ; Chapin, 2000 ; L’Engle, Brown, & Kenneavy, 2006 ; 이희진, 2021a: 172). 선행연구는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성허용성 및 성개방성 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조주영·김영희, 2004 ; 김유정, 2010 ; 남미애·홍보성, 2012 ; 조은숙, 2013 ; L’Engle & Jackson, 2008). 혼외정사, 매매춘, 다수의 성적 파트너와의 섹스, 성폭력 등 ‘위험 성행동들’(risky sexual behaviors)을 주요 콘텐츠로 다루는 인터넷 음란물은 혼외성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 간주할 수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 확장성이 음란물의 전파의 획기적 수단”이 되면서(배정원, 2015: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접근이 용이”하다(Zillmann & Bryant, 1988). “음란물의 주요 콘텐츠인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인 위험 성행위들에 노출되는 대상은 특정한 성별, 연령대, 혹은 결혼상태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남미애·홍보성, 2012 ; 이희진, 2021a: 172). 기혼 남성은 물론 기혼 여성도 인터넷 음란물을 활발히 이용하는 소비 주체가 되고 있다(김인수, 2014 ; 배정원, 2015 ; 이희진, 2021a: 173). 선행연구는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이들의 인식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이희진, 2021a).

성(性)에 대한 인식은 성에 대한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지만(이영화·이영숙, 2007 ; 이영숙·이영화, 2008 ; 함인희, 2012 ; Treas & Giesen, 2000), 혼외성행위(extra-marital sex)와 같이 사회적 위험부담이 매우 큰 성적 일탈 행위의 경우 ‘행위’가 ‘인식’을 반영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혼외성행위자가 여전히 사회적 비판의 대상인 현실에서, 설사 혼외성행위에 대해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혼외성행위까지 일반화하여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이 혼외관계에 대한 이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혼외성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밝힐 수 있도록 연구의 확장성이 필요하다.

혼외관계인식 및 행위에 종교적 가르침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실증연구(empirical study)가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기독교인들은 “간음하지 말라”가 제7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교리가 내면화된 기독교인들은 과연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 등에서 무교인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혼외관계인식 및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조절(moderating)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혼외성관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자료가 부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개척연구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뿐 만 아니라,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미치는 효과가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들은 기독교인들의 혼외성에 대한 인식 및 행위는 무교인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기독교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독교인들의 혼외성문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음란물은 인터넷 특성이 반영된 음란물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성적 충동과 행동을 야기하는 모든 표현물이다(김민, 2002 ; 최현경, 2012). 선행연구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증가할수록 성 허용성이 증가하고 ‘위험 성행동’(혼외정사, 매매춘, 다수와의 섹스, 성폭력 등)(Wright & Randal, 2012: 1414)을 할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밝혔다(지준, 2001 ; 김소향, 2003 ; 남미애·홍봉성, 2012).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혼외관계 수용성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성에 있다는 것은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졌다(이희진, 2021a).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성인식 및 성행위에 인터넷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시간, 빈도 등)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과 비교된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은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된 시간 및 빈도뿐만 아니라, 체험한 내용, 개인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터넷 음란물이라는 “위험 성적물의 시청이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모방, 학습, 또는 동기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현규: 1998: 126). 인터넷 음란물의 주요 콘텐츠인 혼외정사를 포함한 각

중 ‘위험한 성행동들’(risky sexual behaviors)을 모방「학습하면서, 실제로 혼외성관계에 연루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사회학습이론’(Bandura, 1984)을 근거로 설정할 수 있다. ‘사회인지적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직접 강화, 보상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지적 역량 및 인지과정(예: 대리보상, 보상에 대한 기대, 의식,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 등)에 학습이 미치는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남미애·홍보성, 2012: 96 ; 이희진, 2021a).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본 내용에 직접 반응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반응한다. 이 과정에 개인의 과거 경험, 즉 기억이 개입”된다는 것이다(이현규, 1998: 128). 인터넷 음란물 내용, 이용(노출)시간 및 빈도 등에서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혼외정사를 포함한 각종 위험 성행위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인터넷 음란물을 즐겨 이용하면서, 기혼 남녀가 효용성(utility)이나 편익(benefit)과 같은 경험을 할 경우, 혼외성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일 수 있고,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은 베르누이(Bernoulli, 1783)의 ‘효용이론’에서 이론적 근거(rationale)를 찾을 수 있다(Stearns, 2000). 전술한 논의점을 토대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은 이들의 혼외관계인식뿐만 아니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연구문제 2).

2.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이 혼외성행위에 미치는 영향

성에 대한 개인의 의식, 가치 및 태도가 개인의 성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다(공미혜, 2003; 이영화·이영숙, 2007 ; 김진희·김경신, 2008 ; 최현경, 2012 ; 함인희, 2012 ; 신성자, 2017). ‘혼외관계’의 통상적인 개념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혼외관계를 육체적 성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몰입, 언어적, 비언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영화·이영숙, 2007 ; 신성자, 2017 ; Harley, 2011). 본 연구도 이러한 포괄적인 혼외관계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성에 대해서 수용적인(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성행위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인식’과 ‘행위’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관련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성행위는 개인의 성인식을 반영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혼자들의 혼외성관계는 ‘성적 독점적 관계’(sexual exclusive relationship)라는 부부가 지켜야 할 성 윤리를 위반하는 성적 일탈 행위이다. 미혼자들 또는 싱글들의 통상적인 성행위와 달리, 혼외성행위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risk-taking)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혼외성에 대한 ‘인식’과 ‘행위’간에 간극이 더 클 것이다. 혼외관계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수용적인 기혼 남녀는 실제로 혼외성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추론할 수 있지만,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이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연구문제 3, 연구문제).

3.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매개효과

앞서, ‘인터넷 음란물’(internet pornography)에 대한 기혼 남녀의 인식은 이들의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제시하였다. 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개인의 성행위에 반영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혼외성행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혼외관계인식을 혼외성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혼외성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선행조건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서,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그만큼 적을 것이라는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혼외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혼외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수용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기혼 남녀가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은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의 영향으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만큼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보았다(연구문제 3).

4. ‘기독교 유무’와 ‘성별 특성’이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에서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 연구문제로 제시했던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혼 남녀의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가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의해서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의 ‘조절효과’를 실증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당위성은, 기독교인들이 지닌 무교인과는 구별되는 ‘정체성’(identity)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이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집단(들)의 일원이라는 지식과 그러한 멤버십(membership)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

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개인의 자기개념의 일부”로 정의된다(Tajfel, 1978 ; 장미향·정한기, 2007: 79 재인용).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 또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준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Tajfel & Turner, 1986 ; Ashforth & Mael, 1989 ; 이원준·이희진, 2017: 201). 사회 정체성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치 및 규범이 내면화될 수 있다”(이희진·이원준, 2019: 196). ‘간음하지 말라’는 기독교의 제7계명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성서 및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에서든 혼외 성(sex)을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이장형·안수강, 2014: 227 ; 권혁남, 2015: 224 재인용). 결혼 및 성(性)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기독교인들에게 내면화되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에서 사회화(socialization)된 기독교인들은 무교인들보다 혼외성과 같은 위험 성행동에 대한 욕구 및 충동에 대한 억제력이 더 클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무교인과 구별되는 기독교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는 인터넷 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 의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연구문제 1). 부가하여 기혼자들의 혼외성행위 실행 의도에 인터넷 음란물 인식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직접 효과)과 혼외관계 인식이 미치는 매개효과도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에 의해서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는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연구문제 2, 3). 실증연구를 통해 ‘기독교 유무’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독교인과 무교인, 이 구별되는 두 집단의 인터넷 음란물 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성(性)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행위에서 남성과 여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성 역할 사회화’의 관점에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천주현, 1992 ; 변주혜, 2002 ; 이영화·이영숙, 2007 ; 함인희, 2012 ; 배정원, 2015 ; 신성자, 2017 ; 이원준, 2020, 이희진, 2021b ; Yucel, 2018). 그러므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기혼자들의 인식이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기혼 남성 vs. 기혼 여성)이 미치는 조절효과도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성(性)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할 때,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보다 혼외관계에 대해 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혼외성행위 실행 가능성도 더 높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을 것으로 추론된다(연구문제 5). 이에 부가하여, 기혼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매개효과는 어떠한지를 밝히고, 전술한 직접 효과와 매개 효과가 성별 특성에 의해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연구문제 6).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s)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인식에서 기독교인과 무교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인터넷 음란물이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하며, 이러한 효과는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3.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하며, 이러한 효과는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4. 혼외관계인식이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효과는 어떠하며,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는 기독교 유무에 의해 유의하게 조절되는가?

연구문제 5.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 인식에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전술한 인터넷 음란물이 혼외관계인식 및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각각 미치는 직접효과,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혼외관계인식이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서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 등은 성별 특성(기혼남성 Vs. 기혼 여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구축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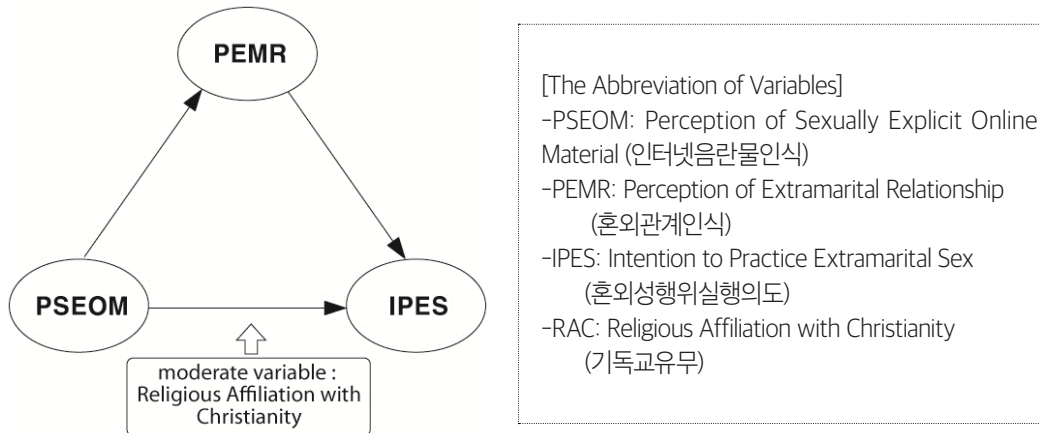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sample)은 443명이다. 온라인 서베이업체에 유료 패널에 등록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survey)를 실시하였다. 조사 응답자들은 전국 단위에서 선정되었으며, 모두 자발적으로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604명이었지만, 이들 중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134명)과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무교인들(309명)만을 선정하여 443명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타종교 등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151명)은 제외시켰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선정된 443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성이 218명(49.2%), 여성이 225명(50.8%)이다. 평균 연령은 44.2세이며, 응답자의 절반이 40대(225명, 50.8%)이며, 30대가 128명(28.9%), 50대가 90명(20.3%)이다. 교육 배경을 보면, 중졸이 50명(11.3%), 고졸이 81명(18.3%)이고, 대학졸업자(289명, 63.2%)와 대학원 졸업자(32명, 7.2%)가 전체 응답자의 70.4%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종교 배경을 살펴보면,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134명(30.2%)이고 나머지 309명(60.8%)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신론자들이다. 설문 조사는 2019년 10월 7일부터 약 2주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3. 주요변수 및 조사도구

(1) 독립변수: 인터넷 음란물인식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과 판단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이다. 선행연구(이희진,

2021a)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척도 문항 내용은 인터넷 음란물의 효용성(utility) 및 편익(benefit)에 대해 얼마만큼 부동의 혹은 동의하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야동, 포르노 등 인터넷 음란물을 즐겨보는 편이다”, “야동, 포르노 등 인터넷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야동, 포르노 등 인터넷 음란물을 보는 것이 부부의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등의 문항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희진, 2021a).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Young(2002)이 개발한 ‘음란물 중독검사’(Cybersexual Addiction Index)에서 ‘수행능력’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듯이, 본 척도 문항에 인터넷 음란물이 부부의 성생활에 미치는 긍정적(혹은 부정적) 효과를 알아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희진, 2021a).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682 이다.

(2) 혼외관계인식: 매개변수

혼외관계인식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것을 사용하였다(신성자, 2017 ; 이원준, 2020 ; 이희진, 2021a). 이 척도는 혼외관계를 육체적 성행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톰슨(Thomson, 1984)이 소개했던 혼외관계의 세 유형(육체적 유형, 정서적 유형, 육체적-정서적 혼합형)에 근거하여, 응답자들에게 각 유형별 혼외관계를 자신(응답자)도 가질 수 있는지를 묻고, 응답자가 어느 정도 동의(혹은 부동의)하는지를 파악하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육체적 유형의 예: “나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호감 및 매력을 느낄 경우,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5점 척도인데,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혼외관계에 수용적인(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성자, 2017).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761 이다.

(3)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종속변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단일 문항으로 된 척도이다(신성자, 2017). 응답자들에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실제로 혼외관계를 실행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얼마나 동의(부동의)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5점 척도이며,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실제로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조절변수: 기독교 유무, 성별 특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들의 직·간접 효과가 응답자들의 기독교 유무(기독교를 믿는 응답자 vs.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에 의해 어떻게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독교 유무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이항 변수(0=기독교

교, 1=무교)이다. ‘성별 특성’도 이항 변수(0=기혼 남성, 1=기혼 여성)이다.

(5) 주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인터넷 음란물인식 척도와 혼외관계인식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평균분산추출(A.V.E: Averahe Variance Extracted), 합성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확인하였다. 평균 분산추출(A.V.E)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간에 상관관계의 정도를 확인하는 수렴타당도 측정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합성신뢰도(C.R)는 척도의 신뢰도 측정 시 크론바하 알파값과 같이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결과는 Table 1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A.V.E의 적정기준값인 0.5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 C.R의 적정 기준값인 0.7 이상을 충족하여, 해당 두 척도의 평균 분산추출, 개념 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Bagozzi & Yi, 1988).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nstrument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 (PSEOM)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PEMR)
C. R (Construct Reliability)	.937	.894
A. V. E (Average Variance Extracted)	.836	.755

(6) 분석방법

연구 모형내 설정된 경로들의 관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직접 효과, 간접 효과, 조절효과 포함)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에 기초하여, Amo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지수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합지수(RMSEA) 그리고 상대적합지수(CFI, TLI)를 근거로 확인하였다. ‘기독교 유무’(기독교=0, 무교=1)가 미치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은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mediating effect)가 정규분포를 보이기는 어렵다. 정상성(normality)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Schumacker & Lomax, 2004 ; 홍세희, 2009), 표준 오차를 수정하여 편향(bias)을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I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모형 내 주요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관측변수들의 정규분포가 중심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인 왜도(skewness)는 $-.428 \sim .395$ 범위로 절대값 2 미만이며, 도수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첨도(kurtosis)는 $-1.168 \sim -.143$ 범위로, 절대값 7 미만으로 각 변수들의 일변량 정규 분포성을 충족하였다(Curran et al. 1996:16-29). 세 주요 변수들(PSEOM, PEMR, IPES)은 모두 5점 척도인데, 인터넷 음란물인식(M=3.13)만 척도의 중간값(3점)을 겨우 넘었다. 이 척도 점수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인 척도 점수(2점 이하)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이지만,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준(4점 이상)에는 미치지 않는 점수이다. 혼외관계인식의 척도점수(M=2.58)는 혼외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있는 수준(2점 이하)을 상회하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과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혼외성관계 실행의도 척도점수(M=2.37)도 혼외성관계 실행의도가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2점 이하)을 약간 상회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N=443)

Variables	Indicators	Mean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S.E	Kurtosis	S.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PSEOM)	B21	2.42	1.139	.305	.116	-.917	.231
	B22	3.30	.973	-.428	.116	-.143	.231
	B23	3.13	.991	-.316	.116	-.306	.231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PEMR)	B6	2.70	1.172	.071	.116	-1.098	.231
	B7	2.58	1.244	.213	.116	-1.143	.231
	B8	2.58	1.271	.178	.116	-1.168	.231
Intention to Prctice Extramarital Sex(IPES)	B12	2.37	1.119	.395	.116	-.741	.231

2. 성별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인터넷 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관계 실행의도에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기혼 남성은 기혼 여성보다 혼외관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혼외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관계를 실행할 의도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특성에 의한 차이는 한층 더 두드러졌다. 기혼 남성이 기혼 여성에 비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Male/Female) (N=443)

	Variables		
	PSEOM	PEMR	IPES
Male Group(N=218) Means(SD)	3.2554(.7350)	2.8945(.9426)	2.62(1.080)
Female Group(N=225) Means(SD)	2.6504(.7697)	2.3585(1.0073)	2.13(1.105)
t-value	8.456	5.778	4.767

3. 기독교 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비교

인터넷 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관계 실행의도 중에서 혼외관계인식에서만 기독교인과 무교인들 간에 차이가 있었다. 무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비해서, 혼외관계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인(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 혼외성관계를 실행할 의도에서 기독교인과 무교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비해 혼외관계에 대해서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혼외성관계를 갖는 것은 기혼자들의 성적 일탈행위이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억압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교인에 비해 기독교인의 인터넷 음란물인식 척도의 수학적인 점수 자체는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Table 4.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Christian/Atheistic)(N=443)

	Variables		
	PSEOM	PEMR	IPES
Christian Group(N=134)Means(SD)	2.8358(.9601)	2.4652(1.0309)	2.40(1.215)
Atheistic Group(N=309) Means(SD)	2.9968(.7847)	2.6904(.9965)	2.36(1.077)
t-value	-1.925	2.162	-.360

4. 확인적 요인 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세 개의 잠재변인(‘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이 각각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들(indicators)들의 반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서 제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Table 5.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443)

Variables	Indicators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SMC
PSEOM	B21	.744	1.345	.144	9.324	***	.553
	B22	.527	.814	.099	.258	***	.578
	B23	.636	1.000				.478
PEMR	B6	.403	1.000				.573
	B7	.900	2.370	.285	8.327	***	.809
	B8	.886	2.383	.285	8.349	***	.785

*** $p < .001$, ** $p < .01$, * $p < .05$

각 잠재변인들의 측정지표들의 계수와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적합도($\chi^2=78.473$, $df=12$, $p=.000$, $TLI=.927$, $CFI=.937$, $RMSEA=.068$)도 적정기준을 충족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5. 모형분석

전체 표본대상(443명)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앞서 제시했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chi^2=78.473$, $df=12$, $p=.000$, $TLI=.927$, $CFI=.937$, $RMSEA=.068$)와 동일하다.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3개의 직접 경로들, 즉,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33***),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588***), ‘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454***)는 모두 유의하였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기혼 남녀들은 혼외관계에 대해 수용적이며, 혼외관계에 대해서 수용적인 인식을 가진 기혼 남녀들이 실제로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고, 실제로 혼외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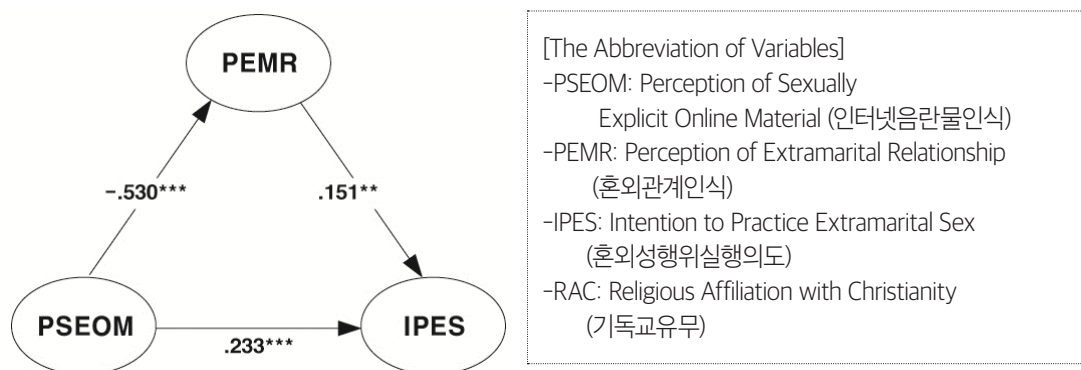


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혼외관계인식을 매개(mediator)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와의 관계에 혼외관계인식의 부분 매개효과(.266***; .186~.372)가 검증되었다(Table 5). 전술한 분석결과는 응답자의 성별 및 종교 배경(기독교인, 무교인)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절효과(modulating effect) 분석이 필요하다.

Table 6.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N=443)

Parameter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 (P-valu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PSEOM(인터넷음란물인식) → IPES(혼외성행위실행의도)	.233***	.445***	.124
SEOM(인터넷음란물인식) → PEMR(혼외관계인식)	.588***	.484***	.078
PEMR(혼외관계인식) → IPES(혼외성행위실행의도)	.454***	1.054***	.177
In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p
PSEOM → (PEMR) → IPES	.266	.510	.001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SEOM → (PEMR) → IPES	.186	.372	

$\chi^2=78.473$, $df=12$, $p=.000$, $TLI=.927$, $CFI=.937$, $RMSEA=.068$

*** $p<.001$, ** $p<.01$, * $p<.05$

6.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분석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기독교 유무’에 따른 모형에서 기저모형($\chi^2=95.617$, $df=24$, $p=.000$, $TLI=.901$, $CFI=.932$, $RMSEA=.065$)과 측정모형($\chi^2=97.354$, $df=28$, $p=.000$, $TLI=.902$, $CFI=.935$, $RMSEA=.059$)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 차이(Δdf)가 4일 때 카이제곱차이 값($\Delta \chi^2$)이 1.74로, 임계치인 9.49 미만이며, 모형 적합도 또한 기저모형과 측정모형 간의 차이가 미미하여,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었다.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ure 3, Table 7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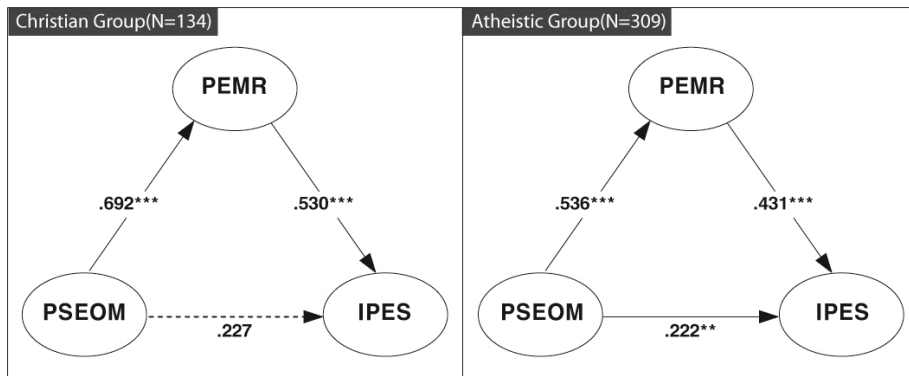


Figure 3.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

어떤 종교도 가지지 있지 않다고 응답한 무교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222**),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536***),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431***), 이 세 경로의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231***; 154~.349) 경로에서의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혼외관계인식의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가 검증되었다는 것은,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혼외관계인식’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경우,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227)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하게 된다.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692***),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530***), 이 두 경로에서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인터넷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실행의도’(.367**; 178~.631) 경로에서의 혼외관계인식의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가 밝혀졌다.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관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서 '혼외관계인식'의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가 검증되었다는 것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이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혼외관계인식'이 인터넷 음란물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 매개요인(mediator)으로 작용할 경우, 인터넷 음란물인식은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의 '혼외관계인식'은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임(crucial factor)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서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 형태에서도 무교인('부분 매개효과')과 기독교인('완전 매개효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 모두에서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무교, 536^{***} ; 기독교인, $.692^{**}$)과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무교, 431^{***} ; 기독교인, $.530^{**}$)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능가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기독교인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무교인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였던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는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7. The Result of Moderating Effect by Religion Backgoud (N=443)

Christian Group (N=134)				Atheistic Group (N=309)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PSEOM→IPES	.227	.442	.233	PSEOM→IPES	.222**	.441**	.150
PSEOM→PEMR	.692***	.531***	.102	SEOM→PEMR	.536***	.465***	.087
PEMR→IPES	.530***	1.349***	.324	PEMR→IPES	.431***	.988***	.188
Indirect Path				Indirect Path			
PSEOM→(PEMR)→IPES	.367	.716		PSEOM→(PEMR)→IPES	.231	.460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PSEOM→(PEMR)→IPES	.178	.631	.002	PSEOM→(PEMR)→IPES	.154	.349	.001

$$\chi^2 = 97.354, df=28, p=.000, TLI=.902, CFI=.935, RMSEA=.059$$

*** $p < .001$, ** $p < .01$, * $p < .05$

7. 성별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모형에서 기저모형($\chi^2=85.547$, $df=24$, $p=.000$, $TLI=.902$, $CFI=.934$, $RMSEA=.059$)과 측정모형($\chi^2=92.402$, $df=28$, $p=.000$, $TLI=.905$, $CFI=.930$, $RMSEA=.050$)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 차이(Δdf)가 4일 때 카이자승차이 값($\Delta\chi^2$)이 16.85로, 임계치인 9.49 미만이며,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기저모형의 적합도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모형 적합도에서 기저모형과 측정모형은 차이가 미미하여,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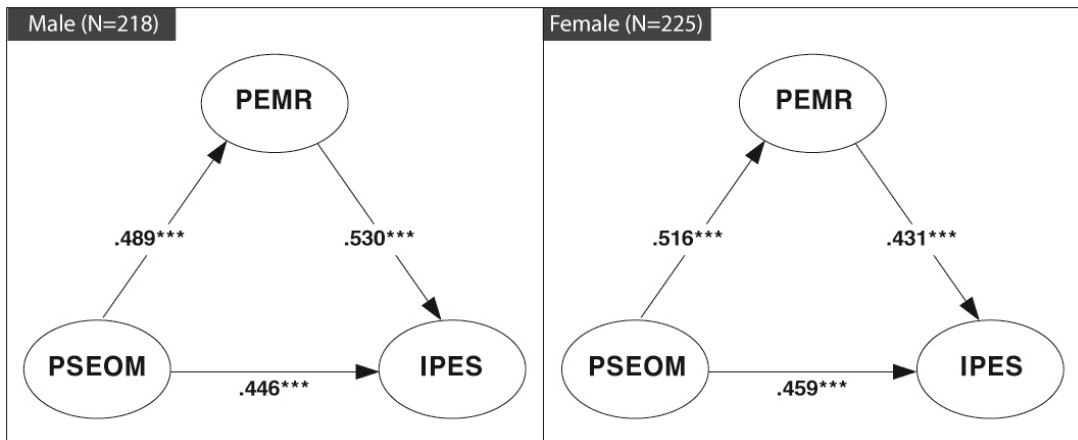


Figure 4.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Figure 4, Table 8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직·간접 경로들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남성 집단의 경우,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24***),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489***), ‘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445***),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18***; .136~.339) 경로에서의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여성 집단의 경우도, 남성 집단과 같이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14***),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516***), ‘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459***), ‘인터넷음란물인식→혼외관계인식→혼외성행위실행의도’(.237***; .148~.369) 등 모든 직·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한층 더 증폭시키는 혼외관계의 매개효과는 기혼 남성이나 기혼 여성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모두에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Table 3). 그러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 인식이 미치는 직접효과와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는 기혼 남성 집단과 기혼 여성 집단 모두 유의하였고,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의 영향력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기혼 남성 집단과 기혼 여성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가 유사하여, 성별 특성의 조절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직·간접 경로들의 직접효과(3개)와 매개효과(1개)는 남성이나 기혼 여성 모두에서 유의하여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인식,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 등에서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Table 3 참조),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 혹은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각각 미치는 영향력,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의 관계에서 ‘혼외관계인식’이 매개요인(mediator)으로 작용하여 미치는 영향력(효과)은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이 비슷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Table 8. Result of Moderating Effect by Gender(N=443)

Male Group (N=218)				Female Group (N=225)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PSEOM→IPES	.224***	.434***	.125	PSEOM→IPES	.214***	.434***	.125
PSEOM→PEMR	.489***	.445***	.095	SEOM→PEMR	.516***	.503***	.108
PEMR→IPES	.446***	.952***	.149	PEMR→IPES	.459***	.952***	.149
Indirect Path				Indirect Path			
PSEOM→(PEMR)→IPES	.218	.423		PSEOM→(PEMR)→IPES	.237	.479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PSEOM→(PEMR)→IPES	.136	.339	.001	PSEOM→(PEMR)→IPES	.148	.369	.002

$\chi^2 = 97.354$, $df = 28$, $p = .000$, $TLI = .902$, $CFI = .935$, $RMSEA = .059$

*** $p < .001$, ** $p < .01$, * $p < .0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443명의 기혼자들(남성 217명, 여성 225명; 기독교인 134명, 무교인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자료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음란물($M=3.13$)과 혼외관계($M=2.57$)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은 상당히 부족하며, 혼외성행위 실행의도($M=2.37$)도 낮지 않았다(IV.1 참조). 남성은 여성보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혼외관계에 수용적이며,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도 더 높아 성별 특성에 의한 차이가 밝혀졌다(연구문제 5). 기독교인과 무교인은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혼외관계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독교인에 비해 무교인들이 혼외관계에 대해 훨씬 더 수용적임이 밝혀졌다(연구문제 1).

둘째, 성별 특성(남성, 여성)과 종교 배경(기독교, 무교)과 무관하게, 인터넷 음란물에 덜 비판적인 사람이, 혼외관계를 더 수용하고(연구문제 2, 6), 혼외관계에 수용적일 수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도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였다(연구문제 3, 6). 인터넷 음란물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매우 강하였다(표 7, 8 참조).

셋째,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 모두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할수록, 혼외성행위 실행의도가 증가하였다(연구문제 6). 이러한 현상은 무교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인터넷 음란물이 혼외성행위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기독교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2).

넷째, 인터넷 음란물인식과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와와의 관계에, 혼외관계인식은 무교인 집단에서는 ‘부분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 기독교인 집단에서는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가 각각 검증되었다(연구문제 4).

이상 전술한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시사점과 함의를 모색하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기혼 남성은 기혼 여성보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혼외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이며,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도 더 높았다. 혼외관계와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뿐만 아니라, 혼외정사(extramarital affair)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 성행동들(예: 다수의 성파트너와의 성행위, 매매춘, 성폭력 등)(Wright & Randal, 2012)을 주요 콘텐츠로 사용하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에서도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증명된 것이다. 연구결과는 성(性)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행위에서 성별 특성의 차이를 주장한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천주현, 1992 ; 변주혜, 2002 ; 이

영화·이영숙, 2007 ; 함인희, 2012 ; 배정원, 2015 ; 신성자, 2017 ; 이원준, 2020 ; 이희진, 2021b ; Yucel, 2018)과 부합한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드러난 성별 특성에 의한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실행 의도, 인터넷 음란물인식에서의 차이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사회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혼외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고, 양성평등적인 성 인식을 갖기 위한 ‘재사회화’(re-socialization)가 필요하다. 혼외성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도와주는 실천 현장에서 일하는 실천가들(practitioners)들의 개입(intervention)에서,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중심의 개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혼외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기혼 여성에 비해 낮은 기혼 남성들만을 ‘표적 대상 집단’(target group)으로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입 대상을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에 개입하는 실천가(심리치료사, 상담가,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역할극, 소집단 토론 등)을 제공하면서, 성별 간의 인식의 차이(discrepancy)를 줄이고, 양성 평등적 성 규범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원조(helping)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교인은 기독교인에 비해 혼외관계에 대해 훨씬 더 수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은 무교인보다 혼외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혼외관계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은 기혼 남성(.445), 기혼 여성(.459), 무교인(.431), 기독교인(.530)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는 혼외관계 인식이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은 개인의 성행위는 성인식을 반영한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과 부합한다(이영화·이영숙, 2007 ; 이영숙·이영화, 2008 ; 함인희, 2012 ; Treas & Giesen, 2000).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에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혼외성행위 실행 의도가 혼외관계인식에 영향을 받는 현상은 무교인보다 기독교인에게서 더 뚜렷하다. 무교인의 경우와 다르게 기독교인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는 이들의 인터넷 음란물인식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무교인들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하여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 이것이 혼외관계의 실행을 촉발시키는 부정적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종교적 가르침과 신념이 혼외관계라는 십계명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제어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사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혼외관계 실행의도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인터넷 음란물 인식이 혼외관계 실행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밝혀졌다.

셋째, 전술한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discrepancy)를

반영한 실천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켜 혼외성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무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실천목표(practice goal)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 현장에서 이러한 실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개입할 경우, 그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혼외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이 기독교인에 비해서 낮은 무교인을 대상으로 혼외관계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외관계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혼외성행위 실행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무교인 보다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혼외관계인식에 대해서 남녀 간에 성별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별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개별 교회 단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지닌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구) 단위로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들(가족 상담소, 정신건강센터, 가족복지관 등등)에 의뢰(referrals)하거나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기혼자인 기독교인들 중에도 혼외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독교적 관점과 심리적 전문성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본인의 문제의 해결만이 아닌 주변에 혼외성행위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웃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무교인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문제의식이 적을수록,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기독교인의 경우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다고 해서 혼외성행위 실행의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히 무교인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음란물을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과거 비디오테이프나 CD와 같은 형태로 유통되던 음란물들은 불법유통을 근절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어느 정도 절제가 되었지만,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가로질러 유통되는 음란물들은 주로 서버가 해외에 있으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여서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기 힘들다. 더구나 개별 디바이스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전에 비하여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접하고 소비하기 너무나 쉬워진 상황이다.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록 음란물을 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더 낮아지기 쉬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음란물을 근절하는 방식이 아닌 비판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란물을 종교적으로 죄악시하는 윤리적 기준을 가진 비율이 높은 기독교인에 비하여 무교인의 경우 성인이고 기혼자이기에 인터넷 음란물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낮은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청소년이나 미혼인 사람들과 스스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어느 정도의 음란물시청은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음란물이 담고 있는 콘텐츠들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강간, 집단성관계, 혼외관계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콘텐츠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성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포르노산업은 실제로 매우 착취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 소비하는 음란물이 사실 누군가를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착취하는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 또한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통계나 사례들로 구성하여 기혼자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혼자들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같이 정기적인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집단들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들(가족 상담소, 정신건강센터, 가족복지관 등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인의 경우도,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을 매개(mediator)로,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기독교인이 혼외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수록 결과적으로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의도 또한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전술한 무교인들은 물론, 기독교인에게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비판의식 고취를 위한 실천개입이 혼외성행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음란물을 성경에서 금한 죄악이라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이 절대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독교인인 자신은 그러한 음란물과 거리를 두더라도 사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비기독교인들의 음란물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독교가 가진 높은 윤리적 가치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장소는 교회일 것이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집단이기에 교회 차원에서 중장년부 신도들에게 관련된 교육들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교회라는 공간에서는 성(性)에 관련된 주제를 가능한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성을 터부시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기준이기에 따로 언급하거나 다루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함께 듣는 설교에서 언급을 하기에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어려운 부분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성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그 기준에

다다르기 위한 교육과 뒷받침을 할 필요 또한 요구된다. 더구나 일반 무교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종교적 가르침의 가장 큰 윤리판단의 준거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며 기독교적 관점이 함께 녹아들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교회 차원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다. 재정과 인력의 여력이 있는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작은 교회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형교회들의 경우, 신도들 중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조언해줄 수 있는 인력의 풀이 더 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CGNTV가 2021년 2월에 런칭한 우리나라 최초 기독교 OTT 풍당(fondant) 또한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기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OTT의 특성상 계정주가 성인인지 아닌지 검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관점에서의 건전한 성교육프로그램을 OTT 풍당을 통하여 릴리즈 하는 것도 좋은 채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 기혼자를 위한 성교육과 음란한 콘텐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룬다면 어떻게 보면 다수의 대중들끼리 듣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껌연쩍은 내용들도 개개인이 편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 유튜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독교 유튜버들은 대중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성에 관련된 부분은 유독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들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 중장년층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을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영상 시청에 할애한다. 충분히 기혼자의 연령대의 사람들도 유튜브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튜브의 특성상 무교인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교회라는 공간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접근이 힘든 공간이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유명한 기독교 유튜버들과 뜻있는 교역자들이나 교회가 함께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일반 대중들도 훨씬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상 본인이 꼭 해당 기독교 유튜버를 선호해서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좋은 반응이 있는 영상들이 알고리즘 추천에 의하여 보여지게 된다. 그렇기에 일반 대중이라도 충분히 흥미로울만한 주제라면 기독교 유튜버들의 영상을 접할 수가 있다. 더구나 기혼자들의 성(性)에 관련된 수준 있는 콘텐츠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혼자들의 성(性) 의식과 음란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면서 대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든다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무교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성인인 기혼자 본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 의식을 가지게 교육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또한 포함되기에 기혼자인 대중들의 참여 및 시청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혼외성행위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대한 차이를 탐색한 개척연구로서의 작은 의미를 가지지만, 많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교회 주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다. ‘교회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연구 과제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 및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에 의해 어떻게 조절(moderating)되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타종교인들과 기독교인과의 차이에 대한 탐색은 간과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의 조절효과와 ‘기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의 조절효과를 각각 밝혔지만, 혼외성행위에 대한 인식 및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 및 ‘신앙 수준’ 등이 미칠 수 있는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신앙 수준’과 ‘연령’ 등을 포함한 다차원의 조절효과 분석을 할 수 있고, 기독교인과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분석이 용이하도록 더 큰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기혼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 및 혼외관계인식이 미치는 직접효과 혹은 간접효과가 다양한 요인들(성별, 연령, 기독교 유무, 신앙수준 등)에 의해서 어떻게 상이한 양상을 가지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공미혜 (2002). 혼외관계를 경험한 기혼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20.
- [Kong, M. H. (2002). Sexu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Married Women Who Have Experienced the Extra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2), 1-20.]
- 권혁남 (2015). 간통죄 폐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인문사회** 21, 6(3), 223-239.
- [Kwon, H. N. (2015). Abolition of Adultery Law and the Issu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6(3), 223-229]
- 김민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섹스 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 인터넷 사용 및 중독 실태와 복지적 접근,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79-114.
- [Kim, M. (2002). A Study on the Reality of Internet Addiction and Cyber-Sexual Addiction among Adolesc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Spring Conference*, 79-114.]
- 김성수·장성수 (2010). 종교정향 및 신앙성숙과 심리적 안녕감, 비행,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기독교 신앙을 가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2(2), 22-49
- [Kim, S. S. & Jang, S. S. (2010). The Relationship of the Religious Orientations, the Maturity Fai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linquency, Pro-Social Behaviors- Based in High School Christian Student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and Learning Consultation*, 2(2), 22-49.]
- 김소향 (2003). **남자고등학생의 사이버음란물접촉과 성폭력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Kim, S. H. (2003). *Consciousness of Sexual Violence Related to Cyber Pornography Exposure of High School Male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김유정 (2010).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4(6), 45-84.
- [Kim, Y. J. (2010).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fter Exposing Internet Explicit Materials Associated with Personal Factor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4(6). 45-84.]
- 김인수 (2014). **성인 사이버 섹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Kim, I. S. (2014). *Factors Influencing Adult Cyber Sex Addiction*.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김진희·김경신 (2008).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1), 123-138.

- [Kim J. H. & Kim, K. S. (200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123-138.]
- 남미애·홍봉성 (2012).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과 일탈적 성행동과의 관계: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연구**, 19(9), 93-124
- [Nam, M. A. & Hong, B. 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Deviant Sexual Activities : Focusing on Mediated Effects of Perceptual Fac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9), 93-124.]
- 박찬걸 (2010).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45(2), 41-69.
- [Park, C. G. (2010).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to Abolition of the Punishment for Adultery. *Kyung Hee Law Journal*, 45(2), 41-69.]
- 배정원 (2015). **성인남녀에서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중독 및 성기능과의 연관성**.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Bae, J. W. (2015) *Correlation of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with sexual addiction and sexual functions in adult men and women*. Doctoral Dissertation, INJE University of Department of Health, Gimhae, Korea.]
- 변주혜 (2002). **부부의 성연구 : 외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Byun, J. H. (2002) *A study on the sex of couples: focusing on affair*, Master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신성자 (2017). 성역할고정관념과 개방결혼에 대한 인식이 성적외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 수용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199-211.
- [Shin, S. J. (2017).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role and Open Marriage on Individuals' Intention of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Moderation Effect of Ge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3), 199-211.]
- 이동호 (2008). 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가톨릭 신학과 사상**, 62, 302-327.
- [Lee, D. H. (2008). Abolition of Adultery Law and the Issu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62, 302-327.]
- 이영숙·이영화 (2008). 혼외관계에 대한 허용도에 미치는 혼외성경험과 성별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631-638.
- [Yi, Y. S. & Lee, Y. H. (2008). A Study on the Permissiveness toward Extramarit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Extramarital Sexual Involvement and Sex.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4), 631-638.]
- 이영화·이영숙 (2007).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23-533.

- [Lee, Y. H. & Yi, Y. S. (2007). A Study on the Extramarital involvement of Married Men and the Related variabl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3), 523-533.]
- 이원준 (2020). 본인 및 배우자의 혼외관계에 대한 기혼부부의 인식 관련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682-694.
- [Lee, W. J. (2020). Correlates of the Perception of Married Couples about Individual's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Spouse's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6), 682-694]
- 이원준·이희진 (2017). 사회복지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91-227.
- [Lee, W. J. & Lee, H. J.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Students' Social Commitment on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Intention for Advocacy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Faith & Scholarship*, 22(3), 191-227.]
- 이장형·안수강 (2014). 그리스도 윤리표준에 나타난 인간 본분과 실천윤리. **신학과 실천**, 41, 263-288.
- [Lee, J. H. & Ahn, S. K. (2014). Christian ethical understanding of The Ethics of Jesu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ology and Praxis*, 41, 263-288.]
- 이현규 (1998). 영상매체 시청이 청소년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도신학**, 1, 123-165.
- [Lee, H. G. (1998). Effects of video media viewing on adolescent sexual behavior. *Apostolic Theology*, 1, 123-165.]
- 이희진·이원준 (2019). 기독교인 영상제작인력과 무교인 영상제작인력들의 영상물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 업무수행역량 및 직업만족에 관한 연구-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4(2), 189-217.
- [Lee, W. J. & Lee, H. J. (2019).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Problem of the Violence in Films, Job Performance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both Christian Film Crews and Atheistic Film Crews -On the Basis of Binary Logistics Analysis-. *Faith & Scholarship*, 24(2), 189-217.]
- 이희진 (2021a). 정서적 소외감과 정서적 성숙이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터넷음란물인식의 매개효과검증: 성별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6, 171-206.
- [Lee, H. J. (2021a). The Analysis of the Mediation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 between Married Men and Women's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and Their Emotional Isolation and Emotional Maturity: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6,

171-206.]

- 이희진 (2021b). 기혼남녀의 정서적 성숙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성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성별 및 혼외관계 만연성의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31(1), 41-87.
- [Lee, H. J. (2021b). The mediation effect of married people's sexual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maturity and perceptions of own extra-marital relationship: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s of Women's Studies*, 31(1), 41-87.]
- 장미향·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 [Jang, M. H. & Seong, H. G.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Bullying, Social Identity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1), 77-87.]
- 조은숙 (2013).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선호성과 위험 성행동 간의 관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0), 291-314.
- [Cho, E. S. (2013). Associations between the Internet Pornography Preference and Adolescents' Risk Sexual Behavior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 291-314.]
- 조주영·김영희 (2004). 영상매체 성매세지와 청소년의 성반응: 성태도와 성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2(3), 159-178.
- [Cho, J. Y. & Kim, Y. H. (2004). Sexual Messages in the Media and Sexual Reactions of Adolescent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Sex.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3), 159-178.]
- 지준 (2001). **컴퓨터 음란물 접촉경험과 청소년의 성태도, 성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Ji, J. (2001). *adolescences experience of computer obscenities and sex-attitude and sex-behavior*.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천주현 (1992). **성별에 따른 혼외성관계 허용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Cheon, J. H. (1992). *A Study on the Permissible Behavior of Out-of-wedlock Relationship by Gender*.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최현경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의식, 성행동, 성폭력인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Choi, H. K. (2012). *The Effect of Teenagers' Contacts with Internet Obscene Materials on Their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 and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Korean Insitute of Criminology. (1991).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consciousness of adultery*. Seoul: Korean Insitute of Criminology.]
- 함인희 (2012). 한국가족 내 부부간 성관계에 투영된 젠더 격차(Gender Gap). *여성학논집*, 29, 175-210.
- [Hahm, I. H. (2012). The Gender Gap Reflected in the Sexual Relations of the Korean Family. *Women's Studies Review*, 29, 175-210.]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S&M 리서치그룹.
- [Hong, S. H.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mediate*. S&M Research Group.]
- Ashforth, B. E. & Mae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 Chapin, J. R. (2000). Adolescent sex and mass media: A developmental approach. *Adolescence*, 35, 799-811.
- Finnis, J. (2011). *Sex and marriage: some myths and reasons*. Collected essays of John Finnis. Vol. III: Human rights and common good, 353-38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 Gagnon, J. H. (1990). The explicit and implicit use of the scripting perspective in sex research.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1(1), 1-43.
- Harley, W. F. (2011). *His needs, her needs: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Revell.
- Harris, C. R. & Christenfeld, N. (1996). Gender, jealousy, and reason. *Psychological Science*, 7(6), 364-366.
- Harris, C. R. & Christenfeld, N. (1996). Jealousy and rational responses to infidelity across gender and cultur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7(6), 378-379.
- L'Engle, K. L., Brown, J. D. & Kenneavy, K. (2006). The mass media are an important context for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3), 186-192.
- L'Engle, K. L. & Jackson, C. (2008). Socialization influences on early adolescents' cognitive susceptibility and transition to sexual intercours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2), 353-378.
- Longmore, M. A. (1998). Symbolic interactionism and the study of sexuality. *Journal of Sex*

- Research*, 35(1), 44-57.
- Luster, T. & Small, S. A.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3), 622-632.
- Schumacker, R. E. & Lomax, R. G.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sychology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earns, S. C. (2000). Daniel Bernoulli (1738): evolution and economics under risk. *Journal of biosciences*, 25(3), 221-228.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Austin W. G. and Worchel S.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 7-24). Chicago: Nelson-Hall.
- Tai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ifel,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Thompson, A. P. (1984). Emotional and sexual components of extramarit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35-42.
- Treas, J. & Giesen, D. (2000).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1), 48-60.
- Walsh, B. J. & Middleton, J. R.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MI: Baker.
- Wright, P. J. & Randal, A. K. (2012). Internet pornography exposure and risky sexual behavior among adult males in the United Sta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4), 1410-1416.
- Wolters, A. M. (1992).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 Young, K. S. (2002). *Getting web sober: Help for cybersex addicts and their loved ones*.
- Yucel, D. (2018).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 behaviours and attitudes among married individuals. *Families, Relationships and Societies*, 7(2), 317-334.
- Zillmann, D. & Bryant, J. (1988). Effects of prolonged consumption of pornography on family values. *Journal of Family Issues*, 9(4), 518-544.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기독교인과 무신론자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Perception of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on the Intention of
Christians and Atheists to Engage in Extramarital Sex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이 희 진 (한동대학교)

이 원 준 (창신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이 기혼 남녀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혼외관계인식의 매개효과가 기혼 남녀의 종교배경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여성보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혼외관계에 대해 더 수용적이며, 혼외성행위를 실행할 의도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인은 혼외관계에 대해 무교인보다 더 비판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독교인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혼외관계에 대해 이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혼외성행위 실행의도에 인터넷 음란물인식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음란물인식이 혼외관계인식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무교인은 물론 기독교인을 위해서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비판의식 고취가 혼외성행위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중요한 실천과제가 될 것이다.

주제어: 혼외관계인식, 혼외성행위, 인터넷 음란물인식, 기독교인, 무교인

목회자가 경험한 찬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raise Which Pastors Have Experienced

이 미 아 (Mia Lee)**

조 희 연 (Huiyeon Jo)***

문 소 영 (Soyoung Moon)****

ABSTRACT

Praise is music that exalts, praises, and glorifies God, and has spiritual strength and healing power.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how the pastor's experiences in praise and its meaning through the Colaizzi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ata collection began on February 14, 2022, and six pastors with experience in the praise ministry were purposely sampl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conducted through man-to-man in-depth interviews and additional interviews. Results consisted of 31 topics, 12 subject collections, and 4 categories. The four categories derived are the perception of identity as a saint, the promotion of the pastor's sense of mission, the awakening of worship, and the reinforcement of community. Through the results,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at praise has a close influence on the lives and worship of pastors and saints, and that it plays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in individual internal, external, and spiritual areas, and churches, communities, and worship.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repared an empirical basis for the value of praise by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pastors' vivid experiences. In addition, it is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have discernment from a biblical perspective so that the songs of praise that the members prefer and sympathize with can be properly applied to worship and personal life.

Key words: pastor, songs of praise, hymn, Colaizzi, phenomenological study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8일 최종수정, 9월 8일 게재확정

** 명지대학교(Myongji University)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객원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mia1023@hanmail.net

*** 명지대학교(Myongji University) 심리재활학과간협동과정 박사수료,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soul7575@empas.com

**** 명지대학교(Myongji University) 통합치료대학원 음악치료학과 부교수,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symoon@mju.ac.kr

I. 들어가기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라는 전도서 말씀을 기반으로 만든 염평안의 찬양곡 가사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내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네.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중략) 그러니 이제 날 내버려 두어라. 난 그것을 알 재간이 없으니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이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을 언급하며(전 2:1, 11, 17, 15-16), 인간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심정연, 2020).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제의적 행위로 노래나 춤, 그림, 글 등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곡조를 붙여 노래로 부르는 찬송은 대표적인 찬양으로 예배에서 사용된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사 43:21)”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찬양으로 규정하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교회음악을 찬양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찬양은 시편이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저자의 고백에 곡조를 붙여 노래로 부른 것이다. 시편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름, 속성, 성품, 구원, 베푸신 은혜, 인도하심 등이 있다. 시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찬양은 예배자가 찬양을 통해 마음의 기쁨을 얻고(시 105:2-3), 마음이 치유되고(삼상 16:23),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대하 20:22-23)를 경험한다. 또한, 고난을 이겨낼 힘을 받고(벧전 1:3-7),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며(욥 2:26), 두려움을 몰아내고(시 56:4)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시 40:3) 한다(정은주, 2004). 음악으로 표현하는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에는 영적인 힘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김도수, 2014).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한다. 목회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배 찬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예배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직무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도들에게 올바른 예배관과 찬양의 의미, 그리고 찬양의 기능이 무엇인지 교육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찬양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음악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배음악 선곡, 찬양 인도, 교회에 필요한 음악인의 고용, 악기 구매까지 모든 사역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은희, 2021).

목회자들은 많은 예배와 상담, 행정 업무 등을 감당하며 음악감독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때가 있어 목회자는 찬양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많을 것은 자명하다.

목회자와 찬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은희(2021)는 목회자 후보생들의 찬송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며 한국교회 예배 갱신을 위해서 목회자는 예배에 대한 이해와 예배 찬송의 영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으며, 곽희중(2021)은 한국교회의 음악 목회가 성경적 원리에 의해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도수(2014)는 현대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찬양의 개념적인 문제점과 오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며, 음악은 찬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사람을 위한 말씀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재송(2015)은 교육적 관점에서 찬송가 교육을 강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교회 현장에서 찬송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약화 되고 있기에 찬송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종훈(2022)은 음악은 현대 예배자들의 예배 참여 방식과 신앙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배 갱신에 대해서는 예배자들의 적극적이고 전인적인 참여를 제시하기 위한 목회적 노력이 지속해서 요구된다고 했다. 이처럼 찬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제언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본 연구자는 실제 목회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찬양의 기능적, 치유적, 교육적 역할들이 개인의 삶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시대와 문화가 변화함에 따른 찬양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어떠한지를 Colaizzi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Colaizzi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기술이 가능하며,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써 찬양의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찬양에 관해서 목회자의 경험은 어떠한지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분석하고 기술함으로써 찬양이 현재 우리의 삶과 예배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목회자의 찬양에 관한 경험과 그 의미는 어떠한가?”이다.

II. 교회음악으로서의 찬양

1. 찬양의 개념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속성, 성품, 역사하심, 말씀이 가사가 되어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찬양은 마음의 기쁨을 얻고(시 105:2-3), 마음을 치료하고(삼상 16:23),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대하 20:22-23)를 경험하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받으며(벧전 1:3-7),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골2:26), 두려움을 몰아내며(시 56:4)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시 40:3) 한다(정은주, 2004).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에는 영적인 힘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김도수, 2014).

찬양은 교회음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음악을 지칭한다. 교회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음악으로 예배를 비롯한 교육, 전도, 교제, 봉사 등에 사용된다. 교회음악은 성경의 본질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향한 소통과 기능으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찬양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예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교육, 전도, 친교에도 사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찬양은 성경의 본질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과의 소통기능으로도 사용된다. 성도들에게는 ‘예배 중심’으로 사용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문화를 통한 선교’로 사용된다(곽희중, 2021).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음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 음악, 믿음 이 세 가지는 기적이고 방황하는 영혼에는 위로와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 지혜, 선하심, 정의로우심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우형천, 2004).

2. 찬양의 특성

1) 성경의 진리가 담긴 곡조

성경적 진리가 담긴 찬양은 말씀 그대로를 활용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 김준범(2004)은 가장 좋은 방안 중 한 가지는 성경의 시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편 찬송은 지난 19-20세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발전해 왔으며 국가, 언어, 문화, 교단을 초월하여 예배 찬송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배음악도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의 경우 예배음악에서 고전적인 찬송가를 사용했지만 20세기 이후 현대음악과 즉흥적으로 작사 된 가사들이 여과 없이 찬양으로 만들어졌고, 예배음악으로 사용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성적 언어와 화려한 화성, 강렬한 리듬으로 이루어진 곡을 중심으로 예배음악의 주(主)가 되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찬송가들과 시편 찬송이 밀려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찬양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많은 찬양사역자와 찬양 예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찬송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시간 사랑한 찬송이며 영감으로 된 찬송이기에, 시편 찬양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보급하여 한국교회 예배 찬양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또한, 찬송가에는 새롭게 발견하여 묵상해 볼 만한 풍성하고 소중한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다. 요즘 대부분의 경배 음악보다 오히려 찬송가에서 훨씬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 부흥기에 태어난 찬송가를 부르고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과거의 교회와 연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는 큰 의미가 있다. 요즘 찬양곡들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지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채워주어야 할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한 찬송가와 시편 찬송과 같은 말씀 찬양의 유익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교회 예배 찬양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시간 지키며 사랑해 온 시편 찬양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 찬양이 예배에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다. 목회자는 찬양의 가사에서 성경의 진리,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신앙의 핵심들을 찾아내고 의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와 성도들이 찬양을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는 사명이 있다.

2) 공감적 기능

찬양은 공감적 기능의 특성을 내재한다. 찬양은 곡 자체와 그 찬양을 만든 작곡가와 일체 시 되는 특성이 있다. 음악이 작곡가의 인격과 삶을 반영한다면 그 음악이 작곡가를 대변하며 동일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기에 하나님과 개인적이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에 관한 고백이 작곡가의 삶에 존재한다면, 작곡가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감동이 고스란히 그의 찬양곡에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찬양은 작곡가 특유의 인간성이 반영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안성섭, 2003).

찬양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공감적 기능을 내재한다. 찬양의 언어는 말씀의 계시가 경험적인 계시를 통해 내재화되어 가사로 쓰인 것이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듯이 찬양 가사도 성령의 감화로 쓰였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은 작사가가 느낀 감동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감동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찬양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는 일체감을 경험하는 집단 음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찬양은 개인적인 자기표현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표현 방법이다. 성도들은 수동적인 강론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르는 능동적인 찬양을 통해 훨씬 강력한 신앙적 감화력을 얻기도 한다(안성섭, 2003).

3) 교육적 기능

찬양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교육적 기능이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한 신앙교육 때문이었다. 신앙의 전승이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변화나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도 복음이라는 진리를 통해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교육한다(김보경, 2016). 교회의 기능 중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하재송, 2015).

찬양의 교육적 기능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찬양에는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기능이 있다. 리프블래드(Leafblad)는 유년기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반복해서 듣고 부르는 노래와 찬송가에서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된다고 했다. 월거무스(Wohlgemuth)도 음악은 신앙교육을 돕는 가능성이 있고, 교회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에 대한 교리들, 그리고 삶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들에 대해서 음악을 통해 배웠다고 한다(김경진, 2013).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시편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였고, 대대로 그것들을 노래했으며, 후손들 역시 자신들의 마음과 신앙을 시편을 통해서 나타냈다(하재송, 2015).

둘째, 찬양에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돕는 기능이 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구원론적 관점에서 성화(sanctification) 과정이라고 한다. 조헨슨(Johansson, 1992)은 찬양의 목적은 성도의 성숙이라고 규정하였고, 찬양은 성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 중에서 하나라고 하였다.

셋째, 찬양에는 기독교적인 삶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다. 찬양은 성도의 삶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리프블래드(Leafblad)는 찬양에는 경건한 태도와 소망을 형성할 힘이 있다고 했으며, 찬양은 성도의 삶의 실천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찬양을 부를 때 성도들은 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스스로 권고받는다(김경진, 2013). 이러한 변화들은 음악 자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찬양이 담고 있는 내용, 즉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다.

4) 치유적 기능

성경에는 음악과 관련된 많은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치유를 위해 음악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음악으로서의 찬양에는 치유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Olaniyan, 2013).

음악 치유는 보통 네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다. 첫째, 음악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한 불안을 완화시켜주며 자유롭게 해준다. 둘째, 음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이완시켜주며 완화시켜준

다. 셋째, 음악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 넷째, 음악은 병리학적인 상실의 슬픔이나 무거운 짐을 완화시켜준다(Meremi, 1997).

성경에서 나타난 음악 치유의 예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다윗의 음악으로 낮게 하는 경우(삼상 16:14-23)와 다윗왕과 언약궤 사건(대상 15장)을 들 수 있다. 사무엘상 16장 14-2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다닐 때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선악의 문제, 악한 영의 정체 그리고 사울 왕의 고통 해결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유명복, 2016). 다윗의 음악은 사울이 겪었던 심한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육체적 이완을 가져올 만큼 강력했으며, 악한 영이 떠나게 한 것은, 음악의 힘이다. 또 한 가지 예는 다윗의 언약궤 사건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었고, 이것을 목도한 다윗은 크게 실망하고 두려워했다(삼하 6:9).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언약궤를 모셔올 때, 노래하는 자,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음악에 맞춰 언약궤를 가져왔으며, 다윗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 이에 대해 음악을 통해 다윗왕이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Alude & Ekewenu, 2009).

성경에 나타난 음악 치유의 예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멜로디와 화성 악기는 심신증을 치유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으며, 주요 악기는 수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트럼펫과 타악기는 두려움과 걱정을 떨치기 위해 사용되었다. 셋째, 노래는 긴장, 정서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Alude & Ekewenu, 2009).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찬양에 관한 목회자의 경험과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 Colaizzi(1978)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현상학은 인간이 경험하는 주관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행동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하는 철학의 한 학파로서, 람베르트(Lambert), 칸트(Kant), 헤겔(Hegel, 후설(Husserl)과 같은 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Omery, 1993).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Colaizzi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개인의 체험 중 공통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참여자 공통경험의 보편적 본질에 초점을 둔다. 또한,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경험의 본질은 주제로, 경험의 구조는 주제 모음으로 도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Colaizzi 현상학적 연구는 목회자가 경험한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기술이 가능하며,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조흥식 외, 2021).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목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찬양 사역의 경험이 있고, 찬양에 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이들에게 또 다른 목회자를 소개받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사역 경력은 교단에서 정식으로 시취를 받고 전도사로 사역한 기간을 포함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 기간 전체를 포함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주제와 목적 및 진행 과정, 익명성 보장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들로 최종 6인을 선정하였다. 연구 윤리에 따라 모든 인터뷰 내용이 녹취될 것과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 1’은 현재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이 되었으며, 28년의 사역 경력 중 찬양과 관련한 사역은 15년 정도 된다. 특별히 개척하기 직전 교회에서 찬양 담당으로 부임을 해서 주 10회 정도의 예배 인도를 2년 정도 하면서 찬양 사역이 기계적이고 인위적으로 되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다양한 예배 인도 방식에 대한 힘든 훈련을 통해 1년에 5kg의 체중이 감소한 적도 있다. 이후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중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고 계획하던 목회 방향성을 내려놓는 계기가 있었으며, 찬양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경험을 현재 목회하는 성도들과 나누며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예배와 목회를 하고 있다.

‘참여자 2’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었고, 중학교 시절 찬양 선교단체에서 다양한 악기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드럼 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1년 먼저 시작한 사람을 한두 달 만에 따라 잡을 정도로 재능이 있었다. 이후 찬양 목회를 위해 신학교로 진학하였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실용 음악 전공을 준비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교회 사역에 비전을 갖고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16년의 목회경력이 모두 찬양과 관련한 사역이었으며, 가장 힘들었던 학창 시절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참여자 3’은 스무 살 때부터 어린이 찬양 사역을 시작해서 현재 찬양 사역 경력이 20년이고, 여기에는 15년의 일반 사역 경력이 포함된다. ‘참여자 3’은 어린이 찬양 인도뿐 아니라 어린이 찬양 작곡 및 제작 경험이 있으며, 이후 청소년 찬양 인도와 장년부 찬양 인도까지 사역 범위가 넓어졌다. 특별한 경험으로는 직접 작곡한 찬양 선율에 성경 구절 그대로를 적용했을 때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참여자 4’는 사역 경력이 12년 된 부교역자다. ‘참여자 4’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마다 다른 찬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찬양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 방향성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매일 새벽예배 시간에 들던 찬양 연주곡을 통해서 답이 아닌 과정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후로 다시 목회의 소명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 5’는 지금까지 23년의 사역 경험 안에 찬양 사역이 포함된다. 전도사이면서 사모인 참여자는 다양한 형태의 찬양 사역 경험이 있으며, 그중에는 어린이 찬양 작사, 작곡, 율동 제작 및 음원, 영상 제작에 관련한 디렉터 경험이 있다. ‘참여자 5’는 어린 시절부터 하교 후 늘 교회에 들러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행복이고 위로였으며,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찬양이라고 했다.

‘참여자 6’은 이른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으며 일반 사역과 찬양 사역을 병행하던 중 최근 3년 동안은 찬양만 전담으로 사역 중이다. 찬양 싱글앨범 발매 경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에서 찬양 인도 경험도 있다. ‘참여자 6’에 의하면 찬양은 내 입술의 노래로,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 삶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기능이라고 한다. 최근 온 가족이 코로나 19에 걸려 한 달 정도 투병 생활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많이 힘든 상황 중에서도 찬양 인도를 해야만 했는데, 자신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을 선곡하여 성도들과 함께 부르며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참여자	성별	나이	직분	사역경력	사역분야	학력
1	남	49	목사	28년	담임목회	M.Div
2	남	39	목사	16년	청소년부, 찬양팀	M.Div
3	여	40	전도사	20년	차세대 사역	M.Div
4	남	37	목사	12년	청년부, 교구	Th.M
5	여	43	전도사	23년	어린이부	MA
6	남	37	전도사	15년	청년부, 예배찬양	M.Div재학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들과 1:1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2022년

2월 14일부터 시작하였고 개인별로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소요 시간은 1회당 약 60~90분 정도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졌고, 분석 중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추가 면담을 종료하였다. 연구 절차로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선행연구 고찰,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찬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참여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 찬양 사역과 관련한 목회 경험은 어떠한가요?
- 3) 찬양을 통한 개인 내적인 경험은 어떠한가요?
- 4) 찬양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찬양에 관한 목회자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Colaizzi의 프로토콜 분석 절차를 따랐다. 이 방법은 하나의 개념 혹은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개인의 공통적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연구자가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한 채 기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연구자는 분석 절차에 따라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였다. 둘째, 찬양에 관한 경험과 직접 연관된 문장이나 구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이나 반복되는 진술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진술을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고, 맥락 안에 내포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여 연구자의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넷째, 유사한 의미들을 통합하고 분류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 모음을 구성한 후 주제 모음들을 범주화하였다. 다섯째, 주제 모음들이 나타내는 현상을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여섯째, 찬양에 관한 경험을 범주, 주제 모음, 주제로 진술하였다.

5.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는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고 충실하게 해석하고자 면담 즉시 자료를 듣고 여러 차례 읽어 본질적 의미를 추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본 연구가 적용성

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연구 참여자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지를 논의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 심층 면담 방법, 과정, 자료수집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의도적인 문헌 고찰을 피하고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안에서 다양한 관점의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의미와 본질을 추출하는 분석과정에서는 편견을 배제하고 판단중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자 간 토론 중에도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과 의사소통으로 면담 후에 대상자가 기술한 내용을 여러 차례 읽고 의미를 끌어냈다.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 주제 모음, 범주 용어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목회자 1인과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의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연구의 분석 도구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론 과목을 수강하여 현상학 연구에 관한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질적 연구 소모임을 통해 연구를 대하는 태도와 시선에 대해 살피고 점검하는 것을 체득하였다.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과정을 수행했던 경험에 의한 다양한 시행착오 및 노하우에 따라 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Colaizzi의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220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로부터 31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12개 주제 모음, 4개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4가지의 범주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인식’, ‘목회자의 소명감 고취’, ‘예배 의식의 각성’, ‘공동체성의 강화’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성도로서의 정체성 인식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자들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 참여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해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며 찬양의 힘이 발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범주는 ‘치유와 긍정성 회복’, ‘입의 복록’, ‘하나님 께로 인도함’, ‘삶의 기준과 선택’이라는 4개의 주제 모음을 포함한다. 첫 번째 범주와 관련된 찬양 곡으로는 ‘참여자 3’가 언급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라는 곡으로, 청소년 사역 중에 “나는 누

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전한 후 기도회 찬양으로 부른 곡이다. 참여자와 학생들 모두 찬양에 감동이 되어 1시간 가까이 울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고,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Table 2. List of topics, collection of topics, and categories

주제	주제 모음	범주
부정적 감정을 몰아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얻음	치유와 긍정성 회복	성도로서의 정체성 인식
나의 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 말하게 하고 부르게 함	입의 복록	
개인의 삶에서 만남 말씀 앞에 멈추게 함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역할	하나님께로 인도함	
물음에 답을 줌 선택의 우선순위 회상적 찬양	삶의 기준과 선택	
본이 되어야 하는 부담감 가치관 세워주기 찬양을 신학적으로 분별하고 분석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의 사명감 고취
목회자 개인 묵상 찬양 찬양 인도자가 받는 은혜 예배자로서의 준비	예배자로서의 목회자	
말씀과 연계된 찬양연구 어려운 신학 개념을 단순화시킴 이달의 주제찬양에 대한 설교	말씀 전달자	
찬양이 곧 예배 마음을 두드림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	예배의 본질	예배 의식의 각성
말씀 자체로 만든 찬양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찬양 설교를 듣고 결단을 이끔	말씀의 감화력	
노래로 하는 기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줌	풍성한 기도	
전 세대가 공감 세대를 아우르는 찬송가	일체감 형성	공동체성의 강화
쉽고 단순한 찬양 세대별 선호하는 음악 장르 활용	연대감 확인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주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소진영 작사/작곡-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1) 치유와 긍정성 회복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라는 말씀처럼, 참여자들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소멸하고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며, 육체의 질병이나 어려움 등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얻는다고 했다.

예민해지고 짜증이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감사 찬양을 한참 틀어 놓은 적이 있는데,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참여자 5)

요즘, 아이도 아내도 몸이 많이 안 좋고, 제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이 바로 찾아오는 것을 느껴요. (참여자 2)

2) 입의 복록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라는 구절이 있다. 찬양은 내 입술로 불렀을 때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은혜가 되어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참여자들도 듣기만 하는 찬양보다는 찬양 가사를 직접 입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직접 불렀을 때 그 찬양 가사가 자기 고백이 되어 더 큰 은혜가 된다고 했다.

찬양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찬양의 가사가 자기의 인식 속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기도를 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6)

나의 삶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6)

3) 하나님께로 인도함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성인이 되어서 생각나기도 하고,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의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훗날 다시 교회로 나아오게 되기도 한다. 군대에서 불렀던 ‘실로암’, ‘야곱의 축복’은 제대 후에도 흥얼거리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도 있다. 또한, 개인의 삶 가운데 만난 어떠한 찬양들을 통해서 나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기도 한다.

12년 전, 초등부 아이들에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말씀을 전하면서 어린이 찬양 중 ‘깨끗한 그릇’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가사가 “반짝이지 않아도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해요.”라는 내용인데, 그때 한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 전해 들은 이야기로, ‘반짝이지 않아도’라는 찬양 때문에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참여자 3)

이 찬양은 저를 치유한 곡이라고 할까요, 사역에 꿈을 꾸고 내 목회 방향을 세우는 시기에 “A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라는 음성으로 다가오면서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있게 만든 곡이었어요. (참여자 1)

4) 삶의 기준과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선택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정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졌는지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참여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답을 찾거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나 비종교적 행위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그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통해 답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찬양 가사들은 대부분 고백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에게 있을 때 답을 주기도 한다.

찬양 가사는 이야기처럼 풀어서 쓰이기보다는 “하라, 하지 마라, 나가라, 말아라, 뛰어라, 멈춰라.”처럼 간단한 명령어로 쓰인 경우가 많아 찬양을 통해서 답을 듣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찬양이 답으로 이루어지는 고백과 답이죠. (참여자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 때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행위 중에 찬양하는 것을 선택해요.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이미 좋은 선택을 한 거로 생각해요. (참여자 5)

2. 목회자의 사명감 고취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 소명이나 사명감 없이 목회한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소명과 사명감이 사그라들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찬양이 목회자의 사명감을 회복하고 고취 시킨다고 했다. 이 범주는 ‘목회적 사역’, ‘예배자로서 받는 은혜’, ‘말씀 전달자’라는 3개의 주제 모음을 포함한다. 관련된 찬양곡으로는 ‘참여자 1’가 언급한 ‘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라는 곡이다. 이 곡은 ‘참여자 1’가 교회 개척 초기에 알게 된 곡으로 가사 중에서 “이제 말은 멈추고, 꿈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부분이 마음 깊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신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목회 방향성과 사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된 곡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내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네.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너와 나의 이야기가 맞물린 또 다른 이야기.

시간의 톱니바퀴가 찍어내는 웃지 못할 이야기. 그러니 이제 날 내버려 두어라.

난 그것을 알 재간이 없으니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염평안 작사/작곡-인생,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다)

1)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의 사역은 보통 예배 준비, 설교, 찬양, 부서, 심방, 행정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담당하게 된다. 각각의 사역은 특징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목회자는 사역에 따라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은 찬양을 접할 때 신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해요. 신앙의 깊이를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서기 위해 매일 말씀과 찬양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데 그때 선택하는 찬양은 목회자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찬양을 통해서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의 자존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못 박아 버리고 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줬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사역이지 않겠냐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여자 3)

저는 찬양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찬양의 초점 같은 부분에서 변질된 찬양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양의 의도와 신학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찬양 사역하는 동료 목사님과 찬양을 분석하는 유튜브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참여자 2)

2) 예배자로서의 목회자

참여자들은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이고 예배자다. 목회자들은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은혜를 설교나 찬양 인도할 때 성도들에게 나눠준다. 때로는 찬양 인도를 위해 한 곡을 선정하는데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도 한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하고 나눈 찬양은 목회자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성도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목회자나 예배인도자가 찬양곡을 미리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서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준비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찬양 인도를 준비할 때도 함께 부를 찬양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고, 예배에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참여자 2)

3) 말씀 전달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한다. 이때 말씀과 연계된 찬양 선곡은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고,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명료하고 단순한 삶의 언어로 단순화한다. 또한, 교회별로 올해의 찬양이나 이달의 주제찬양이 있다면 찬양곡이 만들어진 배경, 작곡가에 대한 이해, 성경적 해석 등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더 은혜가 될 것이다.

저는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 찬양의 가사로 들었을 때 훨씬 직접 다가오고, 그 가사에 얹어진 멜로디를 듣는 것이 힘든 학창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제가 생각하기에 찬양은 복잡한 신앙 언어를 단순화시키고 우리 삶에 맞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양이 정말 좋고 찬양이 신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의 중요도와 무게감이 같다고 생각해요. 설교는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주 명료하고 단순한 삶의 신앙 언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6)

이달의 주제찬양이 있다면 온 교회 성도가 이 찬양을 듣고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찬양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그 찬양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뜻과 곡이 해석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4)

3. 예배 의식의 각성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시 66:4)”.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으로서,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의식적 각성이 요구된다. 찬양은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한다. 찬양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되게 하고, 말씀의 감화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 범주는 ‘예배의 본질’, ‘말씀의 감화력’, ‘풍성한 기도’라는 3개의 주제 모음을 포함한다.

1)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예배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거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회중을 고려한 찬양은 마음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며,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이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이고 감사가 되게 한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으며 찬양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

찬양은 마음을 두드리는 힘이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뭔가 두꺼워진 것들을 허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는 친구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데, 아이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율동하는 모습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그 상의 의미도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5)

어떠한 일을 겪은 후 찬양 부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방송실 자막 사역을 1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다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2) 말씀의 감화력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와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왕하 3:15)” 이 말씀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성경의 내용이다. 이에 의하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은 힘이 있으며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며,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과 이어지는 찬양은 결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경우, 예배 사역 중에서 경배와 찬양도 중요하지만, 설교 말씀 이후에 하는 결단 찬양 시간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다짐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을 꼭 갖고 있어요. (참여자 6)

설교 전에 부르는 찬양은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한 진짜 준비 작업이고, 설교 후 결단 찬양은 말씀이 심어지고 나면 그 말씀이 또 잘 자라도록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중요하게 생각해요. (참여자 3)

저는 말씀 찬양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한 찬양이나 성경 내용 그대로의 찬양은 하

나눔 말씀 그대로니까 정말 힘이 있어요. (참여자 5)

3) 풍성한 기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한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를 때 찬양을 부르면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더욱 풍성해진다. 이때 찬양은 간증이나 고백의 내용이 담긴 찬양이 조금 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찬양의 음률도 중요한 부분으로 가사와 음률이 잘 맞을 때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찬양 시간에 목소리를 낸 아이들은 기도 시간에도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는 짧고 단순한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른 후, 어떻게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참여자 3)

저는 ‘주여’를 외치고 부르짖기 전에 설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곡을 선곡해서 말씀 끝날 때 항상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참여자 3)

찬양은 말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인식 속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의 내용들이 기도를 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기능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6)

4. 공동체성의 강화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곳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다. 세대별로 서로 다른 차이들은 있지만, 가족이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성이 있다. 찬양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회복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 범주는 ‘일체감 형성’, ‘연대감 확인’이라는 2개의 주제 모음을 포함한다. 관련된 찬양곡은 ‘참여자 2’가 언급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곡으로,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함께 부르기에 좋은 고백의 찬양이라고 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은 새 찬송가에 수록되기 전부터도 정말 좋은 찬양인데, 어르신들이 불러도, 젊은 사람들이 불러도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에 좋은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1) 일체감 형성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공감이가 중요한 부분이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찬양곡을 함께 부르는 행위를 통해, 그리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찬송가를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코드를 편곡하여 함께 부를 때 세대 간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요즘은 공감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도 마찬가지로 너무 젊은 층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 찬양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2)

어떤 찬양이 나한테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찬양하기보다는 회중의 연령대, 선호하는 음악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2) 연대감 확인

찬양은 세대와 세대 그리고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복적인 리듬 패턴, 순차진행의 선율이 적용되어 쉽고 단순한 구조의 찬양은 믿음이 없는 신자나 새로운 신자에게도 거부감 없이 예배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세대별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를 활용했을 때, 공감되는 가사가 있는 찬양을 통해서 연대감을 느끼고 예배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며 찬양과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같은 경우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 찬양을 많이 좋아해요. 교회 다닌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부르기 쉬워서 목청을 높여서 부르기도 해요. (참여자 2)

청소년부 수련회 때 축복송으로 자이언트의 ‘노메이크업’을 불렀어요. 가사의 내용이 “너희들은 화장 안 해도 이쁘다”인데 그때부터 학생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고 더 깊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참여자 6)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목회자가 개인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 찬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찬양은 목회자 개인의 삶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목회자로서 직업적 사명감을 고취 시키고,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풍성하게 하여 예식을 돕는 역할을 하고, 세대 간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강화한다는 4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로써 찬양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과 예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관계적 측면에서 개인의 내적, 외적, 영적인 영역,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찬양은 성도와 목회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 치유적이고 회복적인 가치를 갖는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가사가 되어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영적인 힘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김도수, 2014).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결과에 따르면, 찬양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목회에 대한 사명이 흔들리거나 소진되었을 때,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부정적인 감정이 소멸하고,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며, 육체의 질병이나 어려움 등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겨낼 힘과 회복할 소망을 얻는다고 했다. 또한, 찬양은 마음을 두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고 했다. 양정식(2017)은 찬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성도의 부르심의 소명 의식과 순종을 일깨워 주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하였으며, 오진아(2011)는 영, 혼, 육,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재 된 찬양은 인간의 모든 영역과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과 치유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한나(2021)의 연구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심리적 불안, 염려, 고독의 문제들이 긍정적 감정들로 대체되고, 신체적 질병의 회복과 함께 새 힘을 얻었다는 경험을 보고한 것과 함께 본 연구의 결과가 뒷받침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과 인식 중 하나는 성경 말씀에 기반한 곡의 활용적 가치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 찬양이나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가사로 한 곡들은 모두 신뢰할 만한 영적 가치가 있으며 깊고 풍성한 진리들이 담겨 있다. 참여자들은 찬송가(한국찬송가공회 저)에는 작사/작곡가의 의도와 영성이 노래 안에 분명히 드러나 예배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찬송가 사용이 필수적이며, 세대별로 선호하는 장르의 복음성가가 있지만, 찬송가의 능력과 가사의 고백을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희봉(2017)은 새롭게 발견하고 묵상해볼 만한 풍성하고 소중한 진리들이 찬송가에 가득 담겨 있고, 현대의 많은 경배 음악(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보다 찬송가에서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건강한 교회음악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는 성경의 시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찬송이자, 믿음의 선진들이 사랑했던 시편

찬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보급하여 바르고 균형 있는 예배 찬양의 발전에 관해서 주장하였다. 이는 양정식(2010)의 연구에서 먼저 제기된 내용으로, 설교 전과 후에 해당 주제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진 찬송가 선곡은 예배의 통일성을 지키고 성도의 깨달음과 결단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양이 예배 안에서 풍성해지면 성도의 삶 속에서도 더욱 풍성해져 삶과 예배가 연대함에 따라 통합된 크리스천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최근 음악 시장의 음원 제작 및 보급의 발전으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찬양곡들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겠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근 초점이 변질된 찬양들이 많이 보급되는 것을 걱정하였고, 찬양의 의도가 신학적으로 그릇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이는 박희봉(2017)이 치유를 위한 CCM 찬양 선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젊은 세대가 선호한다고 해서 무조건 CCM만 활용하다 보면 성경적이지 않거나 복음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음악이 예배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찬양을 선곡할 때 예배 신학적 타당성, 치유를 위한 찬양 가사의 건전성, 하나님 본성과의 부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목회자로서 늘 본이 되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일주일에 많으면 열 번 정도의 찬양 예배를 인도해야 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직업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목회자는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2중, 3중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김준수, 2007). 목회자로서 소명을 갖고 사역은 하고 있지만, 인간이기에 때로는 반복되는 사역에 매너리즘을 느끼기도 하고, 목회에 대한 고민,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선택 등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인 소명 의식은 목회자에게 직무 가치, 직무수행, 직무 만족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박진우, 2018), 소명을 재확인하고 회복하는 과정은 소진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오태균, 2009). 목회자들은 처음 목회에 대한 콜링을 받았을 때나, 소명에 관해 재확인할 때, 목회 방향성을 놓고 고민했을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답을 얻거나, 목회 방향성을 확인하고 소명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선행연구는 주로 목회자 사모와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이나 역기능의 회복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목회자 대상 인식연구와 문헌 고찰 연구 외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역기능 또는 돌봄이나 회복을 직접 다루는 논문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목회 사역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고, 돌봄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익숙한 대상임을 고려해본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목회자를 대상으로 소진 해소 및 소명감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목회자의 소진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따라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 돌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들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찬양에 관한 목회자의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찬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문헌 고찰 연구(곽희중, 2021 ; 김은희, 2021 ; 김도수, 2014 ; 임동일, 2009 ; 안성섭, 2003)인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찬양 사역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생생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여 그 의미를 분석 절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선행된 문헌 연구들에 대해 경험적 사실로 보완해 준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이 인터뷰 중에 표현한 찬양곡들이 오래된 찬송가와 복음성가들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안에 발표된 곡이나 세대별로 성도들이 선호하고 공감하는 찬양곡들을 통해서 현대 찬양의 흐름과 방향성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목회자 관점에서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 찬양의 기능적 측면과 활용에 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찬양곡을 왜 분별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관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목회자들이 담당하는 많은 사역 중에서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닌 찬양은 예배, 기도, 말씀, 공동체 등 사역 전반에 빠지지 않을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찬양이 목회 사역 내에서, 개인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찬양에 관한 교육과 분별력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찬양을 활용한 영적 돌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도 의미가 있다.

목회자가 경험한 찬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수적인 제한으로 목회자의 찬양에 관한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함으로써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목회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찬양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기에, 찬양이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영적 돌봄의 풍성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찬양의 경험과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며, 성경적이고 건강한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해지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성장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곽희중 (2021). **음악목회의 성경적 원리와 실천적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Kwak, H. S. (2021). *A Study on the Biblical Principle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usic ministry*.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권정희 (2008). **현대교회음악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 경향 치유를 위한 가사변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Kwon, J. H. (2008). *Contemporary Church Music's Affect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Seoul, Korea.]
- 김광열 역. (2000).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회복을 위한 개혁신학의 원리**. John, M. F. (1996).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Kim, K. Y. (2000). *Worship in spirit and truth*. Seoul: Chongshin University Publisher. Trans. John, M. F. (1996). *Worship in spirit and truth*. North America: Presbyterian & Reformed.]
- 김경진 (2013). **한국 실천신학 : 제12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학술대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Kim, K. J. (2013). *Practical theology of Korea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the 12th PCTS 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김도수 (2014). 현대 한국교회 찬양에 대한 개념강의 문제와 오용의 문제 및 제언. **신학과 실천**, 38, 171-198.
- [Kim, D. S. (2014). The Problems of the Concept and the Misapplication dealing with 'Praise' as well as Some Suggestions for Current Churches in Korea. *Theology and Praxis*, 38, 171-198.]
- 김보경 (2016). 유대인 하브루타 학습의 이해와 정착을 위한 과제. **신앙과 학문**, 21(1), 81-118.
- [Kim, B. K. (2016). Understanding and Prerequisites of Jewish Havruta Learning. *Faith & Scholarship*, 21(1), 81-115.]
- 김은희 (2021). 한국 신학교육에서 찬송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예배인도자로서 목회자 후보생 찬송 교육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97, 143-166.
- [Kim, E. H. (2021).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Hymns Education in Korean Theological Schools: Focusing on Hymns Education for Pastoral Candidates as Worship Leaders. *Bible and theology*, 97, 143-166.]
- 김준범 (2004). **시편찬송**. 서울: 고려서원.
- [Kim, J. B. (2004). *The Korean psalter*. Seoul: Goryeo Seowon.]

- 김준수 (2007).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 **복음과 상담**, 8(8), 33-58.
- [Kim, J. S. (2007). Clergy's Stress & Burnout.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8(8), 33-58.]
- 김태임·권윤정·김미중 (2012).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도시거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2), 85-97.
- [Kim, T. I., Kwon, Y. J. & Kim, M. J. (2012).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8(2), 85-97.]
- 나운영·조희수 역. (1990). **교회음악입문**. Wilson, J. F. (1965). *An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Na, W. Y. & Cho, E. S. (1990). *An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of Korea. Trans. Wilson, J. F. (1965). *An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Chicago: Moody Press.]
- 류호영 (2016). 목회자의 소명/사명에 대한 성경-신학적 이해. **신학과 실천**, 49, 185-217.
- [Ryou, H. Y. (2016).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Pastoral Calling in the Light of the New Testament Fulfillment. *Theology and praxis*, 49, 185-217.]
- 박진우 (2018). 목회자의 소명경험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9, 217-245.
- [Park, J. W. (2018). The study of pastor's calling experience. *Theology and Praxis*, 59, 217-245.]
- 박희봉 (2017). 개혁주의생명신학적 목회를 위한 교회음악 활성화 방안. **생명과 말씀**, 19, 11-41.
- [Park, H. B. (2017). A Study on the Healing Effect of the Church Music with Respect to the Reformed Life Theology as a Test Case of SaRang Church. *Life and Word*, 19, 11-41.]
- 심정연 (2020). 온라인 게임 과다 사용자의 실존적 공허감 치료를 위한 기독교 상담적 연구: 빅터 프랭클의 의미요법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5(2), 5-28.
- [Shim, J. Y. (2020). A Study of Christian Counseling Study for Intervening Existential Emptiness of On-line Game Overusers: based on V. Frankl's Logotherapy. *Faith & Scholarship*, 25(2), 5-28.]
- 안성섭 (2003). **교회와 치유음악목회: 찬양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 [Ahn, S. S. (2003). *Church and Healing Music Society: A Study on the Healing Function of Praise*. Masters Dissertation. Hupsung University, Gyeonggi, Korea.]
- 양정식 (2010). 현대 찬양경배예배의 이해와 개선점-예배찬양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2), 319-354.
- [Yang, J. S. (2010). A Study on the Contemporary Praise and Worship : Understanding and Analysis Base on Its Functions and Roles in Today's Worship. *Theology and Praxis*, (22),

319-354.]

양정식 (2017). 예배음악의 성서적 기원연구: 교회음악인가, 기독교 음악인가. **신학과 선교**, 50, 119-161.

[Yang, J. S. (2017). A Study of Liturgical Music from Biblical Origin: Church Music? or Christian Music?. *Theology and Mission*, 50, 119-161.]

오진아 (2011). **교회음악이 전인치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Oh, J. A. (2011). *The Influence of Church Music on the holistic healing*.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오태균 (2009). 목회자의 탈진에 대한 교회 교육학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22, 293-325.

[Oh, T. G. (2009). Christian Educational Task for Overcoming the Burnout of Korean Pastors.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22, 293-325.]

우형천 (2004). **찬양을 통한 내적치유**.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Woo, H. C. (2004). *Internal Healing Through Praise*. Masters Dissertation.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Gwangju, Korea.]

유명복 (2016). 음악의 치유기능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49, 141-165.

[Yoo, M. B. (2016). A Study on the Function of Music as Healing.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9, 141-165.]

이상일 (2016). 루터의 음악신학과 예배에서의 음악사용. **장신논단**, 48(4), 91-118.

[Lee, S. I. (2016). Luther's Theology of Music and His Use of Music in Worship.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8(4), 91-118.]

이중태 (1989). **예배와 교회음악**. 예찬사.

[Lee, J. T. (1989). *worship and church music*, Seoul: Yechan publishing.]

이한나 (2021). **기독교국악전공자의 국악찬양을 통한 치유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Lee, H. N. (2021). *Inquiry on Healing Experiences of Female Christian Musicians in Praising in Traditional Korean Music*. Doctoral Dissertation. Pyeongtaek University, Pyeongtaek, Korea.]

임동일 (2009). **교회음악에서 음악치료의 적용에 관한 치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외국어대학교.

[Lim, D. I. (2009). *Research On Healing Over Musical Healing in Church Music*. Masters Dissertation. Kyongb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yongbuk, Korea.]

정은주 (2004). **찬양의 치유적 기능에 대한 예배사역자의 태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Jeong, E. J. (2004). *Attitudes of worship ministers to the healing functions of praise*. Masters

-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정주영 (2020). **성경적 근거에 따른 음악의 기능 분석: 구약성경에서 언급된 음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Jeong, J. Y. (2020). *An analysis of musical function based on biblical basis : Centering on the music in the Old Testament*.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21).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4판)**. Creswell, J. W. & Poth, C. N. (2021).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th ed.)*. 서울: 학지사.
- [Cho, H. S., Jeong, S. W., Kim, J. S. & Kwon, J. S. (2021).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th ed.)*.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th ed.)*. Los Angeles : SAGE.]
- 주종훈 (2022). 오늘날 예배 갱신에서 음악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유형들 고찰. **신학과 실천**, 79, 89-112.
- [Joo, J. H. (2022). Reflection on the Paradigms of Music in the Contemporary Worship Renewal. *Theology and praxis*, 79, 89-112.]
- 주지은 (2013). 치유음악목회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8(1), 311-327.
- [Ju, J. E. (2013). A Study on Change of Pastors' Cognition about Healing Music Ministry.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88(1), 311-327.]
- 하재송 (2015). 교회음악의 교육적 기능과 찬송가 교육의 필요성. **성경과 신학**, 75, 379-405.
- [Ha, J. S. (2015). Educational Functions of Church Music and the Necessity of Teaching Hymns. *Bible and theology*, 75, 379-405.]
- Alude, C. O. & Ekewenu, D. B. (2009). Healing through music and dance in the Bible: Its scope, competence and implications for the Nigerian music healers. *Ehno-Med*, 3(2), 159-163.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2), 155-176.
- Hustad, D. P. (1993). *Jubilate II: Church music in worship and renewal*. Hope Publishing Company.
- Johansson, C. M. (1992). *Discipling Music Ministry: Twenty-first Century Directions*.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Meremi, A. E. (1997). Traditional African concept of sound/motion: Its implication for and application in music therapy. *British Journal of Music Therapy*, 11, 66-72.

Olaniyan, Y. (2013). Music as a facilitator for healing. *African Journal Online*, 21(13), 94-101.

Omery, A. (1993). Phenonmenology :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d Nursing Science*, 5, 49-63.

목회자가 경험한 찬양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raise Which Pastors Have Experienced

이 미 아 (명지대학교)

조 희 연 (명지대학교)

문 소 영 (명지대학교)

초록논문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음악으로 영적인 힘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찬양에 관한 목회자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어떠한가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작하였고 찬양 사역의 경험이 있는 목회자 6인을 연구 참여자로 목적 표집하여 일대일 심층 면담 및 추가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31개의 주제와 12개의 주제 모음, 4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4개의 범주는 '성도로서의 정체성 인식', '목회자의 사명감 고취', '예배의 각성', '공동체성의 강화'이다. 논의를 통해 찬양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과 예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탐구할 수 있었으며, 개인 내적, 외적, 영적인 영역,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목회자들의 찬양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찬양의 가치에 관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성도들이 선호하고 공감하는 찬양곡들을 예배와 개인의 삶에서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목회자, 찬양, 찬송, 콜레이지,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 벤 매넨(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

A Qualitative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of Christia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y Study Method

박병애 (ByungAe Park)**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post-traumatic growth of Christia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The researcher approached it with the hermeneutic phenomenology study suggested by Van Manen. The study analyzed not only the trauma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but also recovery and growth within the church community. Fiv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constructed by conducting one-on-one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tudy, 142 meanings were derived, which were composed of 45 themes, and the revealed themes were gathered into 14 essential themes. The 14 essential themes were rearranged into bodiness, temporality, relationship, and spatiality. The bodiness appeared as 'hell experienced while alive', 'fallen into sex slavery', and 'deprivation of motherhood'. Temporality was expressed as 'the collapse of the world's faith', 'the shift from the broad road to the narrow road', 'a new life', 'accompaniment on the way to heaven', and 'the spread of God's love'. Relationship was expressed as 'lack of life', 'exposure to gaze violence', and 'restoration of the image of God'. Lastly, spatiality appeared as 'left behind in China', 'Canaan's dream and reality', and 'rest under the broom tre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in the church community, suggestions were made on establishing a recovery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nurturing gender-friendly female ministers, and making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a subject in missionary work in China.

Key words: Christia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post-traumatic growth, trauma of escaping North Korea,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ministry to Princess Pyeong-gang(North Korean female refugees in China)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8일 최종수정, 9월 13일 게재확정

** 숭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 박사 후 연구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창의관 404호, bapark1@hanmail.net

I. 서론

북한이탈주민들은 과거 남·북한 체제경쟁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남한 입국은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으나 근래에는 시대적 상황과 정치 경제적 담론의 영향을 받아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의 헤어진 형제이며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과 그들이 겪는 도덕적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통일부(2022) 통계에 의하면 6월 말 현재, 남한에는 33,83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여성들이다.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배급이 끊기고 많은 주민들이 아사했다. 이런 와중에서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성들은 장마당 장사, 중국으로 노동 이주, 밀거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다. 이런 전통은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김정일 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였으며 이는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 남성들보다 탈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박병애, 2020). 탈북과 중국 체류, 남한 입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공포와 때로는 생명 박탈이라는 위협에 노출된 사건이다. 특히 여성들은 북한과 중국 체류, 남한 적응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행으로 한국에 입국하느냐 일정 기간 중국에 체류하고 한국에 입국하느냐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에 차이가 있다(강동완, 2019: 2-4).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있어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혹독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대부분 가족과 이별한 후, 중국에 도착한다(이영진·김혜원, 2019: 54). 하지만 중국은 인신매매와 체포되어 송환될 수 있는 공포와 성폭력과 같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북한이탈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호모 사케르의 존재 양식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김태현·노치영, 2003: 2 ; 양민숙·이동훈, 2017: 121 ; 이민영·김영경, 2007: 525-526 ; 박영호 외, 2010: 375-382 ; 박병애, 2020: 42).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보다 자유롭고 우호적인 환경을 찾아가는 노동 이주라는 관점과 함께 그들의 이주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이주라는 관점을 재개하고 있기도 하다(김화순, 2017: 236-238). 일부 북한이탈여성들은 스스로 중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Muico, 2005).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처한 환경과 중국의 구조 등을 살피지 못한 피상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신매매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확한 통계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ILO and Walk Free Foundation, 2017). 연성진(2018)의 북한이탈

여성들의 인신매매 범죄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90.7%는 중국에서 강제 결혼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소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성매매 경험 없이 중국 남성들과 결혼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호구 즉, 호적을 만들어 주지 않음으로써 불법 체류자의 지위에 묶어놓고 그들의 의지대로 여성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동완, 2017: 167). 이와 같은 극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한에 도착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새로운 땅에서 적응보다는 북한 체류, 중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성적 자율성의 저하는 물론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중국에서의 체류 경험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김윤아·김미영, 2016: 333 ; 김미자, 2010: 2-3 ; 김광호, 2015: 432-433 ; 김현아, 2016: 107-109 ; 김경미, 2021: 95-96 ; 이영진·김혜원, 2019: 47-48)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찾아 이주한 노마드(nomad)로 보기도 하지만(엄태완, 2015: 8) 이주민이 이주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 열악한 고용, 가족 결속의 와해, 주택과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박영호 외 2019 ; Potocky-Tripodi, 2002 ; Chang and Bemark, 2002)). 북한이탈여성들 역시 탈북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도덕적 손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도덕적 손상이란 전쟁이나 난민 생활과 같이 위협이 매우 큰 상황에서 부도덕한 일을 당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부적응 상태로서 분노, 우울, 자기에 대한 수치심, 죄책감 같은 현상을 유발하여 삶의 방향성을 상실케 할 수 있다(Shay, 2014). 이와 함께 북한이탈여성들이 겪는 인신매매, 가족과의 이별,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고독감과 절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성폭행, 인신매매, 강제 결혼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남성들보다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북한이탈남성들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영·김현경, 2007: 526 ; 이영진·김혜원 2019: 4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전쟁, 자연재해, 고문,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건이 지난 후에도 그 사건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질환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김상옥, 2020: 201). 이와 같은 도덕적 손상과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심리치료나 일시적 개입으로 치유되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한 외상 경험과 도덕적 손상은 자신의 정체성은 물론 존재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영성의 발현이나 절대자에 의한 치유에 의해서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간 국내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외상뿐만 아니라 외상 회복과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회복을 위해 노인 합창단 활동(이상희 외, 2021: 283), 명상 상담(김광호, 2015: 460-462), 정서

조절 전략(이명순·박경, 2011: 239), 스트레스 관리(이영진·김혜원, 2019: 54) 등이 수행되었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근원적 차원에서 그들의 회복을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외상 후 회복과 성장에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복지,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과 함께 신앙의 힘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효규, 2013: 186-188 ; 이숙영, 2014: 151-152 ; 박병애, 2020).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신앙이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만 보고되었을 뿐, 그 구체적 내용과 맥락, 교회 공동체 역할은 상세히 보고되지 않았다. 외상은 그 자체보다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발현되고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상 성장도 개인의 노력은 물론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맥락의 영향을 받기에 단순한 변수의 확인이 아닌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자기 삶의 해석 등 맥락 지향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김경미, 2021 ; Calhoun & Tedeschi, 2014 ; Alexander, 2007).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외상 경험과 함께 교회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외상의 회복 그리고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 후 중국 체류 경험이 있는 5명의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탈북 과정에서 생성된 도덕적 손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과 같은 부정적 사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치유 받았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이 교회 공동체로 귀환할 수 있는 실천신학의 방향과 함께 교회의 치유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치유 능력 강화와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북한이탈여성들이 겪은 탈북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치유는 어떠한가이다.

II. 연구방법

밴 매넨(Van-Manen) 해석 현상학적 연구접근의 의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중국 체류와 복음수용 후, 남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체험을 밴 매넨의 해석 현상학적 연구로 접근하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방법론을 불문하고 그 기본 정향에 오리엔테이션 정향이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을 재현하는 데 있지만 지오르기(Giorgi)와 콜라지(Colaizzi)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밴 매넨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는 하이데거(Heidegger)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연구자와 참여자의 지평을 융합하고 마치의 숲속의 빈터와 같은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경

험을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 현상학적 접근은 참여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능케 하기에 상호 주관적 차원에서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고통과 트라우마(Trauma)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기에 참여자들의 의미구성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융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밴 매넨의 해석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기 위한 통로이자 채널로써 신체성(corporeality), 시간성(temporality), 공간성(spatiality), 관계성(relationality)이라는 ‘4가지 근본적 실존체’(four fundamental existentials)를 제시하고, 그 구조 속에서 개인들의 경험을 해석하여 이를 생생한 지식으로 산출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여성이란 몸에 가해진 폭력으로 인해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자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존재하면서 상징 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의 삶은 북한, 중국 체류, 남한 입국, 교회 공동체라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시간 속에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드러난다. 북한이탈여성들의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고난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여 고난의 실천신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공간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해석 현상학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2. 참여자 선정

참여자는 마일스와 후버만(Miles and Huberman), 살다나(Saldana, 2018)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표집 유형 중 ‘강도 표집’(intensity sampling)과 기준표집을 혼용하여 선정했다. 강도 표집이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동시에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강도 표집으로 참여자를 선정한다. 연구자는 참여자 선정에 앞서 선정기준을 구성했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으로서 중국에 3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을 것. 연구자가 3년이란 기간을 정한 것은 중국에서의 장기간 체류 경험을 보기 위함이다. 둘째, 중국 체류 시 인신매매, 성폭력, 강제 결혼, 노동 착취, 생명과 신체의 위협 등과 같은 인권 유린 등 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 셋째, 한국에 입국하여 세례받고 5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참여자. 넷째,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상인 과도한 각성과 재경험 등과 같은 부정적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거나 소실된 북한이탈여성. 이러한 선정기준으로 참여자 5명을 정한 후,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중국에서 선교 경험이 있는 목회자 2인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고 참여자를 의뢰했다. 참여자 선정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rticipant

참여자 (participant)	나이 (age)	탈북 년도 (Year of defection)	재탈북 년도 (Year of defection again)	남한입국 년도 (Year of entry into South Korea)	신앙생활 한 기간 (a period of faith)	직업 (job)	인신매매 유형 (Human Trafficking Types)
참여자 1	30대	1998년		2007년	5년	신학생	중국公安 사칭, 인신매매 넘김
참여자 2	40대	2007년		2015년	8년	신학생	북한부터 알고 팔려감
참여자 3	40대	2007년	2013년	2013년	9년	대학원생	탈북 브로커가 인신매매 넘김
참여자 4	40대	2006년		2008년	10년	요식업	북한부터 알고 팔려감
참여자 5	50대	2003년	2015년	2017년	5년	일용직	조선족이 인신매매에 넘김

※ 참여자들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정보는 최소화하고 익명을 하였다.

3. 자료 수집

자료는 참여자들과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연구자는 자료에 충분성과 적절성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수행했다. 참여자들과는 1인당 3회 인터뷰를 수행했고, 회당 평균 6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들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수행했다. 심층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고 모든 구술내용은 녹음이 될 것을 고지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모두 수용하고 동의서를 작성했다. 심층 인터뷰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행하였다.

4. 자료 분석

질적 연구는 통상적으로 줄 단위 분석을 선호한다(Corbin & Strauss, 2015). 하지만 줄 단위 분석은 개념이 과잉 출현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의 전체보다는 부분에 집중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

려하여 연구자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선호하는 문장 단위 분석으로 접근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과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문서 본을 참여자 별로 각각 5회씩 정독했다. 이는 자료와의 대화 과정으로써 참여자의 삶을 부분과 전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둘째, 참여자들의 구술 중 참여자들이 중시하는 부분, 의미가 있는 부분 등을 분절하였고 여기에 주제를 명명했다

셋째, 주제는 참여자들의 언어와 그들의 체험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여 구성했다. 이런 개별적 주제들은 참여자들의 공통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하여 드러난 주제로 결집했다. 드러난 주제는 그들의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구자의 언어로 구성했다.

넷째, 드러난 주제를 다시 본질적 주제로 구성했다. 드러난 주제는 일부 참여자들의 경험이 결집됐지만, 본질적 주제는 모든 참여자들의 경험을 결집한 보다 고도화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밴 매넨은 주제 구성에 있어 메타포(metaphor)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는데, 연구자 역시 본질적 주제 명명에 있어 은유와 직유 등을 사용하여 주제를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 주제를 밴 매넨이 제시한 네 개의 근본적 실존체인 신체성, 관계성, 시간성, 공간성으로 재배열했다.

5. 자료의 해석

자료의 현상학적 반성과 글쓰기에서 밴 매넨은 개인들의 체험에서 행위 민감적 지식을 발견하고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존적 탐구과정을 제시했다. 실존적 탐구과정은 어원 분석과 관용어 분석 그리고 문화·예술작품 분석으로 이어진다. 연구자는 어원 분석에서는 탈북과 엑소더스(Exodus), 관용어 분석에서는 ‘삼팔따라지’와 ‘평양공주 사역’에 대한 어원 분석을 했다. 문학예술 작품 분석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삶과 남한 입국 과정의 어려움을 담은 영화 “뷰티풀데이즈”를 분석하여 행위 민감적 지식과 함께 독자들과 공유의 세계를 갖고자 했다.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은 신체성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으로 나누었고 연구자는 각 실존체에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을 해석했다.

6.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

(1)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는 타당도 신뢰도라는 용어 대신 엄격성이란 단어를 선호한다. 엄격성이란 연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문제이다(Lincoln & Guba, 1985). 연구자는 해석 현상학적 연구의 엄

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상학적 수궁’(phenomenological nod)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해석 현상학적 연구에서 해석은 공감의 해석을 의미하는데 (김경희, 2022; Van-Manen, 2016) 공감적 해석을 위하여 실존적 탐구과정에서 어원, 관용어, 영화 작품을 분석했고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현상하기 위해 일화(anecdote) 중심의 글쓰기를 했다.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생생한 표현을 중시한다(정상원·김영천, 2014).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생생한 체험이 담긴 구술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상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링컨과 구바(1985)가 제시한 동료지지 집단을 구성했다. 동료지지 집단은 연구자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공감 차원에서의 해석을 하는 데 조언을 했고 연구의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사료된다. 동료지지 집단은 ‘평강공주 사역’을 하는 1인, 북한 이탈주민들을 돕는 목회자 1인, 해석 현상학적 방법론 전문가 1인, 총 3인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패짓(padgett, 2016)이 제시한 연구자 참여를 통한 확인(member checking) 전략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연구자 해석의 자의성과 독단성을 예방하고 해석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과 기술을 종료한 후, 참여자들과 다시 만남을 가졌고 그들의 주관적 해석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해석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자의 해석에 동의를 했다.

(2) 연구의 윤리적 문제

본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88호)을 고려하여 윤리지침을 구성하여 소속 대학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SSU-202202-HR-393-1).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사적이고 예민하며 동시에 불행한 면들을 다루고 있어 참여자들의 비밀 보장이 최우선 과제였다. 참여자들과의 관계된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표시했으며 참여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했다. 또한 자발적 동의를 준수했다. 그리고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음을 문서로 보장했다. 참여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싫은 부분은 강요하지 않았으며 인터뷰 도중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인터뷰를 중단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고자 했다. 모든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연구 수행 중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윤리보다 더 중요한 핵심 윤리는 참여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미력하나마 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앙의 성숙 그리고 그들이 염원하는 북한 북음화와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 체류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사역에 기여하고자 했다.

III. 실존적 탐구 과정

1. 어원 분석

북한 탈출을 나타내는 언어는 탈북(脫北)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탈북은 한자로 벗어날 탈(脫)자와 북녘 북(北)자의 합쳐진 말로써 단순히 북한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은 성경의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엑소더스는 헬라어로써 Ex+Odus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Ex는 바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Odus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엑소더스는 길 밖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단어의 숨은 뜻은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역시 way out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대거 탈출한 것과 그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성경의 기사가 바로 출애굽이다. 참여자들의 탈북은 엑소더스로 볼 수 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길이었듯이, 참여자들 역시 북한에서의 탈출은 구원을 향해 걷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용어 분석

현재 북한이탈주민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의 탈북 후 삶을 다룬 관용어나 속담들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과거 실향민들에게는 ‘삼팔따라지’라는 비하어가 존재했다. 여기서 ‘삼팔’은 남북한을 갈라놓은 분단의 선을 의미하며, ‘따라지’는 도박판에서 쓰던 말이다. 도박판에서 따라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잃고 뒷전에 앉아 도박을 구경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과거에 실향민들을 ‘삼팔따라지’라고 불렀던 이유는 38선을 넘었다는 뜻과 함께 남한 사회 중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배회하는 아웃사이더(outside)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계에서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북한이탈여성을 ‘평강공주’라고 부르고, 이들과 그 자녀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치유하고 양육하는 것을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지칭한다. 평강공주는 고구려의 장수 온달 부인으로서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가난한 온달에게 시집을 와서 그를 장수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평강공주가 온달을 장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과 궁궐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려야만 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이 호화로운 공주의 생활은 아니었지만 기존의 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강공주가 온달을 장수로 만들었듯이 복음을 수용한 북한이탈여성들이 본인은 물론 북한에 복음을 전달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수 민족의 천병(千兵)이라는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 예술 작품 분석

북한이탈여성의 고단한 삶과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을 그린 영화 “뷰티풀 데이즈”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화 속에 담긴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영화 “뷰티풀 데이즈”는 북한과 중국에서의 아픈 과거를 지닌 채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여자 (이나영 역)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대학생 쟈첸(장동운 역)은 죽어가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오래전 자신들의 곁을 떠난 엄마를 찾아 한국에 온다. 쟈첸은 자상스럽고 현숙한 엄마를 기대했으나 엄마는 술집을 운영하며 한국인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 영화의 첫 시작은 화려하고 요란한 불빛 속에서 무표정한 엄마의 모습이 등장한다. 14년 만에 나타난 아들을 무심하게 대한다.



Figure 1. The protagonist of the movie depicting the hard life of a North Korean refugee woman.

쟈첸은 엄마가 일을 끝낸 후 뒤를 쫓았고 동거하고 있는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곧 한국을 떠난다. 쟈첸이 한국을 떠나는 날, 엄마는 그에게 선물을 사주며 쇼핑백에 자신의 일기장을 넣어준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그런 엄마의 슬픈 과거를 이해하게 된다. 엄마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탈출을 해 중국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황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된다. 황 사장은 탈북한 중국 여성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의 대표적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 이나영의 배 속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지만 임신한 그녀를 폭행하고 마약 장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족 남자에게 팔아넘긴다.



Figure 2. Head of a human trafficking group that sells North Korean refugee Chinese women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대부분의 영화는 탈북이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영화 “뷰티풀 데이즈”는 제목처럼 엄마의 아름다운 날들을 그리고 있다. 아름다운 날은 구체적으로 가족의 재회로 그려진다. 중국으로 간 젠첸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엄마의 슬픈 과거와 진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한국으로 돌아온 젠첸은 엄마의 새로 생긴 아이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조용히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며 영화를 끝난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엄마의 고마움과 엄마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뷰티풀 데이즈”가 전하는 메시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부담을 주는 이질적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통합의 상징이며 우리들은 갖은 고초와 고난 속에도 죽지 않고 살아온 그들의 생명에 감사와 경애를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체험을 문장 단위별로 분석한 결과 142개의 의미가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개별적 의미를 경험의 유사성 차원에서 드러난 주제로 결집했다. 드러난 주제는 45개로 나타났다. 드러난 주제는 다시 14개의 본질적 주제로 결집했고 이를 4개의 근본적 실존체 즉, 신체성, 시간성, 관계성,

공간성으로 재배열했다. 연구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 실존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신체성

신체성은 참여자들이 북한, 중국 그리고 남한 입국 후에 삶의 경험을 몸의 차원에서 결집한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몸은 단순히 살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신체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담는 그릇이며 시간성, 관계성, 공간성의 중심에 있다.

Table 2. Consolidation of phenomenological themes at the level of the body experienced

근본적 실존체 (fundamental entity)	해석학 본질적 주제 (hermeneutics essential subject)	드러난 주제 (exposed subject)
신체성	살아서 체험한 지옥	아사 위기 자기 삶의 저주 씨받이 전락
	성 노예로 전락	인신매매의 덫 값싼 상품 취급 성의 상품화 사냥꾼의 먹잇감
	모성의 박탈	자녀와의 생이별과 애끓는 모정 사라진 나의 삶

(1) 살아서 체험한 지옥

① 아사의 위기

참여자들은 고난의 행군 시절은 물론, 그 후에도 극도의 기아에 시달렸다. 고난의 행군시절에는 죽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고난의 행군시기가 끝나면 풍요로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고난의 행군은 끝나지 않고 또다시 연속이었다. 참여자들은 풀, 소나무, 벼의 뿌리 가루까지 먹어가며 초근목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탈북할 수밖에 없었다.

식량난, 이루 말 할 수 없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 어머니 아사하시고, 길거리에 있는 풀을 먹는데 짐승이 먹는 풀을 우리가 먹었거든요. 뉘 풀 빼놓고 다 먹었어요. (중략)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벼를 심으면 뿌리가 있잖아요. 그 벼 뿌리를 파서 가공해가지고 가루를 배급으로 나눠줬는데... 근데 그건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참여자 4)

② 자기 삶의 저주

참여자들은 중국으로 탈북 했으나 국적이 없는 약소국가 출신에게는 안정과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사람이 아닌 동물 취급받았으며 한족의 결혼 대상자 또는 성매매 대상자로 전락했다. 참여자들은 고령의 한족, 장애인, 정신질환자, 폭력성이 강한 남성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낳아 준 부모를 원망했다.

그 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무슨 동물원인 것처럼, 어린애들도 와서 보고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너무 창피하고 갑자기 서러움이 오고... 딸로 태어나자 아빠가 뒤집어 놓으라(죽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눈도 새까맣고 생긴 게 너무 예뻐 뒤집어 놓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날 좀 죽이지 왜 살려놓아 지금 이렇게 동물원에 동물 취급받으며 수모를 당하는지... 살려놓은 엄마를 원망했어요. (참여자 1)

③ 씨받이 전락

참여자들 중 매매혼에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가문의 뒤를 이을 자식을 낳는 용도로 전락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남녀 간의 친밀감, 애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씨받이 역할만 수행했다고 구술했다. ‘참여자 1’은 난쟁이 씨받이로 아들 출산 후,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다음날 떠나라고 했으며, ‘참여자 5’는 배우자가 있는 집안의 씨받이로 팔려갔고 임신하자 짐승 사육하듯 곡간에 가둬두고 먹이만 주었다고 구술했다.

짐승 먹이 주듯 딱 먹거리만 주는데... 어드메 바람 쐬러 나갈 때는 밖에 문 걸어놓고 딱 가둬 놓아요. 그래 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았어요. (참여자 5)

(2) 성 노예로 전락

① 인신매매의 덫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으로 입국했으나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인신매매단이었다. 브로커에 속아 인신매매단에 팔리기도 했고 일부 참여자는 인정을 베풀며 다가오는 조선족에게 속아 인신매매단에 팔렸다. 도움을 가장하기도 했지만 경찰을 사칭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했다. 사냥꾼들이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아 짐승을 잡아가듯 북한이탈여성들의 루트와 생활 반경을 고려하여 곳곳에 덫을 놓았다.

중국 친척 집에 식량을 얻으려 중국 땅에 도착하니 강가에 조선족들이 몇 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이탈여성을 지내들이 데려가려고 나와 있었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으니까 저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인신 매매단에 팔아먹으려는 속셈이 있는 걸 몰랐어요. (참여자 5)

② 값싼 상품 취급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되었지만 국적 없는 설움을 느꼈다고 구술했고 북한 당국을 증오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처럼 중국 돈 7천 위안에 팔려갔다. 중국 돈 7천 위안은 한화로 140만 원에 불과하다. 참여자는 자신들이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에 쫓기는 신세이기에 값싼 상품 취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고, 매매혼의 당사자인 한쪽은 돈을 주고 산 물건 취급을 했다. ‘참여자 3’은 한국에 입국한 후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없이 한족 남편도 불러들였는데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도 자신의 아내를 돈을 주고 산 물건 취급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을 심하게 하니 112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 경찰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북한 여자를 중국에서 돈을 주고 샀다. 그 여자 따라 한국 와서 결혼 등기도 했고 (중략) 나는 돈 주고 내 와이프를 샀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내 권한이다. 지금 내 물건이라는 거지요. (참여자 3)

③ 성의 상품화

참여자들의 성은 철저하게 상품으로 전락했다. 참여자들과 결혼한 중국 남성들은 단순히 잠자리 용으로만 대응했다. ‘참여자 4’는 중국 남성과 잠자리를 거부했다가 목이 졸려 죽을 뻔했고, ‘참여자 1’은 식당에 취업했지만 술 시중드는 일을 강요당했다. 참여자들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넘어 가장 고유한 성마저 상품화되는 경험을 했다.

말도 더듬고 모자라는 머저리 같은 사람한테 팔려 갔어요. 보통 사람을 만났으면 자식 낳고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그 유전자를 받은 자식이 훗날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나? 하는 생각에 배란일에 잠자리를 거부하다가 목 졸려 죽을 뻔 했어요. (참여자 4)

④ 사냥꾼의 먹잇감

참여자들은 중국으로 월경했으나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뿐이었다.

‘참여자 1, 3, 5’의 구술에 의하면 인신매매단은 중국 공안과 결탁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을 잡아들였고 일부는 사악한 조선족과 연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참여자들은 같은 동포마저 믿을 수가 없었다. 동포의 호의 뒤에는 인신매매라는 검은 마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을 노리는 것은 인신매매단뿐만 아니다. 중국 공안도 북한이탈여성들을 먹잇감으로 알고 달려들었다. ‘참여자 3’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으나 한국 돈 2천만 원을 뇌물로 주고 풀려나왔다. 그 돈은 사람을 살리려는 한국의 구출 사역하는 선교 단체에서 지불했던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사냥꾼들의 천지였고 참여자들은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날에 중국 공안이 돈 십만 위안 요구했대요. 중국 돈 10만 위안은 한국 돈 2천만 원. 북송 안 시키려고 부르는 대로 준다고 했는데 10만 위안 부를 줄 생각 못했는데 일단 사람 살리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3일 만에 돈을 만들어서 주고 나왔어요. (참여자 3)

(3) 모성의 박탈

① 자녀와의 생이별과 애틋한 모정

참여자들은 중국 남성과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은 했지만 자녀에게만큼은 어머니로서의 본능적 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 1’은 난쟁이에게 씨받이로 팔려가 아들을 출산했으나 정 줄 시간조차 없이 다음날 자식과 이별을 하였다. ‘참여자 3’은 자녀와 생이별을 했으나 생이별의 아픔과 함께 그리움으로 고통을 받았다.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교화소에 끌려가서도 오로지 아들 생각뿐이었고 아들이 보고 싶어 병이 나기도 했다. ‘참여자 5’는 딸이 생후 18개월 일 때 북송되었다. 남한에 입국하고 16년 만에 딸을 찾아 영상통화를 했으나, 16년이라는 기간은 어머니와 딸을 바다만큼 갈라놓기도 했다. 딸은 어색해했고 참여자는 또다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자녀와의 생이별을 애간장이 녹고 피눈물이 나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때 낳자마자 시어머니가 애를 안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앤데 내가 안아봐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어차피 너는 이제는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을 주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중략) 그때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3천 위안 돈을 주고 이걸 가지고 내일 떠나라는 거예요. (참여자 1)

② 사라진 나의 삶

모성과 함께 여성의 성도 사라졌다. 참여자들은 북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했지만 남성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또한 저주했다. 탈북 남성들은 여성들과 동일하게 체포에 대한 두려움, 인권 유린을 경험하지만 적어도 성에 대한 착취는 당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자기가 사라진 삶으로 의미를 구성했고, 중국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 내지는 후손을 낳아 주는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했다고 하였다. 이들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너무 억이 막혀가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내가 타파할 것인가? 오직 그 생각밖에... 저 사람하고 같이 억지로 자라면 내가 어떻게 잘 것인가? 북한에서 남자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것도 민족이 다른 한족하고 사랑하는 게 말이 돼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5)

2. 시간성

현상학적 연구에서 시간성이란 단순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시간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의 시간은 세상에 대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Table 3. The convergence of phenomenological themes in the dimension of experienced temporality

근본적 실존체 (fundamental entity)	해석학 본질적 주제 (hermeneutics essential subject)	드러난 주제 (exposed subject)
시간성	세상 믿음의 붕괴	돈의 배신 가족의 배신 폭군 같은 인색한 남편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의 전회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 세상 욕망 버리기 니즈웨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새로운 생명	고난의 의미 체험 기적의 체험 나를 살리신 하나님
	하늘 가는 길에 동행	하나님에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읽기 자기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 사랑의 전파	선교 제일주의 소명의 체험 가족 구원 열심 병든 북한의 영혼을 위한 기도

(1) 세상 믿음의 붕괴

① 돈의 배신

참여자들이 세상에서 보낸 시간은 배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중국으로 탈출한 후 돈의 위력을 절감했다. 처음에 참여자들은 돈이 진리인 줄 믿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고 심지어 팔아넘기는 것까지 목도한 참여자들은 세상은 냉정한 것으로 의미를 지었고 돈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이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참여자들은 남한 노동자의 1달 급여도 안 되는 돈에 팔려 갔지만, 그 돈은 모두 브로커의 몫이었다.

압록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준 브로커가 우리를 속이고 중국 인신매매단에 판 거예요. 강을 건너니 차가 한 대 있고 저희를 태우고는 밤새도록 그냥 가는 거예요. 세워달라고 소리치고. (참여자 2)

② 가족의 배신

믿었던 돈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후에 가족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했다. 북한의 가족들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참여자 2’의 경우 북한에서 결혼했으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5일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시가는 미망이 된 참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군대에서 제대하면 시동생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 아버지가 뇌혈병으로 쓰러지자 생활고로 주택을 매각했으나 그 돈을 삼촌이 편취해 가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도 위로나 위안을 얻지 못했다.

저는 끔찍하게 23살에 결혼 5일 만에 남편의 죽음을 제 눈에서 봤고, (중략) 남편이 죽었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안 내놓겠다는 거죠. 시동생이 또 저하고 동갑인데 군사 복무 돌아오면 저랑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참여자 2)

③ 폭군과 같은 인색한 남편

‘참여자 5’의 남편은 북한의 가족들과 연락을 하자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고 전화를 끊었고 ‘참여자 3’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매일이 통곡으로 지낸 밤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4’는 스트레스와 함께 극도의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돈에 팔려가면서 남편에게 한 가닥 애정을 기대했지만 참여자들의 모든 남편들은 폭군이었고 성에 굶주린 짐승에 불과했다

사람이 싫은 남자하고 사는 게 진짜 힘들죠. 잠자리 거부했다고 목을 조르고 죽이려 했어요. 그것

도 처녀로 와 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 눈에서 막 불이 뿜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눈에 독기가 서리니 시부모님이 의사를 불러 주사를 놔주기도 했지요. (참여자 4)

(2)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의 전회

① 인본주의 사고의 잔재

참여자들은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섰다. 참여자들은 중국 체류 당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고 남한에 입국한 후 교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실망했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끊임없이 향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들은 늘 피해만 보고 살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모르게 뇌리에 박힌 북한에서의 세속적인 교육 때문에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경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있었고 단지 교회 출석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물품을 받으려고 출석하기도 했다.

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니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회개해야지만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 나는 당하기만 했는데 뭘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한 번에 받아주는 게 옳은 거 아니냐? 했어요. (참여자 1)

② 세상 욕망 버리기

하지만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서서히 세상의 욕망을 버리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의 신변 보호와 남한에서의 물질적 후원 등 수단적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으나 세상으로 향한 욕망이 덧없음을 알았고 교회에 열심을 냈다. 참여자들 중에서 신학교에 입학한 참여자는 임대아파트를 거부했다. 좁고 웅색한 교회에서 거주하며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또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영혼의 풍요를 원했고, 돈을 많이 주는 직업보다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한 직업을 선택했다. 참여자는 서서히 세상의 욕망을 버렸다.

하나원에서 임대아파트 안 받겠다고 각서 쓰고 나왔어요. 2년 4개월 동안, 하나원 나와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와요. (참여자 2)

③ 니스웨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니스웨로 향했던 요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정신은

세상으로 향했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그것만이 자신의 억울한 삶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참여자들은 후일 자신들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만 해도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길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듯이 참여자들 역시 세상으로 향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도산을 하기도 했고 몸에 병이 들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도산과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믿었고 하나님의 길로 향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현장 노가다 했어요. 사실 신학교 얼렁뚱땅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겠
다고 주의 일을 안 하니 하나님이 다 쳐버렸어요.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되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들었지요. (참여자 2)

(3) 새로운 생명

① 고난의 의미 체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북한에서부터 중국, 남한에 이르기까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고난에 뜻이 있다는 자기 해석을 했다. 참여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신 것이며 언젠가는 자신들은 높이 들어 쓰시려고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해석을 했다. 참여자들은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해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렇게 고생은 시켰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이 말이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나도 이제는 누군가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참여자 1)

② 기적의 체험

참여자들이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고난과 고난 사이에는 항상 기적이 있었다. ‘참여자 1’은 출산 다음 날 헤어진 12년 된 아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기도하자 응답이 일어났고, ‘참여자 4’는 한국에서 탈북한 언니와 아버지와 재회하기도 했다. 신학교에 진학한 ‘참여자 1’은 경제적 사정에 주저했으나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준 목사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많은 참여자들은 중국에서 체포의 위험과 체포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구하러 옥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비록 뇌물을 받았지만, 탈출을 도와준

공안도 있었다.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2007년도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아버지는 북한에서부터 치매를 앓아서 여기가 한국인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막내딸이니 알아봤지요.
(참여자 4)

③ 나를 살리신 하나님

참여자들은 고난과 기적을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으로 해석했다. 참여자들은 중국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혹독한 고통을 당했고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자들은 늘 죽음의 그림자와 동행했다. 참여자들의 탈북은 출애굽 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만큼 험난한 길이다. 하지만 출애굽 후,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듯이 자신들에게도 탈북이라는 긴 여정 속에 함께 하셨다고 믿었다. 참여자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탈북과 체포, 복송과 재탈북의 연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잡혀 복송되니 하나님의 존재에 의지하게 되었어요. 북한 교화소는 생지옥이었고 4년 동안 뼈만 남고 허약 3도 판정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렸어요. 1년 형기 단축으로 살아 나왔어요. (참여자 5)

(4) 하늘 가는 길에 동행

① 하나님에의 의지

참여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간 것으로 의미를 구성했다. 모든 참여자들은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상태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에 세상 염려를 내려놓았다고 구술했다.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자신의 유능함을 믿고자 했다. 하지만 탈북 후 중국에서부터 참여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감을 체험했다. 남한에 입국한 후, 자신의 무력감을 또 한 번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맡기자 자신은 유능한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구술하기도 했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생략)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봐라. 그래서 그때 저는 말하는 대로 믿었어요. (참여자 1)

② 하나님의 마음 읽기

참여자들은 자신들은 비록 남한의 교인보다는 기독교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고 성경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에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구술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 계시고 특히 자신들을 북한에서 구출하신 이유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라는 우상주의에 빠진 타락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듯이 우상숭배에 빠진 북한 주민을 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듯이 진리를 모르고 사람이라는 우상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의미를 구성했다.

노아 홍수 사건 뒤에 타락한 백성들에 대해서 짝 발표를 하면서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땅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들여다봤어요. (참여자 1)

③ 자기 안에서의 행복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구술했다. 그들은 늘 자신 속에 간직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했다. 초월한 순간 이미 자신들의 마음속에 천국과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자각했다. 참여자들은 범사에 만족했고 언제나 불만과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자기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의 북한 탈출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였으나 남한에 입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능력이 생성되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고 왜 이 길을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중략) 내 길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려고 오늘날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구나! 이제는 내 목숨이 소중해서 못 죽겠는 거예요. (중략)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 행복해졌어요. (참여자 1)

(5) 하나님 사랑의 전파

① 선교 제일주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복음 전파를 두고 있다. ‘참여자 2’는 중국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귀국을 종용받았으나 선교의 사명 때문에 거절했다. 그는 남편과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편과 가족 못지않게 선교가 중요하고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편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

었다. 참여자들은 ‘평강공주 사역’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평강공주 사역’이란 중국에 있는 북한이 탈여성들을 돕는 사역이다. 참여자들은 바보온달을 고구려의 맹장으로 만든 평강공주를 떠 올렸다. 평강공주 역시 온달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궁에서 쫓겨났지만 남편을 장군으로 만들었다. 북한이탈 여성들은 북한에서 쫓겨난 평강공주이지만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할 수 있는 선도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남편이 중국 국적 해줄 테니 신학 때려치우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을 알아야 중국에서 사역을 하지요. 이곳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중국에 들어가야 교회 세우고 평강공주 사역부터 할 수 있어요. (참여자 2)

② 소명의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한다. 참여자들은 늘 퍽박받고 대우받지 못한 존재였다. 자존감이 저하되었고 자신은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부정적 자기 평가에 빠졌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들은 쓸모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들었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북한에서 해왔던 모든 사상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허무맹랑한 말보다 그들의 심금을 울렸다.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참여자들에게 남한 입국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입국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입국이였다. ‘참여자 1, 2’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들의 신학 공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함이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자 함이었다. 신학을 공부하고 교역자가 되어 자신이 받은 고난과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체험을 마음껏 설교하고 간증하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울고 힘들게 사는 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나도 저랬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깐 행복해졌어. 너 좀 들어오면 안 되겠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참여자 1)

③ 가족 구원 열심

참여자들은 가족 구원과 병든 북한을 위한 기도예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 신앙 없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믿는 자가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음에 회개하고 구원하고자 한다.

남편은 귀국을 종용하고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1개월 동안 남편의 구원과 신

학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남아 신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참여자2)

④ 병든 북한의 영혼을 위한 기도

참여자들은 아직도 중국 전역을 유리 방황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통스럽다고 구술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참여자들은 북한에 있는 2,400만 명의 영혼들은 우상 종교나 다름없는 김일성 주체사상 유일사상에 물들어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세계의 중심, 역사의 주인이라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빠져있는 개인들로 보았다.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의 선전 구호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종교와도 같았다. 참여자들은 주체사상이 뇌리에 깊숙이 빠져있는 북한 주민들을 피해자로 보았다. 참여자들 모두는 자신의 기도의 중심에는 선교가 있고 그 선교의 방향은 병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라고 의미를 구성하기도 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예요. 북한을 구원하는 길은 주체사상에 빠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참여자, 3)

3. 관계성

관계성은 참여자들이 가족과의 관계, 중국에서 압제자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에서 교인들과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Table 4. The convergence of phenomenological themes in the dimension of the experienced relationship

근본적 실존체 (fundamental entity)	해석학 본질적 주제 (hermeneutics essential subject)	드러난 주제 (exposed subject)
관계성	삶의 기반 박탈	생계 수단이 끊어짐과 가족관계의 와해 나의 땅을 떠나 타자의 땅에서 낚싯줄이 가족 구출을 위한 피나는 노력
	시선의 폭력에 노출	거미줄 감시망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피해의 의식
	하나님 형상의 회복	용서하는 하나님 마음 갖기 겸손한 삶 성경적 세계관

(1) 삶의 기반 박탈

① 생계 수단이 끊어짐과 가족관계의 와해

참여자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 배급의 단절로 인해 극심한 기아를 경험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극소수 고급 당원을 제외하고는 직업의 유무, 지위 등을 불문하고 극도의 궁핍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평민이 생존에는 유리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모두 생계 수단의 끊어짐을 경험했고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밭에서 흙쳐 먹기도 하고 장마당 장사를 해 생계를 이어갔지만, 당원이나 교사 등은 사회적 체면과 통제 등으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했어요. (참여자 4)

② 나의 땅을 떠나 타자의 땅에서 낚폼팔이

‘참여자 1’은 탈북하기 전, 중국 국경을 넘나들며 일당을 받고 일을 했으며 ‘참여자 2’는 병든 부모를 뒤로하고 청진으로 장사 떠나가도 했다. 참여자들은 떠돌이 낚폼팔이로서 중국과 북한 전역을 표류하였다.

중국 동네 집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일감이 있냐? 물어보면 있다고 하면 옥수수 심어주고, 콩 심어주고, 중국 돈 450위안을 벌여 가지고 와요. 그때 중국 돈 450위안이면 진짜 부자 중의 부자인 것 같았어요. (참여자 1)

③ 가족 구출을 위한 피나는 노력

참여자들은 가족은 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삶의 목적이자 희망이었다. 참여자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밤낮없이 기계처럼 일에 매달렸다. 참여자들은 일에 매달리며 고통을 잊고자 했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남한에 데려오는 것을 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참여자 1’은 엄마를 남한으로 데려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임종 소식을 듣고 구안와사가 와 한동안 고통을 받기도 했다.

2009년 5월 10일 엄마를 탈북시키려 다 준비가 됐는데 4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때 그 전화 받고 제가 그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 갔고 제가 갓을 때는 풍이 와서 입이 돌아갔어요. (참여자 1)

(2) 시선의 폭력에 노출

① 거미줄 감시망

참여자들은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중국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구타를 당했으며 이들이 중국에서 억지로 맺은 가족들은 모두 감시자였다. 참여자들은 탈출을 염두에 두고 낱품팔이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가족들이 감시를 했고 이웃이 감시를 했다. ‘참여자 1’은 화장실 가는 것도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곳에서 용변 보라고 강요당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중국 농촌은 한동네가 친척들로 이루어져 있어 동네 사람 모두가 감시자였다.

화장실도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도망갈까 봐. 아버지는 증풍으로 한쪽 구석에 누워 계시고.... 이런 강냉이 떼 있잖아요. 방 안에 이렇게 두루룩 가려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라는 거예요. (참여자 1)

②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참여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구술을 했다. ‘참여자 5’는 식량을 구하러 두만강을 건너니 기다리고 있던 조선족의 호의에 넘어가 인신매매단에 팔렸고, ‘참여자 1’은 중국 공안을 가장한 인신매매단에 걸려 물건 취급당하며 팔렸다. 교회 공동체를 만나기 전, 그들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못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또 약점 잡히고... 또 당할까 봐. 늘 사람한테 당했기 때문에. (참여자 1)

③ 피해 의식

북한에서는 사람이 제일이라는 주체 철학을 강제적으로 학습했지만, 참여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피해 의식이 생성될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들은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초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연하지 못했다. 남한 주민들이 호의를 베풀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를 의심했다. 이로 인해 남한 주민들과는 불협화음을 맺었고 불편한 존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인격적 특성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사람들로부터 호의와 지지를 받은 것보다 지독한 피해를 받았기에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 팔렸고 늘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했잖아요. 늘 무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슬픔이 있고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또 업신 당하고 여기 와서도 언제든지 또 팔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4)

(3) 하나님 형상의 회복

① 용서하는 하나님 마음 갖기

참여자들은 증오의 대상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돈을 주고 사 왔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중국 남편부터 자신을 팔아넘긴 인신매매단, 인권을 유린했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고 사람의 몫은 용서라는 사실을 체험했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북한 주민들 속에서 저를 먼저 탈북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나를 중국에 팔아넘긴 브로커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3)

② 겸손한 삶

참여자들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요로움이 생겼다. 이와 함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내면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자 했다.

시편의 말씀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였듯이 두 번의 탈북을 하여 온갖 고난을 당한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마음속 아픔이 치유되고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참여자 5)

③ 성경적 세계관

참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에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세계관을 가졌으며 중국으로 탈출한 후에는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했다. 그들은 오로지 생존이 유일한 목표였고 생존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돈 이외에는 믿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복음을 수용한 후 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고난은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해 예비한 것이니 자신들은 북한이 수복되

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예비 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다. 아들까지 죽이면서... (중략) 내 죽음을 하
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이런 환란과 고통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 했다는
것이 느껴지자, 복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소명을 갖고 있어요. (참여자 1)

4. 공간성

Table 5. Gathering of phenomenological themes in the dimension of experienced spatiality

근본적 실존체 (fundamental entity)	해석학 본질적 주제 (hermeneutics essential subject)	드러난 주제 (exposed subject)
공간성	중국이라는 감옥	사악한 공권력 불안한 체류
	가나안의 꿈과 현실	목숨을 담보로 한 탈출 소망의 땅 한국 국적의 위력
	로댐나무 아래서의 심	내 삶의 심터 성경 자기의 개방과 치유 눈물의 치유 공동체

(1) 중국이라는 감옥

① 사악한 공권력

참여자들은 북한, 중국, 한국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공간의 체험을 했다. 참여자들은 중국 체류
시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불법 체류자였지만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북한의 권력자와 중국 공안은 참여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탄압했고,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했다. 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만일 악마가 있다면 그
것은 중국의 공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표현처럼 중국의 공권력은 사악했다. 이와 같은 사악한 공
권력 아래에서 그들의 중국 체류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생명의 위협이었다. 북한의 공권력은 무력했
고 중국의 공권력은 잔인했다.

중국 공안이 북한에 갈 거냐? 다시 팔려 갈 거냐? 무서운 거예요. 저를 팔아 달라 했더니 이번에는
진짜 좋은 집에 팔아줄 거다 한 게 결혼해서 같이 데리고 살 사람이 아니라, 123cm 난쟁이의 씨받

이로 팔려 간 거예요. (참여자 1)

② 불안한 체류

참여자들은 호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적을 만들고자 했으나 중국인들은 호구를 만드는데 협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했다. 중국인들은 참여자들을 무국적자로 만들어 중국에 묶어두려고 했다. 호구가 없는 상태에서 탈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집에서는 호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예요. 재네끼리 하는 말 들어 보면, 온 지 몇 달도 안 되는 게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일거리 찾고 같은 민족을 찾아서 돈 보내는 여자가 호구를 해주면 상해를 갈지? 홍콩에 갈지? 어떻게 아는가? 절대 안 해 주는 거예요. (참여자 5)

(2) 가나안의 꿈과 현실

① 목숨을 담보로 한 탈출

참여자들에게 있어 한국은 가나안이었다. 참여자들은 중국에 유수 되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남한에 입국했지만 모두 ‘악어의 강’(메콩강)을 건너야만 했다. 악어가 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며 상처가 난 사람이나 생리를 하는 여자가 있으면 피 냄새를 맡기 때문에 자수를 하라고 하며 추가 요금을 받았다. ‘참여자 4’는 추가요금을 냈고 강을 건널 때까지 일행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

브로커가 생리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타면 악어가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들어 배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며 위험수당으로 2배를 요구했다.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정착금 받아 주기로 하고 마음을 졸이며 배를 탔어요. (참여자 4)

② 소망의 땅 한국

참여자들은 라오스에서는 철쭉 같은 밤을 이용해 산을 가로지르며 탈출했지만, 그것은 빛의 여정이었다. 참여자들에게 한국은 소망의 땅이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정착금을 준다는 말을 믿었고, 중국에서 위성 TV로 본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었다.

중국 TV 틀면 한국 방송이 잡히거든요. 한국 드라마 ‘첫사랑’이라는 거 봤어요. 그거 보면서 한

국이 잘 사는 나라구나. 북한은 헐벗고 굶주리고 강퍽 뒤지고 실업자들이 많은데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서울이라는데 언제 가보겠나? (참여자 5)

③ 국적의 위력

참여자들은 한국에 온 후 국적을 취득했다. 그리고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무국적자로서 늘 체포와 송환의 불안 속에서 지낸 참여자들에게 국적은 남한 사람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인과 결혼한 ‘참여자 3’은 중국과 한국에서 폭력을 당했는데 한국에서는 112에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했고 보호를 받았다. ‘참여자 2’는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여권을 만들고 한국인 자격으로 중국을 다시 방문했다. 그를 탈북자로 오해한 중국 공안은 ‘참여자 2’를 복송시키려고 무례하게 대하다가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자 공손해졌다.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국적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이렇듯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패와 같은 기능을 했다.

복송이 아니라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랬더니 여권 보여 달래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여권을 보이나? 고 당당하게 나왔어요. 엇다 대고 소리치느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너희처럼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보겠다는 경찰이 없다. 먼저 깡뚝이 인사하고 보자고 한다. 북한이탈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하고 중국 들어간 게 제가 처음이었어요. (참여자 2)

(3) 로템나무 아래에서의 쉼

① 내 삶의 쉼터 성경

참여자들에게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 외에 북한 중국을 거쳐 뺨친 된 육신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쉼터였다. 중국에서 복음을 수용한 참여자는 탈출 내내 성경을 끼고 있었고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삶이 피곤하고 곤고할 때마다 성경은 위로가 되었다.

태국으로 출발할 때 1개월 전부터 금식 기도해요.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공안한테 잡히면 우리는 다 복송돼야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성경을 항상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됐어요. 중국 공안이 우리 차에 올라와 다 내려오라 하고 짐 조사했는데 성경책 못보고 전원 통과해 준 거예요. (참여자 2)

② 자기 개방과 치유

참여자들은 초기에는 교회 출석한 후에도 교인들과의 거리가 있었으나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꺼

내기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인신매매 팔려 강제 결혼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용기를 얻었고 교회 간증이나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개방하자 치유가 일어났다. 참여자들에게 있어 교회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이다. 참여자들은 저마다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

속상한 것 있음 이야기 해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중국에 있는 애가 보고 싶다고 하고 나니
까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숨이 팍 쉬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팍 터뜨리고 나니까 뭔가 없었던 것이 툭 열리는 것 같은... (참여자 5)

③ 눈물의 치유 공동체

참여자들은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많다. 극도의 궁핍과 고난 속에서는 피붙이도 제 살길을 찾아 서로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우들이 함께 울어주는 것에 감동했으며 이들은 교인들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구술했다. 따라서 타자의 고통이나 슬픔에는 공감하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교회에 출석한 후 가장 큰 변화가 남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구술하기도 했다.

씨받이로 중국 체류 시 나온 자식이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눈물 막 뚝뚝 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참여자 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 경험과 성장에 대한 해석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여성의 도덕적 손상과 외상의 구성 요소나 맥락보다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회복에 방점을 찍고 밴 매년이 제시한 신체성,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이라는 4가지 근본적 실존체 틀에서 분석했다.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생존과 가족을 위한 이중의 노동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과 같은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들을 팔았던 조선족 인신매매범, 반죽음을 만들었던 보위부원, 무차별 폭력을 가했던

중국인 남편, 북한과 중국에서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다. 이들은 상처의 회복뿐만 아니라 아직도 팔려 다니는 재중 북한이탈여성을 돕는 자로 쓰임 받으며 그들에 대한 선교 의지로 구체화 되었다. 참여자들은 상처 입은 전도자로서 자신의 상처 치유 경험을 보다 대승적이고 성경적 차원에서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개진하고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을 도울 수 있는 기독교 선교 차원에서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간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은 사회적 지지와 함께 개인들의 탄력성이 발현되어 자기의 효능감과 자존감을 향상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경임·전혜성, 2020 : 428 ; 이순선, 2018: 110). 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상 후 성장은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의 회복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섭리에 의해 발현된 것이며, 이는 참여자들이 지난 삶의 비극과 외상 경험을 해소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원인이었다. 이와 함께 교회 공동체의 지지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역에 있어 그들이 사회 재적응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자원을 결집하여 외상 후 성장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국가 가부장제에 의한 북한 여성들의 희생과 이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체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 가부장제를 부활시키고 여성은 혁명 전사를 키우고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꽃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실패를 여성을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고 가족부양과 돌봄을 위해 고된 노동을 감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미자, 2010 ; 김경희 외, 2016). 참여자들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가 가부장제 희생양이었고 노동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유린당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만 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북한과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교회의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치유만이 이들의 삶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 후 성장의 치유에 대한 심리·정서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지만(김윤아·김미영, 2016 ; 이상희 외, 2021 ; 김현경, 2011), 이들의 상처는 심리·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 문제이며 영혼의 문제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방주와 같은 안정감과 애착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탈북과정에서 단절과 고립 그리고 소외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소통의 장이자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이순형 외, 2015 ; 이희철, 2019). 교회의 선교 기능 중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치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교회 또는 교회 연합체가 중심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정서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고 장소 제공, 예산의 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서조차 치유하기 힘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만 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

여자들에게 있어 교회는 보호처이자 치유하는 곳이었다.

셋째,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이다.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북한이탈여성을 외상과 다양한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지니고 이 땅에 온 사람들로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경미, 2021 ; 이명신, 2020). 하지만 북한이탈여성들이 보이는 적응 문제는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상징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북한이탈여성은 구약 성서에 있는 하갈과 비유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은총이 내려져 있음을 분석하고 교회의 목회 상담적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도 있다(구본경, 2021). 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들은 하갈이라기보다 룻에 가깝다. 하갈이 광야에서 기진하여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것 같이 북한이탈여성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았다. 룻이 이방인의 땅에서 생존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보살폈듯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개인들이라는 것이다. 룻이 다윗왕의 증조모가 되었듯이 북한이탈여성들의 후손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룻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그의 삶을 지원한 보아스는 누구인가? 보아스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고 본다.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보아스는 남한 기독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고독한 영혼들 앞에 나타나시어 축복의 약속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남성이나 기득권 계층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은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복지와 지지의 대상이지만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개인들이며 이를 교회가 지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특히 북한이탈여성들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전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음은 이상이고 원리이지만, 선교는 현실이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들을 좀 더 젠더 친화적 관점에서 돌볼 수 있는 여성 전담 선교사들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참여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평강공주 사역’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다. 참여자들은 모두 중국에서의 혹독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은 인신매매에 대한 유혹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김태현·노치영, 2003 ; 양민숙·이동훈, 2017).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에게는 중국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기계 때로는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하여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 역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을 돕는 사역이다. 이러한 ‘평강공주 사역’은 중국 내 체류하는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선교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판이 되어 북한선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교회는 북한선교뿐만 아니라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와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김경진, 2015 ; 최병우, 2016). 매우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가 전문 선교인이나 목회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선교는 원주민에 의한 선교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Seltz, 2016 ; 김성은, 2009). 문화적 저항이 적고 핵심적인 친숙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강공주 사역’과 같이 중국 내 선교를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방안과 함께 평신도 선교사로 파견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신앙의 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에 이른 기독교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하지만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외상 경험을 겪었지만, 교회 밖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 밖에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독교 선교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구성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일반화를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동완 (2019). 국내 입국 북한이탈여성의 경계짓기: ‘직행’ 과 ‘중국행’ 사이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2(1). 1-26.
- [Kang, D. W. (2019). Setting a boundary among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Difference between Going Straight to South Korea directly and Going to South Korea via China. *political information research*, 22(1). 1-26.]
- 강동완 (2017). 중국 현지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생활 실태 및 지원 방안. **북한학보**, 42(1). 155-197.
- [Kang, D. W. (2017). Actual Life of and Support Plans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North Korean Journal*, 42(1). 155-197.]
- 구본경 (2021).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상담적 이해: 생존의 모티브 하갈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36(0). 39-91.
- [Gu, B. G. (2021). A Study on the Feminist Pastoral Counseling of a North Korean Woman Refugee : Focusing on the Survival Motif of Hagar.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36(0). 39-71.]
- 김경미 (202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의 재구성. **미래사회**, 12(6). 94~116.
- [Kim, K. M. (2021). Reconstruction of agency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growth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Journal of the Future of Society*, 12(6). 94-116.]
- 김경진 (2015). **동북아시아 난민 네트워크와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 선교사와 탈북 브로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Kim, K. J. (2015). *Northeast Asian Refugee Network and the Role of Non-State Actors: Focusing on Missionaries and North Korean Refugee Brokers*. Masters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김경희 (2022). **청소년기에 경험한 아버지의 죽음이 성장과정과 성인기 삶에 미치는 영향 : - van-Manen의 체험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림대학교.
- [Kim, K. H. (2022). *The Impact of Father's Death in Adolescence on Growing Process and Adult Life- Based on van-Manen's Method for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Doctoral Dissertation.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 김광호 (2015). 불안증상을 가진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명상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5(0). 429-465.
- [Kim, K. H. (2015). Narrative Inquiry into the Experience of a North Korean Refugee Woman

- Suffering from Anxiety -Emphasis on Meditation Counseling Case-. *Hanguk Bulkyo Hak(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75(0). 332-338.]
- 김미자 (2010).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경험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7(1). 1-18.
- [Kim, M. J. (2010). A Study on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traumatic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7(1). 1-18.]
- 김상옥 (2020).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심리적안녕감의 관계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6(4). 201-218.
- [Kim, S. O. (2020). Mediating Effec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6 No.4: 201-218.]
- 김성은 (2009). 선교사 계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199-227.
- [Kim, S. U. (2009). James S. Gale's Translation Style: Focusing on the Translation of The Pilgrim's Progress. *Korean Christianity and History*, 33. 199-227.]
- 김윤아·김미영 (201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332-338.
- [Kim, Y. A. & Kim, M. Y. (2016).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cademia and Technology*, 17(5). 332-338.]
- 김태현·노치영 (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 분석. **대한 가정학회**, 41(8). 1-17.
- [Kim, T. H. & No, C. Y. (2003) Hermeneutical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Lived Experiences in China.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8):1-17.]
- 김현아 (201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PTSD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12(1). 105-124.
- [Kim, H. A. (2016). Meta-analytic Review on the Mental Health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Korean Crisis Management Journal*, 12(1). 105-124.]
- 김화순 (2017).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26(1). 235-264.
- [Kim, W. S. (201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and Labor Mobility of '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Unification Policy Studies*, 26(1). 235-264.]
- 김현경 (2011). 탄력성(resilience) 관점에서 조명한 북한이탈여성의 생애 연구: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4(2). 7-36.

- [Kim, H. G. (2011). Lived Experience of Resilience for North Korean Refugee Woman Who Has Lived in North Korea and China. *Gender and Culture*, 4(2). 7-36.]
- 김효규 (2013).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회복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Kim, H. K. (2013). *A Study on the Trauma Recovery Process among th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Doctoral Dissertation. Bac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박병애 (2020). **탈북민 목회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복음 수용성 연구-mandelbaum 분석방법론 적용**-.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Park, B. A. (2020). *A Study on Receptivity of North Korean Defected Pastors. -an application of mandelbaum life history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박영호·김수암·이금순·홍우택 (2010).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Park, Y. H., Kim, S. A., Lee, K. S. & Hong, U. T. (2010).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te Paper*.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엄태완 (2015). 북한이탈여성 이동(移動)의 재해석 : 노마드(nomad)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성연구**, 88(1). 7-42.
- [Eom, T. W. (2015). Reinterpretation of the Migration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 What is the Meaning as a Nomad?. *Korean Women Development Institute*, 88(1). 7-42.]
- 연성진 (2018).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8-AB-04.
- [Yeon, S. J. (2018). *An Exploratory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Trafficking Victimization en route to South Korea*. Korea Criminal Policy Research Institute.]
- 이명순·박경 (201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경험과 우울: 낙관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239-239.
- [Lee, M. S. & Park, K. (2011). Traumatic Experience and Depression in Women Fugitives of North Korea: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and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A collection of materials from the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 239-239.]
- 이명신 (2020).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정착 만족도 고찰: Creswell의 혼합연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Lee, M. S. (2020).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Resettlement in South Korea Among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Using Creswell's Mixed Methods Research*.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이민영·김현경 (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 체험: 남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

으로. **사회복지연구**, 35(0). 525-554.

[Lee, M. Y. & Kim, H. K. (2007). Lived Experience of Overcoming Migratory Loss Among North Korean Refugee Women who Got Married to South Korean M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 35(0). 525-554.]

이상희·임수아·허진무 (202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노인의 합창단 활동과 회복 탄력성 및 성공적 노화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체육학회지**, 60(4). 273-286.

[Lee, S. H., IM, S. A. & Heo, J. M. (2021). Choral Singing, Resilience and Successful Aging among North Korean Older Female Defectors with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60(4). 273-286.]

이순선 (2018).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후성장, 신체통찰력, 대상관계가 상담자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에니어그램연구**, 15(2). 95-112.

[Lee, s. s. (2018). The Effect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Post Traumatic Growth(PTG), Body Insight Scale(BIS), and Object Relations on Counselor's Expertise.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15(2). 95-112.]

이순형·최연실·진미정 (2015). **북한이탈주민의 종교경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Lee, S. H., Choi, Y. S. & Jin, M. J. (2015). *Religious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and Culture Center.]

정경임·전혜성 (2020). 외상경험이 있는 중년기 성인의 지각된 배우자지지, 외상후성장, 회복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가족과 가족 치료**, 28(4). 427-450.

[Jung, K. I. & Jeon, H. S. (2020).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pouse Support, Post Traumatic Growth, Resilience and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Middle-Aged Adults with Trauma Experiences. *Family and Family Therapy*, 28(4). 427-450.]

정상원·김영천. (2014). 질적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탐구. **교육문화연구**, 20(3), 5-42.

[Jung, S. W. & Kim, Y. C. (2014). General Thesis : Exploration of Strategies and Methods of Phenomenological Writing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3), 5-42.

최병우 (2016). 탈북 도우미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63. 327-355.

[Choi, B. U. (2016). Aspects of the Novel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Helper and Their Meaning. *Contemporary Fiction Research*, 63. 327-355.]

통일부 (2022). **북한이탈주민 통계**. 서울: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2022). *North Korean defectors statistics*.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Chung, R. C. Y. & Bemak, F. (2002). Revisiting the California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needs assessment date: An examination of refuge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111-119.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Walk Free Foundation (2017). 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Shay, J. (2014). Moral Injury. *Psychoanalytic Psychology*, 31(2), 182-191.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iles, M. B., Huberman, A. M. & Saldaña, J. (2018).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s source-book*. Sage publications.
- Muico, N. K. (2005).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London: Anti-Slavery International.
- Padgett, D. K. (2016).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36). Sage publications.
- Potocky-Tripodi, M. (2002).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 Seltz, G. P. (2016). *Confessing the "Real Present Jesus: The Power to Overcome Cultural Barriers with the Good News of the Gospel*. Lutheran Mission Matters.
- Strauss, A. & Cobin, J. (2015).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4th). London: Sage.
- Van Manen, M. (2016).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기독교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질적 연구: 밴 매넨(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

A Qualitative Study on the Post-Traumatic Growth of Christia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y Study Method

박병애 (숭실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밴매넨(Van Manen)이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연구로 접근했다.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회복과 성장에 대한 분석을 했다. 연구에는 5명의 북한이탈여성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142개의 의미가 도출되었고, 이를 45개의 주제로 구성했으며, 이렇게 드러난 주제를 14개의 본질적 주제로 결집했다. 14개의 본질적 주제를 신체성, 시간성, 관계성, 공간성으로 재배열했다. 신체성은 '살아서 체험한 지옥', '성 노예로 전락', '모성의 박탈'로 나타났다. 시간성은 '세상 믿음의 붕괴',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의 전회', '새로운 생명', '하늘 가는 길에 동행', '하나님 사랑의 전파'로 나타났다. 관계성은 '삶의 기반 박탈', '시선의 폭력에 노출', '하나님 형상의 회복'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간성은 '중국이라는 감옥', '가나안의 꿈과 현실', '로템나무 아래서의 쉼'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회복시스템 구축, 젠더 친화적인 여성전담 사역자 양성, 그리고 중국 선교에 있어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주체화에 대한 제언을 했다.

주제어: 기독교 북한이탈여성, 외상 후 성장, 탈북 트라우마,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평강공주 사역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Socio-Ethical Implications of Abraham Kuyper's Thought on Sphere Sovereignty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Abraham Kuyper(1837-1920), a Dutch theologian, politician, journalist and educator tried to develop his ideas of sphere sovereignty. He expanded Jean Calvin's theology which emphasized the sovereignty of God into all the spheres of our lives. This is so-called Neo-Calvinism. With this principle of sphere sovereignty, Kuyper argued that each sphere has its own sovereignty established by God so each sphere should respect other spheres and should not intervene others with its own power and authority. Based on this idea, Kuyper founded Vrije Universiteit in Amsterdam in 1980 and gave his opening address with the title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Sphere sovereignty)." Furthermore, his idea resulted in the so-called pillarization of the Dutch society. Then the socio-ethical implications of this thought both in the Netherlands and Korea are discussed. As a conclusion, we will reflect how Kuyper's insight can be applied.

Key words: Abraham Kuyper, sphere sovereignty, neo-Calvinism, pillarization, social ethics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6일 최종수정, 9월 13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2020년 11월 26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교회의 개혁자요 일간지와 주간지를 창간한 언론인인 동시에 대학을 설립한 교육가이면서 정치가로 정당을 창당하여 수상까지 역임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신학을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한 소위 신칼빈주의(neo-Calvinism)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www.allofliferedeemed.co.uk)¹⁾ 특히 이 중에서도 그의 영역 주권(領域主權, sphere sovereignty, souveriniteit in eigen kring) 사상은 네덜란드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 사회에도 여러 면에서 사회 윤리적 함의를 가진다.

그동안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전반에 대해 다룬 논문(정성구, 2011)이나 저서(정성구, 2010) 및 역서들은 있으나(이상웅·김상래 역, 2011, 박태현 역, 2020) 이 주제에 관해 국내에서 깊이 연구한 논문이나 저작은 이국운이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사상을 어떻게 한국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다룬 논문 외에 사회 윤리적 함의를 고찰한 논문은 거의 없다(이국운, 2013). 해외에서도 카이퍼에 관한 논문이나 저작들은 매우 많으나 이 영역 주권이 가진 사회 윤리적 함의를 다룬 논문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의 자유 대학교에서는 개교 140주년 및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기념한 2020-2021 학년도를 카이퍼의 해로 정하고 그의 공헌을 민주주의(democracy), 다양성(diversity) 및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으로 요약하면서 그를 네덜란드 사회개혁가(Social Entrepreneur)로 소개한다(www.youtube.com/watch?v=cgOp1pPPJFk&ab_channel=VrijeUniversiteitAmsterdam).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와의 관련성에 관해 분석하겠다. 나아가 이 영역 주권 사상이 카이퍼의 후계자들에 의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다룬다. 그 후 네덜란드 사회의 특징인 소위 ‘기둥화(pillarization)’를 통해 카이퍼가 어떻게 사회적 다양성을 변호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동시에 이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대해 네덜란드 및 한국적 상황에서 논의한 후

1) 2018년 네덜란드의 개신교 텔레비전 방송국인 VPRO(Vrijzinnig Protestantse Radio Omroep)는 19세기 네덜란드 사회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방송하면서 그중 하나로 ‘위대한 아브라함(Abraham de Geweldige)’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를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다루었다. www.youtube.com/watch?v=XUHsb4W-ook&ab_channel=kobayasukobayasu 참고. 또한, 2020년 11월 9일, 그가 태어나 부친으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은 마슬라우스(Maarsluis)의 개혁교회(Grote Kerk)에서는 그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에도 한(Edo Haan) 마슬라우스 시장, 휴고 드 용어(Hugo de Jonge) 당시 부총리(기독교민주연합(CDA) 소속), 조지 하링크(George Harinck) 자유대 역사학 교수, 카린 판 덴 브루케(Karin van den Broeke) 네덜란드 성서 공회 회장, 에릭 호스트라(Erik Hoekstra) 미국 도르트대학 총장 및 작가 요한 스넬(Johan Snel) 등 여러 강연자가 카이퍼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평가했다. www.youtube.com/watch?v=i463_4Yh7B8&ab_channel=HDCCentreforReligiousHistoryVU 참고.

이 사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결론을 맺겠다.

II.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

1. 영역 주권

영역 주권이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대학, 기업, 가정 등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주권적인 통치를 행하시므로 각 영역은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며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카이퍼의 사상이다.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을 강조하면서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Kuyper, 1911-1912). 그는 당시에 국가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교회나 대학 같은 기관들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이 사상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의 신교회(新敎會, Nieuwe Kerk)에서 그가 설립한 기독교 대학인 자유 대학교(Vrije Universiteit) 개교기념 연설의 제목도 ‘영역 주권’이었다(Kuyper, 1880 ; 박태현 역, 2020). 이 대학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도 대학이 교회나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선언한 것이다. 그가 소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저술한 두 권의 대작 『반혁명의 국가학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1권 8장에서 그는 영역 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의 전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견딜 수 없는 폭정이다... 지금도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전능한 국가라는 교리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 주권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자유가 점점 침해되는 매우 심각한 위험에 다시금 노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가장 명확한 의미에서 절대적이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코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 둘째, 주권의 이전은 제한된 의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이런 이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놓아주셔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는다. 이전의 경우에도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기관이나 도구로만 사용된다. 그러나 또한 세 번째로 이전된 사람들에게 의해 행사되는 주권은 분리되어 있다. 그것은 많은 별개의 영역에 퍼져 있으며 영역마다 다른 성격이다. 가족의 영역, 교회의 영역, 과학과 예술의 영역, 기술과 발명의 영역, 무역과 산업의 영역, 농업, 사냥과 어업의 영역,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운 사회단체의 영역도 있다. 이 모든 영역 위에는 인간을 도구로 행하시시는 하나님의 최고 권위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각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각 보유자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Kuyper, 1916: 265-266).

이러한 영역 주권 사상은 무엇보다 먼저 카이퍼의 성경적 창조관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질서 있게 그리고 “종류대로” 만드셨고(창 1:11-12, 21, 24-25) 따라서 각자 고유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영역 주권 사상은 삶의 각 영역이 고유한 권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과 다른 사명과 의무(*de taak en de plicht*)도 있다(Kuyper, 1912: 299).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통치하시는 창조 질서는 다양한 사회공동체들과 이 공동체들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규범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영역 주권의 원칙은 창조의 경계와 역사적 차별화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영역마다 자체적인 독립성과 규범이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규범을 인식해야 가정이 비즈니스처럼 되지 않으며 교회나 국가도 각각 제한된 능력을 벗어나 인간 활동 전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 주권의 개념은 현재 기독교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통치하는 유럽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원칙이 되었으며, 이를 이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했다(Domenico & Hanley, 2006: 102). 나아가 박, 판 홀튼, 크라븐담 및 아이어스(Bak, van Holthoon, Krabbendam, & Ayers)는 기독교민주당원들에 의한 영역 주권 사상의 증진이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 복지국가의 창설로 이어졌다고까지 주장한다(Bak, van Holthoon, Krabbendam, & Ayers, 1996).

둘째로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중세의 교회 중심주의(*ecclesiasticism*)와 근대의 세속주의(*secularism*)적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이다. 중세의 교황적 군주제(*Papal Monarchy*)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금도 천주교가 강한 독일의 쾰른이나 로마의 피렌체 같은 도시를 보면 도시 한 가운데 대성당이 있으며 다른 어떤 건물도 이 성당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없다. 예술 분야에서도 종교적 주제는 주요 후원자인 교회에 의해 장려되었고 정치 또한 교회의 지시에 따르는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경제 길드와 농업 분야도 교회가 감독했으며 가족 영역에서는 출산을 규제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여러 대학이 교황의 명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세속주의적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부유한 상인계급이 출현했으며 일부 상인들은 교회와 무관하게 예술의 후원자가 되었고 개신교는 종교개혁(*Reformation*)을 통해 시민 정부, 예술, 가족, 교육 및 경제를 교회의 통제로부터 해방하였다. 개신교는 교회주의와 달리 삶 전체가 예배임을 강조했으나 이후에 나타난 세속적 계몽주의는 종교를 완전히 없애려 했다. 하지만 카이퍼는 영역 주권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Coram Deo*)”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면서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직접 책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카이퍼는 사회 영역들을 각각 분리하였고 그 결과 국가 절대주의도 반대한 것이다(Kuyper, 1912: 151).

셋째로 이 영역 주권 사상은 적용할 분야가 많이 있다. 가령, 가족 제도는 국가, 교회 또는 우발적인 사회적 요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므로 가족을 정의하거나 그에 관한 법을 공포하는 것은 국가나 교회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이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생 헌신하며 후손에 대한 언약으로 정의되는 결혼 및 가정은 국가나 다른 외부 권력에 의해 제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부부에게서 시작된다. 하지만 가정의 영역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다(Kuyper, 1911(Deel 2): 439, 537). 그러나 특정 가족이 자신의 책임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하면 사법기관은 관련된 민사적 불의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 국가나 교회도 연구소, 학교 또는 대학에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은 해당 영역에만 관련된 법률이므로 학교 행정은 특정 능력과 분야를 합법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역 단체는 무역에 해당하는 규칙만 적용해야 하며, 그 단체의 지도자는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나치게 농업이나 어업 분야를 규제할 때, 농민과 어민들은 항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민운동도 다른 영역의 주권을 방해하지 않고 행동하는 본질적 원칙은 지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영역 주권 사상이 잘못 적용된 예도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과거 남아공에서 백인 정권에 의해 1948년에 법률화된 인종분리정책, 즉,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을 인종 등급으로 나누어 백인, 흑인, 유색인, 인도인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종별로 거주지 분리, 통혼 금지, 출입 구역 분리 등을 하는 등, ‘차별이 아니라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핑계로 사상 유례가 없는 노골적인 백인 지상주의 국가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배후에는 그곳의 개혁교회(Nederduits Gereformeerde Kerk)가 인종차별적 해석을 하여 아파르트헤이트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자신의 영역 내에서 주권이 있다는 카이퍼의 사상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카이퍼는 이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며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그의 영역 주권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범위 내에서 주권’이라는 개념이 남아공의 상황에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페르카윌(J. Verkuyl)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성경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신학이며 이단이라고 강조했다(Schutte, 2009). 결국,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벌인 남아공 백인 정부와 흑인 대표인 아프리카 민족 회의의 넬슨 만델라 간의 협상 끝에 이 정책은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고,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가 1994년 4월 27일에 완전 폐지를 선언하였다.

이와 반면에 카이퍼를 계승한 도여베르트(H. Dooyeweerd, 1894-1977)와 폴렌호븐(Th. D. H. Vollenhoven, 1892-1978) 같은 학자들은 이 영역 주권 사상을 철학적으로 더욱 발전시켰으며

(Dooyeweerd, 1935-6 ; 최용준, 2014: 43-102) 이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기독교 철학협회(www.christelijkfilosofie.nl)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도여베르트는 피조물에 15개의 양상 구조(수, 공간, 운동, 물리, 생물, 감각, 분석, 역사, 언어, 사회, 경제, 미, 법, 윤리, 신앙)가 있음을 밝히면서 각 양상은 그 자신의 독특한 법칙들에 따라 질서 지워지고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양상들을 ‘법칙 영역들(law-spheres)’이라고도 불렀다. 그는 분석적 양상에서 신앙적 양상까지를 ‘문화적인 면’이라고 부르며 그 법칙들은 ‘규범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법칙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인정되고’, ‘실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법칙들은 지켜질 수도 있고 어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문화적 책임과도 연결되어 사람이 각 양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때 인간의 모든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개현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는 파괴적이 되고 결국 헛수고로 돌아간다. 분석적 양상 이하 양상들의 법칙들은 ‘자연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법칙들은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 양상은 상호 환치될 수 없는데 그는 이것을 ‘영역 주권의 원리’라고 불렀다. 이는 도여베르트가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의 주되심을 철학적, 우주론적 원리로 확장한 것이다. 각 양상은 그 ‘의미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 양상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가령, 생물적 양상의 의미의 핵은 생명력(vitality) 혹은 생명(life)이다. 또한, 각 영역에는 다른 영역들을 지향하는 의미의 모멘트, 즉 예기와 회기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 ‘유추(analogy)’라고 한다. 이 점을 도여베르트는 각 양상의 ‘영역보편성(sphere-universality)’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각 영역은 독립적인 영역 주권을 가진 동시에 시간 안에서 서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도여베르트는 이 양상 구조를 이용하여 사회구조도 명쾌하게 분석하였는데 가령 가정의 경우 기초양상은 생물적이지만 인도하는 양상은 윤리적이며, 교회는 기초양상이 역사적이지만 인도적 양상은 신앙적이다. 국가는 기초양상이 역사적이며 인도하는 양상은 법적이다. 노조의 기초양상도 역사적이지만 인도적 양상은 윤리적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기업은 기초양상이 역사적이지만 인도적 양상은 경제적이라고 분석했다(최용준, 2014: 43-10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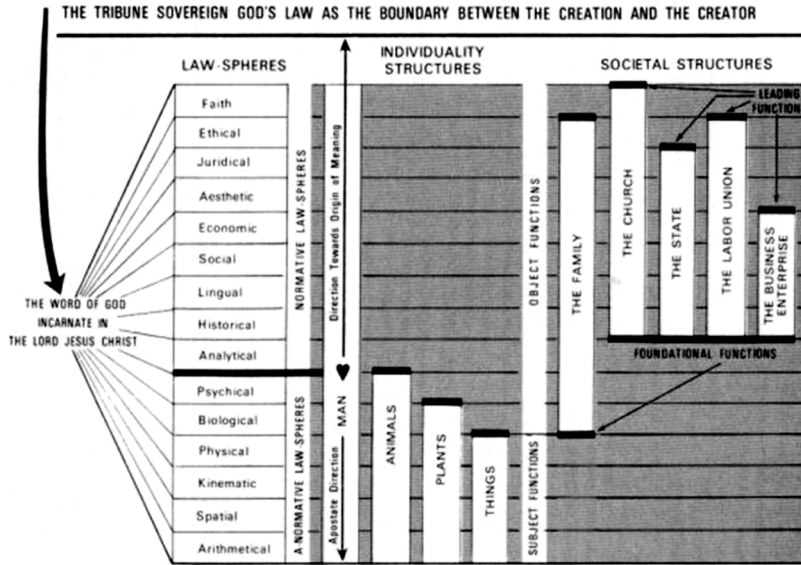


Figure 1. Dooyeweerd's Theory of Modal Aspects, Individuality Structures and Social Structures

출처: www.freewebs.com/reformational/modal%20aspects2.jpg

2. 기동화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결국 네덜란드 사회의 다원화를 낳게 되었다. 즉 여러 다른 세계관들을 가진 공동체는 각각 학교, 미디어, 정당, 노조 등과 같은 사회기관들과 함께 자체적인 ‘기동’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것을 ‘기동화(Pillarization, Verzuiling)’라고 부른다. 가령 카이퍼는 1872년에 개혁주의 일간지인 De Standaard를 창간하였고 1878년에는 주간지 De Herout에도 꾸준히 논설을 기고했으며, 1879년에는 그의 멘토였던 흐론 판 프린스터러(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의 영향을 받아 개혁주의를 표방한 네덜란드 최초의 정당인 반혁명당(Anti-Revolutionaire Partij)을 창당하여 당수가 되었고, 1880년에 학생들이 국가나 교회의 간섭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자유 대학교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개척교회 및 기독교 사립학교의 설립도 정당화했다. 특히 기독교학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80년간 지속했던 소위 학교 투쟁(school struggle, schoolstrijd)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최용준, 2017: 81-89).

19세기 네덜란드 의회는 독립적인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자유롭고 보수적인 운동을 인정할 수 있는 비공식적 동맹과 선거단체로 통합되어 현대적 의미의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

나 학교 투쟁은 특수 교육의 배제를 반대하는 고백 정당, 즉 기독교 정당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848년에 자유주의적인 정치가 토르베케(Johan R. Thorbecke)의 주도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헌법은 조건만 갖추면 사립학교도 설립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리하여 실제로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지만, 재정은 여전히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개신교 측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het Réveil)은 자유주의자들의 계몽주의적 모더니즘 및 이에 기반을 둔 진보 신학적 입장을 거부하고 전통적 칼빈주의 교리와 경건 즉,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운동으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부흥 운동의 지도자들은 예배 생활 및 마음의 회복, 가정의 개혁, 조용하고 경건한 생활 및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강조하면서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도덕적 개선과 삶의 회복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성국, 2009: 33). 이때 흐른 판 프린스터러는 네덜란드 부흥 운동의 창시자였던 빌더데이크(W. Bilderdijk)의 영향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사립학교로서 기독교의 설립 권리와 교육의 자유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860년에 그는 개신교 기독교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독교 국립 학교교육협회(de Vereniging voor Christelijk Nationaal Schoolonderwijs)를 설립했으며 그를 계승한 카이퍼는 1872년 학교법 반대 동맹(het Anti-Schoolwet Verbond)의 창립에 참여했고(www.onderwijsgeschiedenis.nl/Tijdvakken/De-Schoolstrijd) 이 동맹이 1879년에 반혁명당이라는 최초의 정당으로 발전한 것이다. 나아가 1878년 당시 수상이었던 판 드 꼬펠로(K. van de Coppello)가 사립학교들이 경비를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새 법안을 제안하자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은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어 당시 국왕인 빌럼(Willem) 3세에게 30만 명의 개신교도와 10만 명의 가톨릭교도가 국민청원서(Volks petitionnement)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왕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통과되었다. 그러자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은 더욱 연합하여 공립 및 사립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완전한 평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회의 하위계층은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노동자 계급이 되었다. 이는 노동자 운동으로 시작한 후 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하여 결국 정당을 형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상한 사상은 부르주아의 자본주의 독재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독재로 대체된 후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이었다. 하지만 카이퍼는 이것을 세속 세력과 기독교 세력 간의 영적 대립(antithese)이 정치적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서 중도적으로 기독교 고용주, 상인,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려 했다.

이와 동시에 투표권 확대와 노동자의 사회적 여건 개선도 중요한 정치적 주제가 되었다. 투표권 확대 문제는 기독교 정당과 자유주의 양쪽 모두에 분열을 일으켰다. 사회 민주 노동당(Sociaal-Democratische Arbeiderspartij)의 경우 대다수 지지자가 참정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투표권

의 확대가 필수적이었고 반혁명당의 지지자들인 소위 ‘서민들(kleine luyden)’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917년 헌법 개정으로 정부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원하게 되자 그동안의 대립은 사라졌고 학교 투쟁은 막을 내렸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시 네덜란드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쌓인 정치 사회적 갈등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동화를 확인했다. 그 후 남성에 대한 보편적 참정권이 도입되었으며 2년 후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되었다. 그 후 기독교 정당은 보편적 참정권을 통해 그들의 지지자들을 확장하여 1918년부터 1994년까지 항상 정부의 일원이었다. 이 기동화는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도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추구되었으며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은 많은 접촉 없이 공존했다. 그 중에도 정치, 노동조합, 학교, 방송, 언론 및 청소년운동은 이 기간에 강력히 서로 구분되었다. 동시에 한편으로 기동화, 다른 한편 협력으로 긴장이 완화되어 1917년 이후 각 기동의 지도자들은 동역했다. 이전 시대를 특징지었던 큰 대립들은 합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안정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기동화의 많은 기관이 점령자인 독일군에 의해 일반기관으로 대체되자 자유주의, 사회 민주주의, 공산주의, 가톨릭, 개신교계가 독일 점령군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기동화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겨났다. 그 결과 모든 정당의 진보파가 참여할 수 있는 네덜란드 국민운동(Nederlandse Volksbeweging)이라는 통일당이 전후인 1945년에 설립되었다. 이 당은 권위주의적 사상에 강하게 반대하는 개인주의적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어 당시에는 가히 획기적인 아이디어(Doorbraak-gedachte)라고 불렸다. 하지만 일부 네덜란드 주교의 강한 반발로 결국 실패하여 1951년에 이 당은 해산되었다. 그러자 일부 가톨릭 신자들이 개인적인 주도권을 발휘하여 작고 진보적이며 평화주의적인 기독교 민주 연합(Christen Democratische Unie)과 자유당(VDB: Vrijzinnig Democratische Bond)은 사회민주노동당(SDAP: Sociaal-Democratische Arbeiderspartij)과 합병하여 함께 노동당(PvdA: Partij van de Arbeid)를 형성했다. 이 노동당은 진정한 의미에서 획기적인 정당이었으며 네덜란드의 주교들은 1954년에 성명을 통해 이를 반대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결국 네덜란드 사회는 신속히 전쟁 이전의 기동화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탈기동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1967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고백당 즉 기독교민주당은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경제적 번영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발전이 기동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고 노년층에 반대하는 청소년 문화도 등장했다. 세속화로 인해 고백당에 대한 지지가 급락하는 것을 보며 기동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했다. 그 결과 강력한 기동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령 공영 텔레비전은 지금

도 하나의 조직이 아닌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있다. 네덜란드에는 공립 및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 또한 기동화의 유산이다. 가령 한 지역에 개신교와 가톨릭 사립학교 그리고 공립학교가 있으면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자녀들이 갈 학교를 선택한다. 그 외에도 개혁교회(vrijgemaakt) 회원들은 자체(초등 및 중고등) 학교, 신문 및 노동조합과 같은 기타 조직이 있다. 기타 여러 경건주의 개혁교회 회원들도 자체 학교, 신문 및 정당을 설립했다. 그러자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모슬렘 이민자들도 자체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사회의 기동 구조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 카이퍼 당시의 세 가지 기동은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세속적인 영역으로 각 영역은 정치, 방송, 교육, 언론, 노조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고 그 후 세속적 기동은 양분되어 사회주의 및 자유주의 기동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Lijphart, 1980).

각 기동의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먼저 정당의 경우 개신교에는 과거에 ARP(반혁명당, De Anti-Revolutionaire Partij, 1879-1977; 개혁주의), CHU(기독교-역사연합, De Christelijk-Historische Unie, 1908-1977; 국가개신교회), RPF(개혁정치연합, De Reformatorische Politieke Federatie, 1977-2000; 개신교) 및 GPV(개혁정치연맹, Het Gereformeerd Politiek Verbond, 1948-2000; 자유 개혁주의)가 있었고 천주교에서는 RKSP(로마 가톨릭 정당, De Rooms-Katholieke Staatspartij, 1926-1945) 및 KVP(가톨릭 국민당, De Katholieke Volkspartij, 1945-1977)이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경우 SDAP(사회-민주 노동당, De Sociaal-Democratische Arbeiders partij, 1894-1945)가 있었던 반면 중립적 자유주의 노선에는 VDB(자유민주연합, De Vrijzinnig Democratische Bond, -1946; 좌익-자유), LU(De Liberale Unie, 1921; 고전적 자유), Vrije Liberalen(-1921; 보수적 자유), LSP(자유국가당, De Liberale Staatspartij)/Vrijheidsbond (1921-1945) 및 PvdV(자유당, De Partij van de Vrijheid, 1946-1948)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개신교 정당은 SGP(국가개혁당, De Staatkundig Gereformeerde Partij, 1918 이후) (실험적 개혁주의), CDA(기독교-민주연합, Het Christen-Democratisch Appèl, 1977 이후) (예큐메니컬) ChristenUnie(기독교 연합, 2000 이후) (정통-개신교/복음적)이 있다. 천주교도 CDA(1977 이후 예큐메니컬)이며 사회주의 정당으로는 PvdA(노동당, De Partij van de Arbeid, 1945 이후), SP(사회당, De Socialistische Partij)가 있고 중립적 자유주의 노선에는 VVD(자유민주국민당, De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1948 이후)와 D66(민주 66, Democraten 66, 진보적 자유)가 있다.

다음에 방송의 경우 개신교에는 NCRV(네덜란드 기독교 라디오 연합, De Nederlandse Christelijke Radio Vereniging, 정통-개혁주의), EO(복음방송, De Evangelische Omroep) 그리고 VPRO(자유 개신교 라디오방송, Vrijzinnig Protestantse Radio Omroep)가 있으며 천주교에는 KRO(가톨릭 라디오방송, De Katholieke Radio Omroep)가 있고 사회주의에는 VARA(노동자 라

디오 아마추어 연합, Vereeniging van Arbeiders Radio Amateurs) 그리고 중립적 자유주의에는 AVRO(일반 라디오방송 연합, De Algemene Vereniging Radio Omroep)가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 개신교에 CNV(전국 기독교 노조, Het Christelijk Nationaal Vakverbond, 1909 이후) NWV(네덜란드 노동자연맹, Het Nederlandsch Werkliedenverbond) Patrimonium(개혁주의 1876 이후)이 있고 천주교에는 NKV(네덜란드 가톨릭 노조, Het Nederlands Katholiek Vakverbond, 1925-1976) 및 FNV(네덜란드 노조 연합, De 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1976 이후)가 있으며 사회주의에는 NVV(네덜란드 노조 연합, Het Nederlands Verbond van Vakverenigingen, 1906-1976), FNV(네덜란드 노조운동 연합, De 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1976 이후)가, 중립적 자유주의에는 ANWV(네덜란드 일반 노조, Het Algemeen Nederlandsch Werklieden-Verbond)가 있다.

신문의 경우 개신교에는 De Standaard(1872-1944, 개혁주의), Trouw(1943-현재, 개혁주의), Friesch Dagblad(개혁주의), Kwartetbladen(1971년에 Trouw와 통합; 개혁주의), De Rotterdammer, de Nieuwe Haagsche Courant, de Nieuwe Leidsche Courant en het Dordtsch Dagblad, Nederlands Dagblad(자유 개혁주의) 및 Reformatorisch Dagblad(개혁주의)가 있으며 천주교에는 De Maasbode(De Tijd가 됨), De Tijd(Haagse Post와 합침 in HP/De Tijd), Katholiek Nieuwsblad (1983 이후), De Volkskrant(1919 이후) 및 지역 로마 가톨릭 신문들이 있고 사회주의에는 Het Vrije Volk(1945-1991) 및 Het Parool이 그리고 중립적 자유주의에는 Nieuwe Rotterdamsche Courant(자유적) 및 Algemeen Handelsblad(자유적, NRC Handelsblad와 통합), Algemeen Dagblad(자유적), Het Vaderland(자유적), De Telegraaf(중립적) 및 De Courant/Nieuws van de Dag(중립적)이 있다.

학교로는 개신교의 경우 School met de Bijbel(성경을 가진 학교)라는 개신교-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있고 천주교의 경우 로마 가톨릭 학교가 있으며 나머지 두 기둥은 모두 공립학교이다. 대학을 보면 개신교의 경우 Vrije Universiteit (자유 대학교), Protestantse Theologische Universiteit Kampen (갸쁜 신학교, 개혁주의)가 있지만, 천주교는 Radboud Universiteit Nijmegen(네이메헌 대학교)와 Universiteit van Tilburg(틸부르흐 대학교)가 있고 나머지 두 기둥은 공립대학교들이다.

대학생 단체로 개신교의 경우, SSR(Societas Studiosorum Reformatorum, 1905-1969) 1886-1905 “GSV Hendrik de Cock”, 천주교는 AHC(만성연합, Aller Heiligen Convent, 1971-현재; 1908-1970 UKSV/UKSN), 사회주의는 ASV(일반 학생협회, Algemene Senaten Vergadering, 1892 이후) FUB(Federatie van Unitates en Bonden, 1948 이후; 1913-1927, UNS) 그리고 중립

적 자유주의는 ASV(일반 학생협회)와 FUB(Federatie van Unitates en Bonden, 1948 이후; 1913-1927, UNS)가 있다.

청소년 단체로는 개신교의 경우 NJV(네덜란드 청소년 연합, Het Nederlandsch Jongelings Verbond), 천주교는 KAJ(가톨릭 노동자 청년, De Katholieke Arbeiders jeugd) KV(가톨릭 식자들, De Katholieke Verkenners), 사회주의는 AJC(노동 청년 중심, De Arbeiders Jeugd Centrale) 그리고 중립적 자유주의는 NPV(네덜란드 개척자들 협회, De vereniging De Nederlandsche Padvinders)가 있다.

끝으로 병원의 경우, 개신교는 Oranje-Groene Kruis (오렌지-녹십자), 천주교는 Wit-Gele Kruis (백-황적십자), 나머지는 둘다 Groene Kruis (녹십자)이다(Blom, 2000, Dam, 2011, Huyse, 1987, Lijphart, 1968, Rossem, 2012, Stuurman, 1983).

3. 사회 윤리적 함의

카이퍼는 이처럼 영역 주권을 강조하면서 모든 권리가 개인에게서 나온 프랑스의 대중주권(popular sovereignty)과 국가에서 나온 독일의 국가 주권(state-sovereignty) 사상을 모두 거부했다. 그 대신 그는 학교와 대학, 언론, 기업 및 산업, 예술 등 사회의 “중간기관들(intermediate bodies)”을 존중했다. 각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므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위해 그는 인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 공동체가 자체 학교, 신문, 병원, 청소년운동 등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네덜란드 국민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군주제를 선호했고 오렌지 왕가가 역사적 및 종교적으로 네덜란드 국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서민들’로 불리는 중산층 정통 개혁집단의 이익을 옹호했으며 세속적 정치와 종교적 정치를 구분했다. 그러자 종교와 정치의 혼합을 반대했던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카이퍼를 비판했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종교적으로 영감을 받은 정치를 실천하기 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집단에도 호소했기 때문에 카이퍼의 자연스러운 동맹이었다. 반면에 계급 갈등을 선포한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 노동자들에게 위협했는데 이에 대해 카이퍼는 혁명은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노동자들이 그들의 삶에 만족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노동법을 채택하고 노동환경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나 교회는 연구소, 학교 또는 대학에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은 해당 영역에만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 행정은 특정 능력과 기술에 따라 합법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무역조직에서는 무역규칙만 적용해야 하며, 리더는 자신의 전문 지식수준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카이퍼는 강조했다. 농업 또한 정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서 유래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할 때마다 농부들은 국가가 내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카이퍼의 사회생활에 대한 관점은 1880년 De Standaard에 등장한 “당신의 가족도 반혁명적(Antirevolutionair óók in uw huisgezin)”이라는 논설에 나타난다(Kuyper, 1880). 여기서 그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정상적이고 완전한 가정에는 항상 어디서나 다섯 가지 관계가 발생하는데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및 자신과 이방인 간의 관계이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대하면서 권위에 대한 존중과 정의를 배우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부드러운 삶의 감각, 남편과 아내 간에는 상호 간의 신뢰, 관용 및 존중, 형제자매 간에는 자유, 평등 및 형제애, 봉사하는 사람들과 봉사 받는 사람들 간에는 섬김을 배운다. 이는 동양의 유교적 세계관에서 볼 수 있는 삼강오륜(三綱五倫) 중 가정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카이퍼가 이 오륜을 알았다면 아마 이것도 일반 은총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그가 1891년 11월 9-12일에 암스테르담에서 발족한 제1차 기독교 사회학 콘그레스(Christelijk-Sociaal Congres)에서 행한 그의 연설이다. 당시의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다룬 그의 연설은 Het sociale vraagstuk en de christelijke religie(사회 문제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Kuyper, 1891 ; 조계광 역, 2005). 여기서 카이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래 7가지 근본 원리를 제시했다. 첫째 보편적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조항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둘째 국가의 권위와 사회의 자유를 분명히 구분해야 해야 어떤 영역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인간 사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불의한 상황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혁명적 행동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여섯째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시므로 부자도 단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카이퍼는 노동자들은 그에 합당한 삯을 받아야 하며 일한 이후에는 반드시 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노령에 이르러 더는 일할 수 없을 때도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도 언급했다(Praamsma, 1985 ; 이상웅·김상래, 2011: 210-213) 이러한 기독교 사회 운동은 그 후 계속 발전되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에는 기독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의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www.stichting-csc.nl).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이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어떤 사회 윤리적 함의를 가지는가? 첫째로 한국 사회는 아직 남아 있는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 깔뱅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했으며 카이퍼는 이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근대 한국사회의 발전에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큰 공헌을 했다.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를 설립하여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병원들을 건립하여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학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들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동시에 청교도적 직업윤리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일조하였고 예술 등 다양한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손봉호·조성표, 2012).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정치 분야에는 카이퍼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회와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이 정당 정치에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이 영역은 세속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네덜란드의 기독교 정치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네덜란드만큼 기독교인들이 전액 정부의 지원을 받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지원을 받아도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교육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교육이라고 본다. 네덜란드에는 학원이 없고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오후 3시 전후에 귀가한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음악학교에 가고 축구에 관심이 있으면 축구 클럽에 갈 수는 있어도 한국처럼 국어, 영어 및 수학을 다시 배우기 위해 학원에 가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낳는 것을 부담으로 여겨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나아가 수능시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집으로 와야 하는 획일화된 틀에 갇힌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수능을 잘못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을 막을 수 없고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며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네덜란드의 신실한 가정을 보면 가정교육이 살아 있다. 교회, 학교 및 가정이 하나가 되어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진다. 특히 가정에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식사 후에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며 대화하여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한다(최용준, 2016). 한국의 경우 많은 부모가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신앙은 교회에 의존하는데 오히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이 상

호 이익을 위해 각자의 영역을 넘어 타협함으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카이퍼가 기독교 사회적 회의에서 강조한 일곱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III. 결론

카이퍼는 그의 영역 주권 사상을 이론적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교회, 대학, 정치, 언론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사회적 기업가였다. 이러한 그의 사역은 지금도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그가 창설한 반혁명당은 1977년에 가톨릭과 동맹하여 기독교민주연합(CDA: Christen-Democratisch Appèl)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정당은 여전히 카이퍼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유럽연합의 기독교 민주당인 유럽 국민당(EPP, European People's Party)도 그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기타 교회, 교육, 언론, 노조 등 각 영역에서 여전히 그의 유산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및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교훈들을 적용하여 앞으로 더욱 정의롭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원론을 극복하면서 교육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다음 세대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교육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각계각층에서 노력하는 동시에 정경유착의 고리도 단호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해 네덜란드의 기독교 사회적 콩그레스와 같이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는 운동이 일어나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각 영역에서 실제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서울: 다함.
- [Park, T. H. (2020). *Abraham Kuyper's Sphere Sovereignty: God's Sovereignty to All Spheres of Human Life*.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박태현 역.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문화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선언서.**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1899). *Lectures on Calvinism*. 서울: 다함.
- [Park, T. H. (2021).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Christian Worldview Manifesto for Cultural Transformation*.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899).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손봉호·조성표 (2012).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 서울: 예영.
- [Son, B. H. & Cho, S. P. (2021).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Christianity: The Christian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Seoul: Jeyoung]
- 이국운 (2013).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 영역 주권론을 중심으로 -. **신앙과 학문**. 18(3), 127-155.
- [Lee, K. W. (2013). The Acceptation of Abraham Kuyper's Political Thought in Korean Society. *Faith and Scholarship*. 18(3), 127-155.]
- 이상웅·김상래 역. (2011).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Praamsma, L. (1985). *Let Christ Be King: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imes of Abraham Kuyper*. 서울: 복 있는 사람.
- [Lee, S. W. & Kim, S. R. (2011). *Let Christ Be King: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imes of Abraham Kuyper*. Seoul: One who is blessed. Trans. Praamsma, L. (1985). *Let Christ Be King: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imes of Abraham Kuyper*. Ontario: Paideia Press]
- 정성구 (201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서울: 킹덤북스.
- [Chung, S. K. (2010). *The Life and Thought of Abraham Kuyper*. Seoul: Kingdom Books.]
- 정성구 (2011).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 **월드뷰**. 24(7), 4-7.
- [Chung, S. K. (2011). Calvinism as Kuyper's Christian Worldview. *Worldview*. 24(7), 4-7]

- 조계광 역. (2005). **기독교와 사회 문제**. Kuyper, A. (1891) *Het sociale vraagstuk en de christelijke religie. Rede bij de opening van het Sociaal Congres, op 9 November 1891 gehouden*. 서울: 생명의 말씀사.
- [Cho, G. G. (2005). *Christianity and Social Problems* Seoul: Word of Life. Trans. Kuyper, A. (1891). *Het sociale vraagstuk en de christelijke religie. Rede bij de opening van het Sociaal Congres op 9 November 1891 gehouden*. Amsterdam: J.A. Wormser]
- 조성국 (2009). 네덜란드 기독교 학교 운동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 학교의 과제에 주는 함의. **기독교교육논총**. 20(1), 21-52.
- [Cho, S. K. (2009). The Implication of the Dutch History of Christian School Movement to the Tasks of Korean Christian Schools. *Christian Education Journal*. 20(1), 21-52]
- 최용준 (2014). **유럽 기독교 지식의 흐름과 한국의 디아스포라**.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Choi, Y. J. (2014). *The Trend of Christian Intellectuals in Europe and Korean Diaspora*. Seoul: Jeyoung Communication Press.]
- 최용준 (2016). Research on the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a historical approach. **신앙과 학문**. 21(2), 231-257.
- [Choi, Y. J. (2016). Research on the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a historical approach. *Faith and Scholarship*. 21(2), 231-257.]
- 최용준 (2017). 네덜란드 교육의 재정 정책에 관한 고찰: 역사적 접근.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서울: 예영.
- [Choi, Y. J. (2017). A Research on the Financial Policy about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a historical approach. *The Finance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Seoul: Jeyoung]
- Bak, H. & Holthoon, F. L. van & Krabbendam, H. & Ayers, E. L. (1996). *Social and Secure?: Politics and Culture of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Inquiry*. Amsterdam: VU University Press.
- Blom, J. C. H. (2000). Talsma, J. (red.). *De verzuiling voorbij: Godsdienst, stand en natie in de lange negentiende eeuw*. Amsterdam: Het Spinhuis.
- Dam, P. van (2011). *Staat van verzuiling: over een Nederlandse mythe*. Amsterdam: Wereldbibliotheek.
- Domenico, R. P. & Hanley, M. Y. ed.(2006). *Encyclopedia of Modern Christian Politics*. Boston: Greenwood Publishing Group.
- Dooyeweerd, H. (1935-1936).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3 dln. Amsterdam: H. J. Paris.
- Kuyper, A. (1880). *Antirevolutionair óók in uw huisgezin*. Amsterdam: De Standaard.

-
- Kuyper, A. (1911-1912). *Pro Rege: Het Koningschap van Christus*. Deel 1-3. Kampen: Kok, J. H., Ballor, J. J. & Flikkema, M. (Eds.) (2016-2019). *Pro Rege* (Vols. 1-3): *Living Under Christ the King*. Bellingham, WA: Lexham Press.
- Kuyper, A. (1916).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Eerste Deel: De Beginselen*, Kampen: Kok, J. H.
- Lijphart, A. (1968). *Verzuiling, pacificatie en kentering in de Nederlandse politiek*. Amsterdam: De Bussy.
- Lijphart, A. (1980). *Verzuiling, pacificatie en kentering in de Nederlandse politiek*. Haarlem: Becht.
- Rossem, M. van (2012). Verzuiling, een versleten paradigma. *Nederland volgens Maarten van Rossem*. Nieuw Amsterdam Uitgevers, 56-67.
- Schutte, G. J. (2009). Boeren. *Het Gereformeerde Geheugen*. Amsterdam: Bert Bakker.
- Stuurman, S. (1983). *Verzuiling, kapitalisme en patriarchaat*. Nijmegen, dissertatie.
- Taylor, E. L. H. "The Tribune Sovereign God's Law as Boundary between the Creation and the Creator". Retrieved from <http://www.freewebs.com/reformational/modal%20aspects2.jpg> (2022.09.01)
- "De Schoolstrijd vanaf 1848: een chronologisch overzicht". Retrieved from <http://www.onderwijsgeschiedenis.nl/Tijdvakken/De-Schoolstrijd-vanaf-1848/> (2022.09.01)
- "1.11 De IJzeren Eeuw - Abraham de Geweldige; Abraham Kuyper". Underdog History. Retrieved from http://www.youtube.com/watch?v=XUHsb4W-ook&ab_channel=kobayasukobayasu (2022.09.01)
- "Who was Abraham Kuyper?"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2020. 10. 06.) Retrieved from http://www.youtube.com/watch?v=cgOp1pPPJFk&ab_channel=VrijeUniversiteitAmsterdam (2022.09.01)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Socio-Ethical Implications of Abraham Kuyper's Thought on Sphere Sovereignty

최용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며 언론인인 동시에 교육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가 영역 주권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그 사회 윤리적 함의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장 칼뱅의 신학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켜 이른바 신칼빈주의를 주장했다. 이러한 영역 주권의 원칙에 따라 카이퍼는 우리 삶의 각 영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힘과 권위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카이퍼는 1980년 암스테르담에 자유 대학교를 설립하고 “영역 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이라는 제목으로 개교 연설을 했다. 나아가 그의 사상은 네덜란드 사회의 소위 “기동화(Verzuiling)”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관해 설명한 후 이 사상의 사회윤리적 함의를 네덜란드 및 한국적 상황에서 논의하겠다. 결론적으로 카이퍼의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것이다.

주제어: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 주권, 신칼빈주의, 기동화, 사회윤리

영성훈련으로서의 영성일기 경험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Experiences about Writing a Spiritual Diary as a Spiritual Disciplines -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천 연 금 (Yeon Kum Cheon)**

김 석 선 (Suk-Sun Kim)***

길 민 지 (Minji Gil)****

김 다 은 (Daeun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writing a spiritual diary for Christians, and to introduce a spiritual diary as one of the spiritual training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the writing spiritual diary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A total of 56 Christians who wrote spiritual diaries participated in the focus group interview.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ranscribed interviews. Two major themes were identified: (a) joy of Coram Deo (b) spiritual community of Adullam. Participants who write spiritual diaries checked the day before God through spiritual diaries, feared God, and lived under God's glory and enjoyed heaven, shared spiritual diaries in a sharing room, experienced community support and recovery, and experienced the Adulam spiritual community with abundant life sharing and companionship. This shows that Christians are becoming spiritually mature by living for the glory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who is always with him through writing a

* 2022년 8월 11일 접수, 9월 15일 최종수정, 9월 16일 게재확정

** 이화여자대학교(Ewha Womans University)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ykum84@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Ewha Womans University) 간호대학 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suksunkim@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Ewha Womans University) 간호대학 박사후연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mjpgil@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Ewha Womans University)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daeunk@ewha.ac.kr

spiritual diary. In addition, through the sharing room, the members were able to have active fellowship, and they could see that they were delayed in Jesus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It is thought that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writing a spiritual diary confirmed in the study can be used as a method for spiritual training that can easily check one's own spirituality in daily life.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a training program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he spiritual diary that can be used without time and space restrictions can be widely distributed, and that a follow-up study on its effect is necessary.

Key Words: spiritual diary, spiritual community, writing diary, qualitative study, focus group interview

I. 서론

영성훈련은 영적 성장과 성화를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제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 순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훈련이다(김승희, 2017: 2 ; 박미경, 2013: 4). 영성의 필요를 채우고자 교회는 말씀 묵상, 기도, 제자훈련, 신앙 서적 읽기 등 다양한 영성훈련을 소개하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영성훈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김승희, 2017: 1).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김승희, 2017: 13).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훈련의 방법으로 신앙의 위인들과 영성가들은 영성일기를 소개하고 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일상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일기(diary), 일기를 기반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일지(journal) 등 영성일기를 두 가지 형태로 기록하였다. 그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점검목록을 만들어 자신에게 질문하며 은총의 수단으로써 영성일기를 사용하였다(박미경, 2013: 14 ; 박창훈, 2016: 23). 프랭크 루박(Frank Laubach)은 24시간 예수님과 친밀감을 경험하기 위해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일기의 형태로 영성일기를 작성하였다. 특히, 자신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대해 100%를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하였다(배웅준, 2012: 90 ; 유기성, 2017: 6). 유기성 목사는 프랭크 루박의 일기에 영향을 받아 영성일기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여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영성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살기 위한 예수동행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영성일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말씀과 기도, 묵상(Q.T.), 예수님 바라보기, 순종하기 등 신앙 체크리스트와 함께 아침 기상 시부터 자기 전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의 삶을 기록하는 영성훈련의 도구로 영성일기를 활용하였다(유기성, 2017: 6). 유기성 목사는 영성일기의 유익을 매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유기성, 2017: 222-223). 또한 나눔방 안에서 공동체와 영성일기를 나눌 때 댓글과 중보기도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유기성, 2017: 103-106).

선행연구에서는 영성일기가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유익하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노권, 2010: 106; 김석선 등, 2018: 79-80). 신학생들은 영성일기를 작성한 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가 늘어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노권, 2010: 104-106). 또한 영성일기를 매일 쓰는 기독교인은 매일 쓰지 않는 기독교인보다 영적 성장,

심리적 안녕감과 신체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석선 외, 2018: 77-78). 영성일기를 매일 작성하는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Kim et al. 2021: 3978).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영성일기가 개인의 영적 성장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유익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을 뿐 영성훈련의 한 도구로써 영성일기 쓰기 경험과 영성일기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경험 및 의미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여 영성일기 쓰기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동질성을 가진 참여자들로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연구주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신경립 등, 2004: 8-12 ; Rabiee, 2004: 655). 따라서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해 기독교인의 영성일기 쓰기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비대면 시대에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성훈련 방법 중 하나로 영성일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영성훈련으로서의 영성일기 문헌고찰

1. 영성일기의 개념

영성훈련이란 예수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 삶의 일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순종하는 활동이다(박미경, 2013: 4). 영성훈련의 방법은 향심기도, 은혜의 역사 체험, 거룩한 독서, 복음서 관상기도, 금식, 영성일기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박미경, 2013: 7-18 ; 유해룡, 2008: 53-72). 그 중에서도 영성일기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화의 과정을 추구하므로 다양한 영성훈련을 통합하는 유익한 방법이다. 즉, 자기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곧 영성일기이다(박노권, 2010: 89-92 ; 박미경, 2013: 6-7). 이처럼 영성일기는 하루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기록으로(박창훈, 2015: 39 ; 박창훈, 2016: 23),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아침 기상 시부터 자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영성을 훈련한다. 영성일기는 삶에서 경험한 일상 속에서 나의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영혼의 대화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생활일기와는 다르다(유기성, 2016; 181 ; 황덕형, 2016: 13). 기독교인의 성화과정은 영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현재 시점에서 성령님과 대화의 의식하고 기록에 남기려는 특징을 갖는다(황덕형, 2016: 13).

영성일기는 교리보다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실천신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이은재, 2018: 105-108). 실천신학의 근간이 된 경건주의 운동을 선도했던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는 이론적인 지식을 개인의 일상생활과 경건 생활의 함양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프랑케는 일기를 쓰는 것이 하루 일과를 기억하도록 하는 단순한 문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며, 이 일기가 누적된다면 이미 지나간 삶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길 원하는 그분의 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이은재, 2018: 114-115).

2. 영성일기의 역사

영성일기는 17세기 후반 영국 청교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깊이 성찰하고 일인칭 시점으로 매일 연속적인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자아성찰을 의미하는 기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곽차섭, 2018: 120-123). 성경에서 시편과 전도서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내용을 기록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존 웨슬리(John Wesley), 로널드 클릭(Ronald Klug), 프랭크 루박(Frank Laubach),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헬렌 세페로(Helen Cepero), 헨리 나우웬(Henri Nouwen) 등 위대한 영성가들을 통해 이어졌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영성일기 쓰기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훌륭한 도구임을 경험하였다. 영성일기는 존 웨슬리가 하루 중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평가하고, 영적 상태를 분석하면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박창훈, 2015: 39). 특히, 자기성찰 점검표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 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존 웨슬리 영성일기의 가장 큰 공헌은 영성훈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평신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시켰다는 점이다(김동환, 2018: 100). 로널드 클릭(Ronald Klug)은 10가지 점검 질문을 통해 하루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일, 기분, 성취와 실패, 깨달은 점, 기도제목 등을 담은 영성일기를 작성하였다(오연희, 1999: 18). 프랭크 루박(Frank Laubach)은 기도일기 형태의 영성일기를 기록하였으며, 그는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 영성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6개월이 지나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을 뜨게 되었다(유기성, 2016: 28-29). 또한 그는 선교지에서 영적 갈급함이 심한 상태에서도 숭고한 삶을 살기 위해 영적 분투의 흔적들을 실험적으로 기록에 남겼으며, 이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배응준, 2012: 12).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영성일기는 결심문 작성, 유혹의 위험 경계, 시간 관리, 다양한 감정변화, 인간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70개의 결심문을 작성하여 매주 읽으면서 자신을 점검하였고, 일기에도 결심문을 자주 인용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17세기 청교도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었다(이강학, 2018: 46-59). 에드워즈는 “아침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하여 평상시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과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하였다(백금산, 1999: 83). 헬렌 세페로(Helen Cepero)는 영적 실천의 하나로 영성일기를 기록하였으며, 성경의 시편을 예시로 들며 영성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시편을 인용해서 나의 이야기로 수정해서 쓰거나, 하나님께 편지쓰기 형식을 제안하며 영성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Helen Cepero, 2008: 27-29). 현대 영성가 헨리 나우웬(Henri Nouwen)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한 영성훈련의 하나로 일기쓰기를 제안하였다. 그는 성경말씀, 기도생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타인과의 교제 등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실제 행하고 계신 일을 묵상하고 폭넓게 기록하였다(Nouwen, 윤종석 역, 2007: 32).

이와 같이 위대한 영성가들은 그 방식은 조금씩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일기의 형태로 기록하였다. 일기는 ‘자아의 문학적인 과정’이며, 영성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기억, 이야기, 생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이은재, 2018: 96). 현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쉽고도 강력한 영성훈련의 도구로 퍼져나가고 있다.

3. 영성일기 작성방법

영성일기 작성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는 성찰일기가 있다(김경은, 2016: 211). 성찰로서 작성하는 영성일기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실체가 되도록 훈련시켜준다(김승희, 2017: 34). 또한, 24시간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고자 꾸준히 예수님과 삶에서 동행하는 것을 기록하기도 한다(박미경, 2013: 13-14).

또한, 영성일기 작성 질문에 따른 일상점검일기와 순종일기 방법이 있다(정성욱, 2018: 148-149)<Table 1>. 일상점검일기는 처음 영성일기를 접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매일 기상, 식사기도, 성경 읽기, 큐티(Q.T.), 기도 순종, 감사하기, 항상 예수님 생각하려고 노력하기 등 점검해야 할 11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는 것이다(유기성, 2017: 34-35). 일상점검일기 작성지침이 익숙해졌다면, 5가지로 압축한 순종일기의 형태로 영성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 영성일기를 처음 작성할 때에는 이러한 작성지침을 따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적응이 되고 나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좋다. 영성 공동체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코이노니아 영성일기는 지체들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그들이 마련한 온라인 공간에 일기를 공개하고, 서로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게 됨으로써 댓글이나 메시지, 전화, 직접 만남 등을 통해 사랑과 위로의 교제를 실천하는 것이다(정성욱, 2018: 149-150). 지극히 개인적인 영성훈련의 도구로서 활용된 영성일기를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것은 빛 가운데 나아가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과 유사하며(유기성, 2017: 97-106), 이는 공동체 내에서 신앙의 역동을 만들어내어 결국 영성 공동체의 성화를 이루어가게 된다. 형식이나 작성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일상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기록하는 것이다(유기성, 2017: 222-223).

Table 1. Guideline questions for writing a spiritual diary

1) 일상점검일기

1.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을 하였습니다니까?
 2.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을 하였습니다니까?
 3.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니까?
 4. 기도 시간에 생각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5.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혼자 있든,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6.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언제였습니다니까?
 7.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8. 하루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다니까?
 9. 예수님께서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까?
 10. 큐티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11. 하나님께서 하신 감사할 3가지 제목을 적어 보세요.
- * 오늘 하루 중에 예수님이 몇 %나 생각나거나 의식이 되셨습니까?

2) 순종일기

1.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다니까?
2.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니까?
3. 오늘 하루 중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4.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불순종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5. 감사기도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4. 영성일기 유익과 효과

로널드 클럭(Ronald Klug)은 영성일기에 대한 유익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기를 쓰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되어 삶을 깊이 있고 솔직하게 들여다 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기본적인 영성훈련과 경건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기록해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힘들었던 하루를 정리하면서 삶의 분별력과 삶의 질서가 생긴다. 다섯째,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영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상의 삶에 대한 자각을 경험할 수 있다. 일곱째, 비평으로부터 자유로운 글의 형식이므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덟째, 일기를 쓰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며 믿음을 분명히 하게 된다. 아홉째, 주어진 시간 안에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와 삶의 목표들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열 번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기장에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다(오연희, 1999: 23-38).

우리나라에서 영성일기에 관한 연구는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현재까지 소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겠다. 선행연구에서 영성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경건한 습관의 형성, 예수님과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 임재의 충만함 3가지를 매일 영성일기의 중요한 유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Kim et al., 2021: 3978). 영성일기 작성 횟수에 따라 영성일기를 매일 쓰는 A그룹과 일주일에 1~4회 쓰는 B그룹, 한 달에 1회 쓰는 C그룹 간 영적 성장, 심리적 안녕감, 신체적 안녕감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영적 성장, 심리적 안녕감, 신체적 안녕감은 영성일기를 매일 쓰는 A그룹이 일주일에 1~4회 쓰는 B그룹, 한 달에 1회 쓰는 C그룹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석선 외, 2018: 77-78). 이러한 결과는 매일 영성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끔 작성하는 것보다 개인의 영적 성장, 심리적 안녕감, 신체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사들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며, 부정적인 감정이 정화되고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황경숙, 2016: 60). 또한, 신학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3주간 영성일기를 기록하고 난 후의 변화를 조사하였을 때, 학생들은 사소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늘어나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등 영적·심리적 건강이 증진되는 효과를 경험하였다(박노권, 2010: 104-106).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성일기의 유익에 관한 혼합연구(mixed method research)의 일부분으로 선행연구(Kim et al., 2021: 3978)의 질적 연구에서는 매일 영성일기를 쓰는 37명을 대상으로 영성일기가 영적 성장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이유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성일기를 작성하고 있는 기독교인 56명을 대상으로 영성일기 쓰기 경험과 의미, 나눔방 공동체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비슷한 배경을 가지거나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상호작용한 자료를 모으는 질적 연구방법이다(Morgan, 1997: 17).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현재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영성일기를 작성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인이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영성일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의 팝업창 안내를 통해 모집된 혼합연구 참여자 38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집 설문지에 인터뷰가 가능한 지역 및 장소, 시간, 요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룹을 배정하였다.

본 연구팀은 혼합연구 참여자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59명을 대상으로 6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당 약 2시간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K도 소재의 교회 건물 세미나실에서 각 그룹은 1회, 약 2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참여자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이탈한 3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5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및 영성일기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여성 31명(55.4%), 남성 25명(44.6%)으로, 평균 연령은 50.7 ± 8.95 세이며 연령 범위는 25세에서 66세였다. 교회 직분은 권사가 39.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집사, 목사, 장로, 사모, 전도사, 성도 순으로 나타났다. 영성일기 작성 횟수는 매일 쓰는 참여자가 66.1%로 가장 많았으며, 작성 기간은 5년 이상이 44.6%로 가장 많았다.

Table 2. Demographic and spiritual diary-related characteristics

(N=56)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5	44.6
	여자	31	55.4

연령	39세 이하	8	14.3
	40~49세	13	23.2
	50~59세	25	44.6
	60세 이상	10	17.9
	평균 ^a	50.7±8.95세	
학력	전문대 이하	20	35.7
	학사	20	35.7
	석·박사	16	28.6
총 교육년수	12년 이하	9	16.1
	13~16년	29	51.8
	17~20년	14	25.0
	21년 이상	4	7.1
결혼상태	결혼	48	85.7
	비혼	7	12.5
	미응답	1	1.8
수입 만족도	불만족	11	19.6
	보통	31	55.4
	만족	14	25.0
교회 직분	성도	2	3.6
	집사	13	23.2
	권사	22	39.3
	장로	5	8.9
	사모	3	5.4
	전도사	3	5.4
	목사	8	14.3
영성일기 작성 년수	3년 이하	14	14.0
	3~5년	17	30.4
	5년 이상	25	44.6
평균 영성일기 작성 횟수	월 1회 이하	2	3.6
	주 1~4회	17	30.4
	매일	37	66.1

a 평균, 표준편차

3. 자료수집 및 연구 절차

인터뷰 실시 전,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인터뷰의 목적과 방법, 참여의 자발성, 참여 의사 철회 가능, 인터뷰 녹음, 인터뷰 결과 활용 및 자료 폐기 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설명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참여 동의서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시작부터 종결까지 녹음되었고, 참여자 전원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총 3대의 녹음기를 배치하였다. 연구책임자 1명, 박사과정생 2명, 석사과정생 1명 등 4명의 연구팀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연구자 4명은 정신전문간호사 또는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연구책임자와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한 박사과정생 1인이 사회자 역할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박사과정생 또는 석사과정생은 보조면접자로 참여하여 인터뷰 중 핵심내용과 현장 분위기 등을 관찰하여 메모하였다. 사회자는 인터뷰 질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부연 설명하고, 각 주제의 토론이 끝난 후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질문은 영성일기 선행연구(김석선 등, 2018: 79)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영성일기 쓰기 경험과 의미, 영성일기 나눔방 공동체 경험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목적에 적합한 질문인지 대해 인터뷰 수행 전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였다. 2인의 전문가는 영성일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영성일기 사역 대표 목사 1인과 영성일기 세미나의 주 강사인 사모 1인이었다. 인터뷰 질문은 “영성일기를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로 시작하여 “영성일기 쓰기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셨나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귀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십니까?”, “영성일기를 통해 어떤 영적성장을 경험하셨습니까?”, “영성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영성일기를 쓰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과 이유를 이야기해주세요.”, “영성일기가 여러분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질문들이 참여자들에게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 후) 잘 요약이 되었나요? 혹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빠지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인터뷰 시에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했고,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경험들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종료 전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추가할 사항이나 빠진 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4. 자료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Conventional content analysis)(Herish & Shannon, 2005: 1279-1281)을 통해 분석하였다. 전통적 내용분석은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분야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연구자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귀납적으로 카테고리나 주제를 추출해내어 새로운 통찰력으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Herish & Shannon, 2005: 1279-1281).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명의 연구자는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며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등 현장 노트 자료를 녹취록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 모든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있는 자료를 코딩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류하기 쉽게 각각 색깔별로 정리하였다. 세 번째, 2명의 연구자는 약 20회 연구 미팅을 통해 분석 내용이 연구목적과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교차 확인하고, 121개의 의미 있는 자료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 분석의 신뢰도 확인과 자료 분석의 적절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4명의 연구팀은 약 30회 이상 만나 의미 있는 자료를 비교·대조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8가지 의미 범주, 4가지 범주, 2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Table 3>.

IV. 연구결과

1. 영성일기 쓰기 경험에 대한 진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영성일기 쓰기 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코람데오의 기쁨’, ‘아들람 영성 공동체’의 2개의 주제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감’, ‘천국을 누리는 삶’, ‘살아있는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의 4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영성일기 쓰기 경험에서 도출된 주제, 범주, 의미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3>와 같다.

Table 3. Participants' experience of writing a spiritual diary

주제	범주	의미 범주
코람데오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점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감
		삶의 가치가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됨
	천국을 누리는 삶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됨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

아들람 영성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낌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로 내면의 문제가 회복되고 살아갈 힘을 얻음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	온라인 나눔방에서 공유한 영성일기의 내용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져 친밀한 나눔을 하게 됨
		삶의 깊은 나눔이 중보기도로 이어져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됨

(1) 코람데오의 기쁨

첫 번째 주제, ‘코람데오(Coram Deo)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감’, ‘천국을 누리는 삶’ 2개의 범주를 통해 도출되었다. 코람데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in front of God)’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in the presence of God)’의 삶이 우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삶이다. 참여자들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고, 하루의 삶을 점검하면서 삶의 가치가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삶에서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였고,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코람데오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감

참여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 동안 경험했던 자신의 감정과 행동들을 되돌아보고 삶을 점검하였다. 또한 영성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삶의 가치가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점검하고 반추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점검하다 보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아주 솔직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점검하다 보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M/63, 권사)

영성일기를 쓰면서 내 삶의 가치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돼요.(F/51, 집사)

사람들과 갈등이 있거나 힘든 일에 부딪혀서 낙심될 때에도 영성일기를 쓸 때는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니 내가 힘든 것만 쓰지 않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F/56, 집사)

② 천국을 누리는 삶

참여자들은 영성일기를 작성하면서 나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매일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보잘것없는 삶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평안과 기쁨이 넘쳐 현재에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글로 쓰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내 자신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만 보이고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해결해주시는 게 이제 명확해졌어요. 전에는 많은 문제에 가려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영성일기를 쓰면서 짙막한 말씀만 보아도 “아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F/47, 집사)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매일 의식하는 훈련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매일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의 삶은 영성일기 전후로 나뉘어져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영성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매일 영성일기를 치열하게 쓰게 돼요.(F/50, 사모)

영성일기를 쓰고 여러 가지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자존감이 너무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던 내 영혼이 평온해지고, 기쁨으로 채워져서 행복합니다.(F/48, 집사)

(2) 아돌람 영성 공동체

두 번째 주제, ‘아돌람 영성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 와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 2개의 범주를 통해 도출되었다. 아돌람 굴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길 때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다. 그 곳에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빛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등 수많은 사람 모여들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윗을 주축으로 하여 서로를 충성되이 섬기며 사랑의 위로가 능력이 된 아돌람 굴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준다. 참여자들은 아돌람 굴에서와 같이 그룹으로 묶여있는 나눔방에서 그룹원들의 댓글을 통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을 경험하였고, 삶의 깊은 나눔이 중보기도로 이어져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영성 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① 살아있는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

참여자들은 영성일기 나눔방의 나눔과 댓글 등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의 언어로 응원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평안함을 경험하였다. 또한 힘든 순간에도 댓글로서 위로를 받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믿음으로 힘든 상황과 우울감에서 회복되어 큰 힘을 얻으면서 살아있는 공동체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일기만 쓰면 매번 나눔방에 “힘내요 집사님,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고 댓글이 달려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어요.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긍정적인 언어를 써서 매일 사람들이 나한테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나눔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댓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눔방에서 매일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도 평안해져요. 댓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F/47, 집사)

너무 힘들 때 영성일기를 쓰기 싫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쓴 다음 날에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럴 때마다 나눔방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댓글을 달아주니까 기도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힘든 순간들을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기도로 지원해주면 그 사람도 저처럼 동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는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했다가도 기도해주는 댓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나눔방 교제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F/51, 집사)

자녀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모인 영성일기 나눔방 모임이 있어요. 자녀를 잃은 시기가 다

가오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눔방 공동체 안에서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알려주고, 서로 같이 아파하고 안아주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M/35, 목사)

②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

참여자들은 영성일기의 나눔방에서 타인의 솔직한 일기를 읽고 댓글을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진솔한 자기 개방과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온라인 나눔방안에서 공유한 영성일기의 내용이 오프라인 교제로 이어져 친밀한 나눔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일기를 통한 개인의 깊은 이야기와 문제를 알게 되어 공허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중보기도로 이어져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목사, 전도사, 속장 등 교회의 직분자들은 나눔방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성도들의 어려움과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준다고 보고하였다.

만나서는 진솔한 나눔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영성일기를 보면서 그분이 겪고 있는 세세한 어려움들을 알게 되서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나눔방 안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겪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허의 마음을 주셔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같이 아파하며 기도를 했어요. 또 다른 분에게는 “너무 힘드셨군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교제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일기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픔과 기쁨도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F/51, 권사)

목회 현장에서 삶을 공유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때 일기 나눔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처럼 심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F/51, 전도사)

저는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지역장을 맡고 있는데 속장님들과 매번 남아서 대화하는 건 시간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나눔방에서 영성일기를 통해서 내가 맡고 있는 속장님들의 영적인 상태나 아프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게 되니까 같이 중보를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직접 만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교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친밀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F/59, 장로)

V. 논의

본 연구는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코람데오의 기쁨과 아둘람 영성 공동체를 경험하였다. 첫 번째 주제, ‘코람데오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감’, ‘천국을 누리는 삶’ 2개의 범주를 통해 도출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어 하루의 삶 속에서 지었던 죄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삶의 가치가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 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코람데오의 기쁨을 경험하였다. 두 번째 주제, ‘아둘람 영성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 2개의 범주를 통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나눔방에서 일기 나눔과 댓글을 통해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을 경험하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깊이 있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하나 되는 아둘람 영성 공동체를 경험하였다.

첫째, 온라인 기반을 활용한 영성일기는 바쁜 일상과 비대면 만남이 늘고 있는 현대에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성훈련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삶의 가치가 예수 중심으로 변하여 하나님 영광 아래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코람데오의 기쁨을 경험하였다. ‘코람데오’란 신전의식(神前意識)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이종숙, 2019: 213). 참여자들은 영성일기를 쓰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하루를 돌아보며 죄를 분별하고 나아가 죄를 다시 짓지 않기를 결단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영성일기 내용과 간증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영성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은혜를 담아내는 도구라고 정의하였다(김승희, 2017: 38). 또한, 참여자들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적 성장을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삶의 가치가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여 보배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매 순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며(히 4:12),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다(요 1:1). 참여자들은 영성일기를 쓰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인식하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피조물의 연합함을 깨달아 은혜받은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영성일기 쓰기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시킨다고 언급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이득영, 2013: 118). 신학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영성일기를 작성한 후 경험과 효과

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은 영성일기를 통해 삶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찾고 감사하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등 영적·심리적 건강이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하였다(박노권, 2010: 106).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영성일기를 통해 정죄감,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안에서 오는 불안함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평온함과 기쁨으로 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영성일기 쓰기는 기독교인들의 내면의 고통을 승화시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평안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는 영성훈련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영성일기를 활용하면 성도들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 영광 아래 기쁜 천국을 누리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온라인 영성일기의 나눔방을 통해 기독교인은 집단 안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수용하며 더 깊은 영적 교제와 함께 공동체 성화를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영성일기 나눔방의 나눔과 댓글 등 공동체의 응원과 지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를 하면서 아둘람 영성 공동체를 경험하였다. 아둘람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혹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은 다윗이 죽음을 피해 피신한 은신처였다(삼상 22:1-2; 시 142:1-7).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를 의지하기 위해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아래 아둘람 굴에서 서로 돌봄을 주고받으며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동역자들로 변화되었다(삼상 22:6, 23:3, 5, 13, 24).

참여자들은 영성일기를 나누며 삶의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있는 공동체를 경험하며 어려운 상황과 우울감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타인의 솔직한 일기를 읽고 댓글을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고 진솔한 자기 개방과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나눔방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는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회복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정성욱, 2018: 149-150). 더 나아가 온라인 나눔방 안에서 공유한 영성일기의 내용이 오프라인 교제로 이어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눔방 안에서 성도들은 영성일기를 통해 깊은 삶의 이야기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함으로써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특히, 목사, 전도사, 속장 등 교회의 직분자들은 나눔방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성도들의 어려움과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중보기도로 한 영혼을 깊이 품게 되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성일기의 나눔은 성도들이 공동체의 수용과 지지를 경험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강력한 집단응집력을 통한 회복을 경

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교제의 장이 되어 교회 안의 속회나 구역모임 등의 소그룹모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유기성, 2017: 7-8).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성일기 쓰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는 코람데오의 기쁨과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을 통해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로 이어지는 아둘람 영성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일기를 보면서 그 분들의 삶과 영성을 마주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할 부분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결국 저에게 유익이 많이 된다는 것이 느껴져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영성일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웃이나 성도와의 수평적 교제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정성욱, 2018: 150). 영성일기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교제는 코람데오의 기쁨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기쁨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의 수평적 교제 안에서 이웃사랑을 행함으로써 아둘람 영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는 성경의 큰 계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영성일기 쓰기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적용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이루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성화를 향해 갈 수 있는 효과적인 영성훈련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김승희, 2017: 26-27).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성일기 쓰기 경험과 의미는 기독교인의 영적성장을 위한 영성훈련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영성일기 쓰기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성훈련 방법 중 하나로 영성일기를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영성일기 쓰기를 통해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눔방을 통해 살아있는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로 살아있는 아둘람 영성 공동체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일반 성도뿐만 아

나라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의 영성일기 쓰기 경험이 어떠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연구가 부족한 기독교인의 영성일기 쓰기 경험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적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온라인을 활용한 영성훈련 방법으로 영성일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성일기는 영성 훈련의 하나로써 기독교인들의 자기성찰을 도울 뿐 아니라 내적 치유 사역의 유용한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영성일기는 개인 기도나 말씀 묵상, 설교나 제자훈련에서 받은 은혜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도구로써 기존의 영성훈련 방법들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나눔방을 통한 일기 나눔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온라인 교제의 장을 열어주고, 댓글을 통한 작은 섬김을 행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영성일기는 목회현장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짧은 성경 구절을 제시해 주고 말씀과 기도 생활의 실천을 일기로 적도록 하여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영성훈련을 경험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구역, 속회, 셀 등 교회의 모임 단위에서 영성일기를 쓰고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 교회 내 중보기도가 활성화되고 하나 된 영성공동체가 세워져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직분자의 영성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목회자들에게는 영성일기의 나눔방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가정의 문제들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자녀, 부부로 구성된 가족나눔방은 소통이 부족한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알게 함으로써 가족 간 공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적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병원 사역 현장에서는 의료진, 원목, 수녀, 수사 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환자들의 영적 요구를 파악하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영성일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온라인 영성일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성훈련뿐만 아니라 공동체 영성훈련을 통해 기독교인의 영적 진보와 균형적인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탁월한 도구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층 성도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과 온라인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비밀보장의 중요성에 더 크게 가치를 두는 청년들의 경우 자기표현과 자기 노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영성일기 공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대 간 차이 또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성일기를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 일부 기독교인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영성일기 쓰기에 관한 모든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영성일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여 통계적

결과를 바탕으로 영성일기 쓰기 경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영성일기가 개인의 영성훈련뿐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영성훈련이 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해본다. 본 연구는 탁월한 영성훈련 방법으로서 영성일기를 소개하고, 영성일기를 작성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미를 제시하였다. 추후 이론과 실제 경험에 근거한 영성일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회 현장에서 적용함으로써 한국교회 영성훈련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곽차섭 (2018). 일기 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양의 경우를 중심으로. **코기토**, 85, 113-142.
- [Kwak, C. S. (2018). Theory and Practice of the Diary Studies in Western Culture. *Cogito*, 85, 113-142.]
- 김경은 (2016). 개신교 영성훈련의 현재와 전망: 관계적통전적 경험의 내면화를 지향하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2, 193-219.
- [Kim, K. E. (2016). The Present and Prospective Protestant Spiritual Exercise : Striving Toward Internalization of Relational and Wholistic Human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02, 193-219.]
- 김동환 (2018). 웨슬리의 성화훈련에 비추어 본 예수동행일기, **2018 예수동행일기컨퍼런스**. 경기도: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 [Kim, D. H. (2018). Spiritual journal looking into John Wesley's Sanctification Discipline. *Conference of Journal with Jesus*. Gyeonggi-do: With Jesus Ministry.]
- 김석선·천연금·최은주·길민지 (2018). 영성일기와 영적성장과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2), 61-87.
- [Kim, S. S., Cheon, Y. K., Choi, E. J. & Gil, M. J. (2018). Spiritual Diary, Spiritual Grow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9(2), 61-87.]
- 김승희 (2017). **한국교회에서 영성훈련의 대안적 고찰(영성일기: 영성일기를 통한 영성훈련)**. 박사학위논문. 웨슬리 신학대학교.
- [Kim, S. H. (2017). *Alternative Consideration on the Spiritual Disciplines in Korean Church (Spiritual Journal: Spiritual Disciplines Through the Spiritual Journal)*. Doctoral Dissertation. Wesley Theological Seminary, Jakarta, Indonesia.]
- 대한성서공회 (2019). **개역개정 성경전서**. 서울: 아가페출판사.
- [The Korean Bible Society (2019). *A revised Bible*. Seoul: Agape Publisher.]
- 박노권 (2010). 영성훈련으로서 영적일기 작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 **신학과 현장**, 20, 87-108.
- [Park, N. K. (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Spiritual Diary as a Spiritual Training. *Theology and Context*, 20, 87-108.]
- 박미경 (2013). 개신교 영성훈련의 현재와 미래-금식과 영성일기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43, 1-24.
- [Park, M. K. (2013).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Protestant Spiritual Discipline: Focusing on Fasting and Spiritual Journa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3, 1-24.]
- 박미경 (2021). 코로나19 이후, 한국 개신교 교회의 교육목회 방향성 연구. **신학과 실천**, 77, 453-483.

- [Park, M. K. (2021). A Study on Educational Ministry in Korean Protestant Church in the Age of Global Crisis. *Theology and Praxis*, 77, 453-483.]
- 박창훈 (2015).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저널(Journal)에 나타난 신학사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사학회지**, 42, 37-62.
- [Park, C. H. (2015). Theology and the Revival Movement in John Wesley's Journals.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42, 37-62.]
- 박창훈 (2016). 존 웨슬리의 영성훈련. **활천**, 755(10), 22-26.
- [Park, C. H. (2016). John Wesley's Spiritual Discipline. *The Living Water*, 755(10), 22-26.]
- 배응준 역. (2012).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 Laubach, F. C. (1964). *Frank Laubach's prayer diary*. 서울: 규장.
- [Bae, E. J. (2012). *Frank Laubach's prayer diary*. Seoul: Gyujang. Trans. Laubach, F. C. (1964). *Frank Laubach's prayer diary*. MI: Revell.]
- 백금산 (1999).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있을까?**. 서울: 부흥과 개혁사.
- [Back, G. S. (2003). *How can we live like Jonathan Edwards?*. Seoul: Revival & Reformation.]
- 신경림·장연집·김영경·이금재·최명민·김혜영·김옥현·김영혜 역. (2004). **질적 연구방법 포커스 그룹**. Morgan, D. L. & Krueger, R. A. (1998). *The Focus Group Kit*. 서울: 현문사.
- [Shin, K. R., Jang, Y. J., Kim, Y. K., Lee, K. J., Choi, Y. M., Kim, H. Y., Kim, O. H. & Kim, Y. H.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ocus Group*. Seoul: Hyunmoonsa. Trans. Morgan, D. L. & Krueger, R. A. (1998). *The Focus Group Kit*. CA: SAGE Publications.]
- 오연희 역. (1999). **영혼의 일기와 영적 성숙**. Klug, R. (1989). *How to Keep a Spiritual Journal*. 서울: 두란노.
- [Oh, Y. H. (1999). *Spiritual Journal and Spiritual Growth*. Seoul: Duranno. Trans. Klug, R. (1989). *How to Keep a Spiritual Journal*. MN: Augsburg Fortress Press.]
- 유기성 (2016). 24시간 예수님과 동행. **활천**, 755(10), 27-31.
- [Yoo, K. S. (2016). 24-hour Walking with Jesus. *The Living Water*, 755(10), 27-31.]
- 유기성 (2017).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영성일기**(6쇄 개정판). 서울: 규장.
- [Yoo, K. S. (2017). *Spiritual Journal*. (6th ed.). Seoul: Kyujang.]
- 유해룡 (2008). 영성훈련의 실제. **대학과 선교**, 15, 51-75.
- [You, H. R. (2008). Various Ways of Spiritual Exercise.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15, 51-75.]
- 윤종석 역. (2007). **영성수업: 믿음으로 사는 지혜를 듣다**. Nouwen, H. J. M. (2006). *Spiritual Direction: Wisdom for the Long Walk of Faith*. 서울: 두란노서원.

- [Yoon, J. S. (2007). *Spiritual Direction: Wisdom for the Long Walk of Faith*. Trans. Nouwen, H. J. M. (2006). *Spiritual Direction: Wisdom for the Long Walk of Faith*. NY: HarperCollins Publishers.]
- 이강학 (2018). 개인 성화훈련과정으로서의 예수동행일기, **2018 예수동행일기컨퍼런스**. 경기도: 위드저스미니스트리.
- [Lee, K. H. (2018). Spiritual journal as a Self-Discipline Courses. *Conference of Journal with Jesus*. Gyeonggi-do: With Jesus Ministry.]
- 이독영 (2013). **기독교 영성훈련을 통한 심리적 변화와 영적 성숙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Lee, D. Y. (2013). *A Study on Psychological Change and Spiritual Maturity through Practicing Christian Spirituality*. Doctoral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 이종숙 (2019). 기독교 상담을 위한 슈퍼비전의 코람데오 자세. **목회와 상담**, 32, 203-228.
- [Lee, J. S (2019) Coram Deo Posture of supervision for Christian Counseling.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32, 203-228.]
- 정성욱 (2018). 성화훈련과정으로서의 예수동행일기, **2018 예수동행일기컨퍼런스**. 경기도: 위드저스미니스트리.
- [Jung, S. W. (2018). Spiritual journal as a Discipline Training Courses. *Conference of Journal with Jesus*. Gyeonggi-do: With Jesus Ministry.]
- 황경숙 (2016). **선교사의 영성지도를 위한 자기표현적 글쓰기 치료: 영성일기의 임상사례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Whang, K. S (2016) *Self-expression Writing Therapy for Missionary Spiritual Guidance: Focusing on the Clinical Case of Spiritual Diar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ucheon, Korea]
- 황덕형 (2016). 살리는 샘: 영성일기는 성령과의 대화. **활천**, 755(10), 12-13.
- [Hwang, D. H. (2016). Living Spring Water: Spiritual Diary is dialogue with Holy Spirit. *The Living Water*, 755(10), 12-13.]
- Helen Cepero. (2008). *Journaling as Spiritual Practice*. IL: Inter Varsity Press.
- Hsieh, H. F.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doi:10.1177/1049732305276687
- Kim, S. S., Kim-Godwin, Y., Gil, M. J., Kim, D. E. & Cheon, Y. K. (2021). The Benefits of Spiritual Diaries: A Mixed-Method Study in Korea.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0, 3978-3992.
- Morgan, D. L. (1997). *The focus group guideboo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Rabiee, F. (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

ety, 63(4), 655-660. doi:10.1079/PNS2004399

Yalom, I.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Y: Basic Books.

예수동행일기 (2019). <https://www.jwj.kr/home/home.do> (검색일 2022.8.1.)

[Journal with Jesus. (2019). Retrieved from <https://www.jwj.kr/home/home.do> (2022.8.1.)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https://wjw.kr/> (검색일 2022.8.1.)

[With Jesus Ministry. Retrieved from <https://wjw.kr/> (2022.8.1.)]

영성훈련으로서의 영성일기 경험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Experiences about Writing a Spiritual Diary as a Spiritual Disciplines -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천연금 (이화여자대학교)

김석선 (이화여자대학교)

길민지 (이화여자대학교)

김다은 (이화여자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영성일기 쓰기 경험을 깊이 탐색하고, 영성훈련 방법의 하나로 영성일기를 소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영성일기를 작성하고 있는 기독교인 총 56명을 6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코람데오의 기쁨’, ‘아들람 영성공동체’ 2개의 주제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감’, ‘천국을 누리는 삶’, ‘살아있는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의 4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영성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나눔방 안에서 영성일기를 공유하며 공동체의 지지와 회복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로 아들람 영성공동체를 경험하였다. 기독교인은 영성일기 쓰기를 통해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영적으로 성숙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나눔방을 통해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를 하며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되어감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서 확인된 영성일기 쓰기 경험과 의미는 일상에서 자신의 영성을 매일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영성훈련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시공간의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영성일기를 널리 배포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영성일기, 영성 공동체, 일기쓰기, 질적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잠언에 나타난 공동체 교육의 다양한 형태들*

Forms of Community Education in the Book of Proverbs

김희석 (Hee Suk Kim)**

ABSTRACT

This article purport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and its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speaker(s) and the learner(s)/audience throughout the book of Proverbs.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aker(s) and audience, made progressive developments in Proverbs 1-9; 10:1-22:16; 22:17-24:34; 25-29, and 30-31,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oundary of the teacher(s)/speaker(s) is gradually extended until the form of education utilizes the means of communal learning. Second, the boundary of learner(s)/audience is also extended until the form of education shapes the learner becomes the teacher. Third, the book of Proverbs is suggestive of a communal context of education that enables the teacher also learns from the learner. Fourth, wisdom education thereby deals with all elements of the life of the learner, which culminates in the formation of the wisdom worldview through the lens of the fear of the Lord. Fifth, this form of education leads the learning community to practice righteousness, justice, and equity. In conclusion, the book of Proverbs helps us to understand that the teacher is also to participate in the learning process, which eventually forms a communal context of education. Education in the book of Proverbs never assumes a closed ending in the educational context, yet an open ending: continual form of the re-educ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Key Words: Proverbs, wisdom, community education, fear of the Lord, Christian worldview

* 2022년 8월 16일 접수, 9월 14일 최종수정, 9월 16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구약학 부교수 gemkhs@gmail.com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잠언의 지혜 교육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다양한 관계적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잠언이 기독교 교육의 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가 등장할 뿐 아니라, 잠언은 지혜서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적인 가르침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론에 있어서 잠언의 지혜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혜자들에 의한 교육이 기독교 교육론의 기초 부분에서 성경적 교육의 예로 제시된다(이홍찬, 2008: 44-45). 김광륜은 기독교 대학에서의 잠언을 교육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방법을 실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김광륜, 2010: 51-74). 잠언은 구약 지혜서 3권(욥기, 잠언, 전도서) 중 하나인데,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기독교적 세계관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 주고 있기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잠언은 전도서나 욥기와는 달리,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드러낸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일반인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내용을 가르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욥기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및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배움을 얻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잠언은 주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때 가르치는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기초적인 틀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틀로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잠언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익힘에 있어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적인 틀이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잠언 주석이나 연구들에서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 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은 쉽게 찾을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잠언 본문에 대한 고찰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한 잠언을 통해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에 대한 함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장으로 가정, 교회, 사회, 학교를 들 수 있을 것인데(이홍찬, 2008: 508-532), 이러한 교육의 장에 대한 이해에 아직 잠언에 나타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 연구가 적용되지는 못하였으므로, 기독교 교육 연구로서의 의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잠언 전체의 해석학적 구조 안에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잠언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이를 통해 잠언이 제시하는바 지혜 교육에 있어서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기초로 우리의 교육 현장을 위한 함의를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여호와 경외 세계관으로서의 잠언

먼저 잠언의 신학적 특성과 해석학적 구조를 살펴보자. 이는 이후에 고찰하게 될 잠언에서의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성 발전을 위해 기초가 되는 잠언의 구조적 흐름이기에 본 논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구약성경에는 지혜서로 분류되는 세 권의 책이 있다. 잠언, 전도서, 욥기이다. 이 지혜서 세 권에서는 구약의 다른 부분들 즉 오경, 역사서, 선지서와는 다른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이 발견되는데, 바로 ‘삶의 현장과의 연관성’이다. 지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직접 부딪친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배움의 과정을 헤쳐나갔던 신앙 여정의 산물들이다(현창학, 2009: 9-24).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탁의 내용들을 간혹 포함하고 있지만, 지혜서의 대부분은 구약의 저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글로 풀어낸 가르침, 노래, 혹은 질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지혜서의 저자들이 가지고 씨름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서 각 권은 조금씩 서로 다른 주제를 보여준다. 먼저 잠언을 살펴보면, 잠언은 주로 일상생활의 평범한 문제들을 많이 다룬다. 언어생활, 리더십에 대한 순종, 재물,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친구 관계 등의 아주 실제적인 삶의 이슈들에 대해 가르친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9장이 잠언의 서론인데, 여기서 여호와 경외 사상의 근원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10-29장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통찰들을 제시하며, 30-31장에서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삶의 궁극적인 모습을 실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즉 일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전도서는 조금 상이한 관점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점에 비추어본 인생의 의미를 관조하듯이 풀어낸다. 더 이상 지혜를 선택하라고 강조하지 않으며, 그 지혜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더 깊은 존재론적 사색으로 들어간다. 같은 지혜서인데, 접근하는 관점이 사뭇 다른 것이다. 욥기 또한 잠언과 전도서와 다른 관점을 취한다. 욥기는 욥이라는 인물의 삶의 스토리 안에 친구들과의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담고 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라는 질문이다. 의인으로 인정하신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의롭다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삶에서 인정하며 섬겨야 할지를 질문한다. 잠언과 전도서가 인간의 삶에 대해 묻고 답한다면, 욥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묻고 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지혜서 세 권은 각각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지혜서 세 권 안에서 공통점은 선명하게 발견된다. 세 권을 서로 긴밀히 연결해주는 공통 주제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경외 사상이다. 잠언 1:7과 9:10에서 잠언의 핵심 구절로 이해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은 전도서와 욥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도서 12:13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는 명령이 등장한다. 전도서 전체의 마지막에서 결론적인 실천 사항으로 여호와 경외 사상이 강조된 것이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평가하실 때 욥기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을 명확하게 밝힌다(욥 1:1, 8; 2:3).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욥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더 깊이 세워지는 훈련을 통과한다. 즉, 구약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 욥기는 모두 여호와 경외라는 개념을 그 사상적 기초로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경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전도서, 욥기의 본문을 각각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 여호와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개념에서 멈추지 않으며, 그 이상의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적 세계관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잠언이 가르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을 배우고,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여호와 사상을 배우고, 욥기가 훈련시키는 여호와 경외 사상을 훈련받는다면, 세 권을 통해 각각 얻게 된 여호와 경외 사상을 통전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구약 지혜서가 말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의 큰 그림을 정리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잠언의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인식론적 관점’에 접근한다(김희석, 2011: 203-235). 어떻게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를 분간해낼 수 있느냐는 ‘분별의 관점’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다. 특별히 잠언 1-9장은 지혜 여인과 음녀 사이를 명확하게 대조시키면서 잠언의 독자들에게 지혜 여인을 선택하라고 가르친다.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음녀의 유혹은 매우 집요하며,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지혜와 음녀를 분간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잠언 1:7 및 9:10에서 1-9장의 서론과 결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을 붙잡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 원칙은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 경외이다.”라는 명제이다. 지혜를 찾아서 지혜가 가져다주는 축복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잃은 상태가 되어 도리어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지혜를 찾아 축복을 누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면, 오히려 그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되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까지 더불어 누리게 된다. 여호와 경외는 단순한 실천을 위한 명목상의 구호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진실한 가치들이 세상의 죄에 물든 가치로부터 분별해내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론적 세계관’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의 인식 과정 중에 최종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핵심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배운 후에는, 잠언 10-29장에 나오는 많은 잠언들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실제

의 삶 속에서 연마해야 한다.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삶의 문제를 통해 그 세계관을 씌름하도록 구약 지혜서의 입문서인 잠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III. 잠언의 구조와 해석학적 이슈

1. 잠언의 구조

잠언은 전통적인 신학 견해 범주 안에서 솔로몬의 저작으로 이해되어 왔다. 비평적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솔로몬 저작설을 부인하지만, 왈트키(Bruce K. Waltke)와 같은 보수적인 학자는 솔로몬 저작설을 지지한다(Waltke, 2004: 31-36). 좀 더 정확하게 서술하자면, 대부분의 잠언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며, 그 후 어떤 단계에서 수집이 된 것이다(Estes, 강성열 역, 2007: 293-298). 왕상 4:32은 솔로몬이 삼천 가지 잠언을 말했다고 기록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 잠언들을 모아 수집하여 현재의 잠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은 잠언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잠 1:1; 10:1; 25:1). 물론, 잠언 중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 이 문제는 잠언 전체의 구조와 더불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	1-9장	솔로몬의 잠언(1:1)
본론 I	10:1-22:16	솔로몬의 잠언(10:1)
본론 II	22:17-24: 22	지혜있는 자의 말씀(22:17)
본론 III	24:23-34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24:23)
본론 IV	25-29장	솔로몬의 잠언(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 25:1)
결론 I	30:1-33	아굴의 잠언(30:1)
결론 II	31:1-9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말씀(31:1)
결론 III	30:10-31	현숙한 여인의 송가

각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고찰해 보도록 하자.

(I) 1-9장

잠언 1-9장은 잠언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잠언 10장 이후의 본문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적 서론’이라는 표현은, 어떤 책의 가장 앞에 나오

는 한 본문 혹은 맥락이 나머지 전체의 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잠언 1-9장은 10장 이후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리를 제시한다. 1-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며(잠 1:1), 솔로몬이 아들을 가르치려고 비교적 긴 교훈을 연달아 펼쳐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잠언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2) 10:1-22:16

잠언 본론의 첫 번째 부분으로 주로 개별잠언들의 모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잠언이란 한 문장으로 구성된 개개의 잠언을 말한다. 속담이나 격언처럼 한 줄 안에 지혜의 메시지를 담은 짧은 형태의 문장이 바로 개별잠언이다. 10:1-22:16은 이미 지어져 있었던 개별잠언들을 나중에 수집한 것인데, 저자는 솔로몬이다(잠 10:1). 이 부분은 해석학적 본론에 해당이 되는데, 1-9장의 해석학적 서론인 여호와 경외 사상을 기준으로 삼아 일상의 이슈들을 풀어나가도록 되어 있는 문단이다.

(3) 22:17-24:22

잠언 본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개별잠언의 모음집이라기보다는, 1-9장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교훈과 비슷한 문체로 작성되어 있다. 저자는 솔로몬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혜있는 자들의 말씀들’로 표기되어 있다(잠 22:17). 이 부분 역시 솔로몬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것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솔로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지혜있는 자들’이라고 표기되었다.

(4) 24:23-34

잠언 본론의 세 번째 부분으로, 22:17-24:22와 유사한 형식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역시 솔로몬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혜있는 자들에 의한’이라는 문구만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 역시 솔로몬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5) 25-29장

잠언 본론의 네 번째 부분이다.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고 잠 25:1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의 잠언을 후대에 수집하여 잠언서 본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첫 번째 본론 부분(10:1-22:16)과 유사한 개별잠언 모음집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별잠언들 역시 1-9장에서 이미 가르쳐준바 여호와 경외 사상을 기준으로 삼아 일상생활의 통찰력들을 해석, 적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잠언 전체의 구조를 근거로 이해되어야 한다.

(6) 30장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아굴의 잠언은 매우 독특한 표현기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신학적인 성격은 잠언서 전체의 신학적 성격을 잘 요약하여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31장과 더불어 잠언의 결론 역할을 한다.

(7) 31:1-9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친 교훈의 내용들이다. 여자와 술을 경계하면서 올바른 통치권을 행사할 것을 교훈하는데, 31:10-31의 내용과 연결되어 잠언 전체의 결론을 형성하게 된다.

(8) 31:10-31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본문으로, 현숙한 아내에 대하여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송가는 앞선 르무엘 왕의 말씀과 연결되어 잠언 전체의 결론으로서 기능한다. 여호와 경외 사상을 실천하였을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현숙한 여인의 가정이 복을 받은 모습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

2. 잠언의 구조와 관련된 해석 이슈들

이러한 잠언 전체의 구조가 본문 해석과 연관되어 갖게 되는 이슈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잠언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본론인 10-29장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1-22:16 및 25-29장은 주로 개별잠언들의 모음집이다. 이 개별잠언들은 매우 다양한 삶의 상황들을 독자들 앞에 제시한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왕 혹은 신하와의 관계, 재물 사용, 언어생활, 우정, 마음 관리, 직업윤리, 건강, 게으름/부지런함 등등 다양한 주제들이 펼쳐진다(Longman, 임요한 역, 2019: 867-917).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구약성경의 다른 본문들보다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려 하면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이 개별잠언들을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본문이 우리의 삶에 가까운 만큼, 그 올바른 적용과 해석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학자들은 개별잠언의 해석에 있어서 독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연구해 왔는데, 그 이유들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상황성’(situationality)의 문제이다. 상황성이란 “하나의 개별잠언은 하나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다”라는 뜻이다(Crenshaw, 1998: 71 ; Van Leeuwen, 1988: 87-106 ; Waltke, 1992: 17-22). 다시 말

해, 솔로몬이 어떤 잠언 하나를 지었을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적절한 지혜를 잠언으로 표현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성’의 문제는, ‘상황 윤리’의 개념과는 매우 다르다. 상황 윤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예를 들어 십계명 혹은 핵심교리에 해당되는 가르침들)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하는 인간 중심의 해석에서 비롯된 윤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상황성이란, 본문 자체가 그 적용의 범위를 이미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자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잘못된 적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잠언을 바로 적용하려면, 저자가 염두에 두었던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원래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 적용해야만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솔로몬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잠언 10-29장이 원래 따로 따로 지어진 개별잠언을 나중에 한 본문으로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잠언이 아닌 일반 성경 본문들은 그 앞뒤 문맥이나 역사적 배경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러한 정보로부터 본문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잠언은 경우가 다르다. 개별적으로 지어진 잠언이 나중에 수집되었고, 따라서 개별잠언 모음집인 10-29장, 특별히 10:1-22:16 및 25-29장에서는 정형화된 문맥은 등장하지 않는다. 각 개별잠언과 관련된 원래의 역사적 상황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개별잠언의 올바른 해석은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맥 및 역사적 정황의 정보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언 본문인 10-29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잘 해석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개별잠언들의 상황성을 극복하고 개혁주의 원리로 잠언들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잠언 1-9장에서 제시된다. 1-9장은 10-29장의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구약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1-9장은 잠언서 전체를 위한 해석학적 서론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1-9장의 핵심이 ‘여호와 경외를 인간의 인식론적 세계관으로 삼는 것’이 분명하다. 여호와 경외 사상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인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구조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교육자와 피교육자, 즉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1-9장, 22:17-24:34, 그리고 30-31장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 설정 형태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는 개별잠언 모음집인 10:1-22:16 및 25-29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 즉,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혜 교육이 필요한데, 그 지혜 교육의 현장이 1-9장, 22:17-24:34, 30-31장이고, 이 문단들이 잠언의 해석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이러한 문단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잠언 구조의 흐름에 따른 교육자와 피교육자 관계 설정

잠언이 드러내고 있는 지혜가 어떻게 전수되었는지에 대하여 잠언 학계는 통일성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고대 이스라엘에 지혜자 그룹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지혜 자체를 전수하는 학교가 실제로 존재했었는지는 증명하기 어렵다(현창학, 2009: 47-57) ; Lux, 구자용 역, 2012: 98-104).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지혜학교라는 역사적인 이해에 집중하기보다는,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통해, 잠언이 설정하고 있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즉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와 관계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브라운(William P. Brown)은 잠언 전체를 인격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 보면서 가정에서 공동체를 향해 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Brown, 1996: 22-49). 위에서 설명한 잠언 전체의 구조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각 부분은 화자와 청자, 즉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를 각각 독특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하의 설명은 연역적 설명이 아니라 귀납적 설명이다. 즉 잠언 본문의 거시적 구조 흐름을 따라 설명해 나가게 된다.

1. 1-9장

잠언 1-9장은 잠언 전체를 위한 해석의 서론인데, 그 중심 주제는 “지혜를 얻으라.”라는 명령에 있다. 그래서 화자(가르치는 이)는 솔로몬이며, 청자(배우는 이)는 솔로몬의 아들로 규정된다.

(1) 잠 1:1-7

잠언 1:1-7은 잠언 1-9장의 서언인데, 잠언 1-9장을 읽는 목적을 설명하는 본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① 잠언의 교육목표

잠 1:2-3은 잠언이 의도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잠 1:2)”,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잠 1:3)”

2절은 잠언 1-9장을 읽는 이유가 ‘지혜’와 ‘명철’을 얻게 위함이라고 말한다. 지혜와 명철은 사실상의 유사어휘이기에, 이는 잠언교육의 목표가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명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그 지혜 얻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더 멀리 내다보는 보다 큰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3절이 밝혀준다. 개역개정판이 3절에서 ‘지혜롭게’라고 번역한 단어는 ‘지혜롭게 행하여 성

공하다'라는 의미이며, 잠언이 전형적으로 말하는 '지혜'는 아니다(Longman, 임요한 역, 2019: 143). 3절의 핵심은 원문의 하반절 문구인 '공의, 정의, 정직'이다. 대개의 영어성경에서는 'righteousness, justice, equity'로 번역하는데, 이를 '정의, 공의, 올바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즉, 잠언의 교육목표는 독자들이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해서 정의/공의/올바름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지혜교육은 그 지혜를 통하여 독자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올바른 삶을 추구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② 지혜 교육의 대상

1:1-7은 1-9장의 화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잠 1:4)”

잠언 1-9장의 독자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로 규정된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아직 최종선택을 하지 않은 순수한 자, 미숙한 자 혹은 순진한 자로 이해되어야 한다(Clifford, 안근조 역, 2015: 58-59). 즉,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미련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이전 상태의 존재를 말한다. 이러한 이해는 하반절의 ‘젊은 자’로 다시 한번 재규정된다. 젊은 자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을 의미하는데, 이는 잠언 전체가 독자를 향해 “지혜를 얻으라.”라는 메시지를 “지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비유로 표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잠언을 배우는 독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관계 맺기를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잠언 1-9장은 배우는 이가 아직 지혜를 갖지 못한 자인 것으로 상정한다. 1-9장을 읽으면 ‘지혜를 갖지 못한 자’가 ‘지혜를 가진 자’로 변화되게 된다. 1-9장의 목적은 독자(배우는 이)를 ‘미숙한 자’에서 ‘지혜자’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2) 잠 1:8-3:35

이 본문은 잠 1-9장의 본론(1) 부분인데, 1:1-7에서 서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매우 논리적으로 이끌어간다. 이 단락에서 화자는 솔로몬이며, 청자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화자가 ‘솔로몬’ 즉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버지 자신만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메시지’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메시지이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잠 1:8)” 즉 내용은 부모 모두의 것인데, 그 내용을 전달하는 화자는 아버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교육을 받는 대상을 ‘내 아들’로 규정하면서 교육해 나간다. 1:8-3:35의 중심 내용은 ‘추구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라는 명령이다. 1:8-3:35에서 솔로몬이 화자가 유일한 본문은 잠 1:20-33인데, 이 부분에서의 화자는 ‘지혜 여인’이다. 지혜가 여성

으로 의인화되어 청중들에게 1인칭 화법으로 연설한다. 이 본문은 나중에 8장에서 더 발전되어 나타나게 된다.

(3) 잠 4-8장

이 단락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먼저 청자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4장 1절에는 ‘아들들아’라는 복수형이 등장한다. 배우는 이가 ‘복수형태’ 즉 공동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공동체’는 다양한 경우의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다. 잠언 3장까지는 배우는 이 즉 독자가 단수형으로 나타났는데, 4장에서는 ‘아들들아’라는 표현을 통해 배우는 이가 복수로 나타난다. 즉 배우는 이가 개인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공동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잠언의 구조적 흐름에서 이러한 확장은 다양한 의미의 공동체 형태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4장 1절에 왜 이런 복수형이 등장하는가? 4:1-9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바로 이 부분부터 화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전수받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4:4b-9에서는 자신의 선조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직접 인용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렇게 청자를 복수형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잠 4-8장에서 총 4번 등장한다 (4:1-9; 5:7; 7:24, 8:32-36).

4장 첫 부분에서 우리는 잠언의 교육시스템에 있어서 일종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화자는 솔로몬이지만, 사실상 그가 전달하는 내용은 그의 가족의 선조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며, 그는 이 내용을 자신의 가족인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즉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교육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수직적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화자와 청자가 사실상 수직적인 확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확장의 흐름은 8장에 이르러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된다. 8장은 우리가 ‘지혜 장’이라고 일컫는 본문으로,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지혜 여인’으로 나타나며, 1인칭 화법으로 직접 연설한다. 지혜는 여기서 지혜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설명한다. 특별히 8:22-31에서 지혜는 자신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고, 피조 세계 전체를 기뻐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혜는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았고 창조주의 영역에 속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Bartholomew & O'Dowd, 2011: 89-91). 정경적으로 보자면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Longman, 임요한 역, 2019: 319-323).

그런데, 이 지혜 여인의 연설에 청자는 이전보다도 더 확장된다. 8:4에서 지혜는 인류 전체를 자신의 교육대상으로 삼는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잠 8:4)”

여기서 ‘인자들’로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아담의 아들들’로서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 4:1에서 ‘아들들’은 솔로몬 가문의 후손들을 말하지만, 8:4에서의 ‘아들들’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확장된

다. 그렇다면 지혜가 왜 ‘아담의 아들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까? 8:4의 ‘인자들’이라는 표현은 8:31에서 다시 한번 발견된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잠 8:31)”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창조 시점에 ‘인자들’을 기뻐했다. 여기서 ‘인자들’이란 역시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지혜가 인류 전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8:32에서 매우 중요한 확정의 시점을 맞게 된다. 8:32에서 지혜는 자신의 청중을 ‘아들들아’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4:1 이후에 여러 차례 반복된 문구이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잠 8:32)”,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잠 4:1)”,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잠 5:7)”,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잠 7:24)”

잠 5:7, 7:24, 8:32의 상반절은 원문이 정확하게 동일하다. 개역개정版的 번역이 서로 조금 다를 뿐, 원문은 동일함에 주목해야 한다. 8장에서 지혜 여인은 앞서 7장까지 솔로몬이 화자로서 반복하여 사용한 문구인 ‘아들들아’라는 문구를 받아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 즉 4장에서 시작된 ‘청중의 수직적 확장’은 8장의 지혜 여인 연설문에서 ‘청중의 수평적 확장’을 맞이하여 ‘인류 전체’를 그 교육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파스(Michael J. Fox)는 8:32에서 지혜가 ‘아들들아’라고 청자를 호칭한 부분을 지혜가 자신의 대상으로 여기는 바로서의 청중(audience)를 뜻한다고 보았을 뿐, 더 깊이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깊이의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이다(Fox, 2000, 289-290). 대개의 잠언 연구자들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 설정 및 그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그렇기에 본 논문에 고찰한 내용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위한 함의는 무엇일까?

첫째, 교육이란 단순히 아버지 1인이 아들 1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아버지가 선조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대대로 아들들 즉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현상이다. 배움은 공동체적이어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배움은 단순한 한 가정의 경험에서 나오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 참된 지혜란 잠언 8장이 말하는 지혜 즉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보편적으로 모든 피조 세계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의미의 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는 잠 9:10에 잘 나타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얻을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배움이란 지혜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며, 한 가정이나 한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때보다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란 가정에서 친족으로, 가정에서 교회

로, 지역교회에서 공교회로, 공교회에서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란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잠 10-29장

(1) 잠 10:1-22:16 및 25-29장

앞서 언급한 대로, 잠언 10-22:16 및 잠언 25-29장은 개별잠언 모음집이다. 여기에 ‘내 아들이’와 같은 특정적 청자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개별잠언 모음집 본문에서 ‘내 아들이’가 나타나는 곳은 잠 19:27 및 27:11 뿐이다. 개별잠언 모음집은 우리가 본고에서 살펴보는 교육방식에 대한 뚜렷한 특징은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서 배우는 이인 청자/독자를 ‘의인 vs 악인’의 대립 구도로 편성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1-9장에서 지혜를 배워 지혜자가 된 청자/독자는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본문이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잠 22:17-24:34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개별잠언 모음집 중간에 위치한 22:17-24:34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본문의 화자는 ‘지혜자들’이다. 이 문단에는 두 개의 표제가 나타나는데, 22:17에는 ‘지혜자들의 말씀들,’ 그리고 22:23에는 ‘지혜자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지혜자들’이란 누구인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지혜자들이 누구인지 본문 자체는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다(Longman, 임요한 역, 2019: 654). 그러나, 이 화자가 ‘지혜자’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별하다. 여기서 지혜자들이란 잠언 전체 구조에 있어서 볼 때 1-9장을 배운 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1:4에 나왔던바 ‘어리석은 자’ 및 ‘젊은이’들이 1-9장의 교훈을 통해 지혜를 만났고 지혜와 결혼했고 그래서 결국 ‘지혜를 가진 자’ 즉 ‘지혜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10:1-22:16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해 왔는데, 이제 그들은 ‘지혜자’로 명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결국 솔로몬의 잠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지혜자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한 본문 자체의 의도가 중요할 것이다.

사실, 22:17-24:34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문체와 내용이 개별잠언 모음집인 10:1-22:16보다는 1-9장과 훨씬 더 유사하다.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청자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많이 등장한다(23:15, 19, 26; 24:13, 21).

그래서 잠언 22:17-24:34은 ‘지혜 재교육 코스’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문단은 10:1-22:16이나

25-29장과는 달리 개별잠언 모음집이 아니고, 오히려 1-9장과 매우 유사한 문체를 구사한다. 다시 말해, 가르치는 이가 배우는 이를 설득하는 교훈체 장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1-9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가르침을 배우라는 설득이 나타나며, 술이나 음녀를 멀리해야 한다는 교훈 역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문단이 잠언 전체에서 가지는 기능은 무엇인가? 1-9장에서 지혜를 추구하여 지혜와 결혼한 잠언의 독자는 10:1-22:16의 개별잠언 모음집을 거처온 후, 또 다른 개별잠언 모음집인 25-29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이는 ‘지혜자들’로 나타난다. 지혜자들은 솔로몬을 가리킬 수 있으나, ‘지혜자들’이라고 굳이 표현된 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솔로몬’ 한 사람만이 교육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1-9장에서도 솔로몬은 자신만의 가르침을 베풀지는 않았다. 자신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르침이 전수되었고, 심지어는 지혜가 스스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제 우리는 22:17-24:34의 재교육 현장에서는 솔로몬은 사라지고 대신 ‘지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지혜를 전수하는 현장을 보게 된다. 1-9장에서 ‘청중의 확장’ 즉 ‘배우는 이의 확장’이 나타났다면, 이제 우리는 ‘화자의 확장’ 즉 ‘가르치는 이의 확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1-9장에서 지혜를 선택하라는 권고를 받고 9장에서 지혜를 선택하게 되면, 1장에 나타난 ‘어리석은 자’가 ‘지혜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지혜를 배운 이들은 10:1-22:16의 일상의 문제들에서 실제 선택과 적용의 과정을 통과하였고, 이후 22:17-24:34에서 ‘지혜자 공동체’가 되어 가르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혜를 다시 배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배우는 일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혜 교육의 체계가 공동체적인 상호 가르침과 배움의 현상으로 잠언의 구조 전체에서 깊어졌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22:17-24:34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육의 함의는 무엇일까? 첫째, 교육이란 한 번 배워서 현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평생토록 교육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 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계통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연장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우리는 반드시 숙고하고 현실에서 실천해 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교육이 실제적인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잠언에서 두 개의 개별잠언 모음집(10:1-22:16과 25-29장) 사이에 이러한 재교육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재교육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배우는 이가 가르치는 이로 설 수 있게 하는 ‘가르치는 이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 우선, 배우는 이가 성장하여 가르치는 이가 되게 해야 한다.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배움을 얻은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다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개인으로 서 있지 않으며, ‘지혜자들’로 표현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가르치는 이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부분은 실천적으로 더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가르치는 이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숙제로 남는다. 신학교육이 아닌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교육에서 이런 지점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지는 혹은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지혜를 배운 자들은 가르치는 이의 입장과 배우는 이의 입장에 동시에 서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배움의 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직책일 뿐, 공동체 구성원들은 가르치는 일과 재교육 받는 일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배움의 공동체적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잠 30-31장

이제 우리는 잠언의 해석학적 결론인 30-31장에 도달했다. 이 부분은 잠언의 결론부인데, 매우 독특한 한 화자/청자(독자)의 구조를 그려내고 있어서 해석학적 관점에서 잘 살펴야 한다.

(1) 잠 30장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다. 아굴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며, 성경 밖의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Longman, 임요한 역, 2019: 812). 30장 전체에 걸쳐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 1-9절에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10절 이후에는 ‘서너 가지’ 등의 특수한 형식을 동원한 여러 가지 지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청자로 알려져 있는 이디엘과 우갈 역시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2) 잠 31:1-9

잠언 31장 1-9절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훈계한 말씀이다. 아들 르무엘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공의로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의 화자와 독자(청자)도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3) 잠 31:10-31

잠언 31장의 나머지 부분인 10-31절은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이 아내 덕분에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잠언 1-9장에서 말하는 지혜 여인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더 명확히 말하자면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문예적 비유이며 여호와 경외를 곧

지혜의 본질로 이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잠언 30-31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육방식은 무엇인가? 잠언의 서론인 1-9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아들들)을 교육했고, 중간 재교육 코스인 22:17-24:34에서 지혜자들이 잠언의 독자들을 공동체적 상호배움의 상황에서 재교육(평생교육)했다면, 이제 30-31장에서 우리는 아굴 및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는 매우 구체적인 교육자로서의 샘플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잠언은 솔로몬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결론을 맺기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 무명의 존재들을 등장시킨다. 그것도 남자 1명(아굴), 여자 1명(르무엘의 어머니)을 등장시켜 쌍을 이룬다.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1-9장의 가르치는 이인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22:17-24:34의 ‘지혜자들’ 공동체를 거쳐, 이제는 한 구체적인 인물이 지혜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이어지는 잠언 31:10-31의 현숙한 여인의 그림은, 아굴 및 르무엘의 어머니가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지혜자들로서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언 30-3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육의 함의란 ‘지혜 교육의 실천적 열매를 실제로 보여주는 샘플’로서의 함의라고 할 수 있다. 잠언은 이제 지혜자로 성장하여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 역시 사람을 길러내는 구체적인 열매를 목표로 삼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르무엘의 어머니의 경우는 교육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함의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들이 지도자로서 적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여자와 포도주/독주를 삼가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여자와 포도주/독주는 비유적 의미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잠 31:5)”,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1:8)”,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잠 31:9)”

이런 요소들은 르무엘로 하여금 지도자의 바른길을 행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술/여인이라는 모티프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맥락은 22:17-24:34에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모티프들이 르무엘의 어머니의 교훈에서는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제시되는 것이다. 아굴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많이 다루었다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의/공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바 잠 1:3에서 잠언을 읽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제시되었었고, 이제 잠언의 결론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IV. 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을 위한 함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 바로 지혜 교육은 개인이 개인을 가르치는 데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다. 잠언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한 바와 같이, ‘가르치는 이’(화자)는 계속 확장되어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또한 ‘배우는 이’(독자/청자) 역시 계속 확장되었는데, 배우는 이가 가르치는 이로 성장해 나갔다. 배우는 이가 가르치는 이가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때 잠언이 설명하는 여호와 경외 세계관 교육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잠언은 상호배움의 공동체적인 교육의 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부에 등장하는 아굴 및 르무엘왕의 어머니는 가르치는 이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고, 배우는 이가 성장해서 가르치는 이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이의 자리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상호배움의 교육의 장이 형성되는 것이며, 교육이 한 기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재교육)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잠언에 나타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다양한 관계적 형태들은 결국 배움의 장이 공동체적 상황이어야 바른 지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잠언의 전체 구조 및 화자/청자의 관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는 결국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교육하는 지혜 교육의 형태는 다양한데, 그 교육의 형태는 공동체성의 확보 및 실천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여호와 경외라는 세계관적 가르침은 공동체라는 교육의 틀 속에서 풀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성경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통찰력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동체적 형태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로 가르침이 전수되는 가정의 맥락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가정인 친족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교회 혹은 학교와 같은 의미의 공동체일 수도 있다. 잠언은 이런 다양한 의미의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개인을 가르치는 구조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가르치는 것, 자녀들이 함께 배우는 것, 자녀들이 부모로 성장하는 것, 학생이 교사로 성장하는 것,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등등, 매우 다양하고도 통합적인 공동체 교육의 양식을 잠언이 제시하고 있기에, 우리는 잠언의 지혜 교육을 어떤 한 가지 맥락에만 제한되게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현장의 맥락들에 적용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잠언의 능동적, 유기적, 통합적인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 설정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현장을 떠나 급속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어떻게 상황에 맞는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상호교육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도

전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관계성 속에서 배움을 일구어나갈 때 참된 지혜 교육이 가능하다는 잠언의 해석학적 흐름에 근거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 설정 모델은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성경적 가르침이 된다. 이 논문에서 구체적인 교육적 대안까지 소개하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로 남겠으나,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실제적인 적용모델이 연구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성열 역. (2007). **지혜서와 시편 개론**. Estes, D. J. (2005).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Kang, S. Y. (2007).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oyang: Christian Digest Press. Trans. Estes, D. J. (2005).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 구자용 역. (2012). **이스라엘의 지혜**. Lux, R. (1992). *Die Weisen Israels*.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Ku, J. Y. (2012). *Die Weisen Israels*.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Trans. Lux, R. (1992). *Die Weisen Isra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김광울 (2009). 기독교대학 학생들을 위한 잠언 교육 방안. **기독교교육논총**, 23, 51-74.
- [Kim, K. Y. (2009). A Study on Proverbs Education Method for Christian College Student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3, 51-74.]
- 김희석 (2011). 잠언 1-9장의 해석학적 기능과 신학적 함의. **Canon&Culture**, 5(1), 203-235.
- [Kim, H. S. (2011). Proverbs 1-9: Hermeneutical functions and Theological Implications. *Canon & Culture*, 5(1), 203-235.]
- 안근조 역. (2015). **지혜서**. Clifford, R. J. (1998). *The Wisdom Literatur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Ahn, K. J. (2015). *The Wisdom Literature*. Seoul: CLC. Trans. Clifford, R. J. (1998).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 이홍찬 (2008).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 [Lee, H. C. (2008). *Reformed Christian Education*.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 임요한 역. (2019). **잠언 주석**. Longman, Tremper (2006). *Proverbs*. 서울: CLC.
- [Lim, Y. H. (2019). *Proverbs*. Seoul: CLC. Trans. Longman, Tremper (2006). *Proverbs*. Grand Rapids: Baker.]
- 현창학 (2009). **구약 지혜서 연구**. 수원: 합신대학교출판부.
- [Hyun, C. H. (2009).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 Wisdom Book*. Suwon: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Press.]
- Bartholomew, C. G. & Y. P. O'Dowd (2011). *Old Testament Wisdom Literature: A Theological Literature*. Downers Grove: IVP.
- Brown, W. P. (1996). *Character in Crisis: A Fresh Approach to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Crenshaw, J. L. (1998).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Fox, M. V. (2000). *Proverbs 1-9*. Anchor Bible 18A. New York: Doubleday.

Van Leeuwen, R. C. (1988). *Context and Meaning in Proverbs 25-27*. SBLDS 96. Atlanta: Scholars Press.

Waltke, B. K. (1992). Does Proverbs Promise Too Much?. *JCBRF* 128, 17-22.

Waltke, B. K. (2004). *The Book of Proverbs: Chapters 1-15*. NICOT. Grand Rapids: Eerdmans.

잠언에 나타난 공동체 교육의 다양한 형태들

Forms of Community Education in the Book of Proverbs

김희석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잠언 전체의 구조에 나타난 가르치는 이/화자와 배우는 이/청자의 관계 설정 및 그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잠언이 드러내는 공동체 교육의 장의 형태를 살펴본다. 잠언 1-9장, 10:1-22:16, 22:17-24:34, 25-29장, 30-31장에 걸쳐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이 가르치는 이/화자와 배우는 이/청자 관계의 분석을 통해 발견하는 지혜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가르치는 이(화자)는 계속 확장되어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인물을 길러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둘째, 배우는 이(청자) 역시 계속 확장되었는데, 배우는 이가 가르치는 이가 되도록 성장해 나갔다. 셋째, 잠언은 상호배움의 공동체적인 교육의 장(context)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러한 지혜교육은 배우는 이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삶의 부분들을 여호와 경외라는 세계관 교육의 렌즈로 조망하도록 교육했다. 다섯째, 이러한 교육은 결국 배우는 이가 지혜교육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이끌고자 했다.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이의 자리에 계속 참여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배움의 장이 형성되고, 상호배움의 터전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닫힌 결말로 마무리되지 않으며, 열린 결말 즉 평생교육(재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제어: 잠언, 지혜, 공동체 교육, 여호와 경외, 기독교 세계관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6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에서 인용 출처는 APA 방식으로 표시하며, 본문 내 직접 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 문헌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하고, 한글 참고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명, 문헌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여백 30으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⑥ 저자가 2인일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 Lee, 2008: 20)

⑦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⑧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이윤리, 2007b: 27)

⑨ 영문으로 된 원서의 한글 번역서일 경우 (원저자의 성, 번역자의 성명, 번역서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형식으로 한다. (Volf, 김철학 역, 2010: 12), (Volf, 김철학·이희계 역, 2010: 12), (Volf, 김철학 외 역, 2010: 12)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은 영문으로 하고 내용은 한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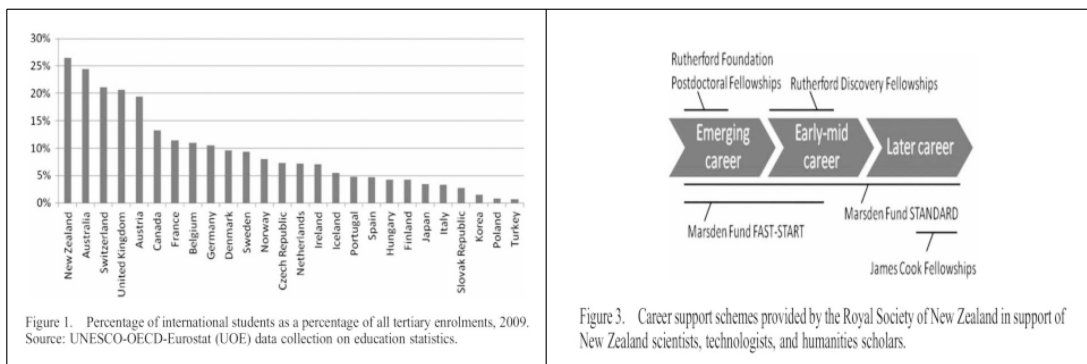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N = 152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i>t</i> (151)	<i>r</i>	<i>d</i>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논문:

Todd, S. & Haydon, G.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③ 번역서:

Meargham, P., Weimer, D. & Vining A.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Kim, J. S. & Kwon J. S.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

- 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

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

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황혜원 (청주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경민 (전남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신응철 (송실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7권 제3호 (통권 92호), 2022년 9월호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황혜원 (청주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